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 학위논문

이병주의 『관부연락선』에 나타난
윤리의식 연구

- 중립과 사랑의 의미를 중심으로 -

2017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전공
정 계 룡

이병주의 『관부연락선』에 나타난
윤리의식 연구

- 중립과 사랑의 의미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손 유 경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전공
정 계 룡

정계룡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년 12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본고는 이병주의 『관부연락선』에 나타난 윤리의식을 드러내는 데 목적을 둔다. 선행연구들에서 이병주의 사상은 회색의 사상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어왔다. 그러나 이병주는 중립과 사랑을 바탕으로 현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병주의 중립은 어떤 태도와 입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윤리적 출발점으로 나타나며, 이는 궁극적으로 선택의 문제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의미를 함축한다. 이병주의 중립은 어느 두 가지 항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적극적 의미를 가진다. 방향으로서의 사랑은 이러한 중립적 입장의 방향을 예각화해준다. 『관부연락선』에 나타나는 중립과 사랑은 소설에서 드러나는 윤리의식이 발현된 양태이다. 따라서 본고는 이병주 소설에 드러나는 중립과 사랑을 중심으로 윤리의식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병주 소설에서 중립과 중립을 구체화시켜주는 사랑에 대한 친착은 주로 일제 강점기와 해방기를 통해 나타난다. 『관부연락선』은 등단작 「소설·알렉산드리아」 이후 이병주의 첫 장편소설로서, 일제 강점기와 해방기에 걸쳐서 중립을 보여주는 이병주의 유일한 작품이다. 이러한 중립은 사랑을 떠나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관부연락선』에 관한 연구는 이병주 작품에 관통하는 중립과 사랑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연구의의를 갖는다.

2장에서는 소설의 서술 시점, 서술자의 시선과 인물 형상화 방식을 통해 표현된 중립의 의미와 그 가능성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관부연락선』은 총 세 가지의 시점으로 서사화되며 각각의 시점이 소설의 중립을 드러내는데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또한, 서술자의 시선을 통해 소설 속 여러 인물들이 유형화되는데, 이러한 서술자의 시선이야말로 중립적인 시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좌·우 이분법으로 환원되지 않는 서술자의 구체적인 인물 유형화 방식은 기회주의를 재평가하는 시도로서 『관부연락선』의 문제적인 지점이 된다.

3장에서는 어느 두 가지 항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가치를 갖는

다는 중립의 방향을 설정하는 사랑을 분석한다.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인물의 형상화 방식, 인물 간 사랑의 다양한 형태와 양상 등은 중립적 시선으로 유형화되었던 인물들 간의 통합 가능성을 시사한다. 중립과 사랑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타인에 대한 배제의 범위이다. 『관부연락선』은 중립과 사랑을 통해 타인에 대한 배제의 측면에서 기회주의형 인물들을 제외한 인물들과의 소통을 지향한다. 성실함의 층위에서 고평되는 인물들도 주체성과 더불어 ‘기회주의형 인물 외 타인과의 대화 가능성’을 갖춘 인물들이다. 또한 이병주는 『관부연락선』의 전체적인 구도를 지배하고 있는 우익의 시점 및 중립의 입장에 비하여 좌익 인물을 고귀하게 형상화함으로써 『관부연락선』 자체가 중립적인 텍스트임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중립적인 인물의 실종을 통해 『관부연락선』은 한국현대사에서 중립이란 불가능에 가까운 위험한 입장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관부연락선』은 중립이야말로 가장 극단적이고 위험한 입장이며, 사랑이야말로 가장 성취하기 어려운 사상임을 중립적인 인물의 실종을 통해 역설적으로 보여준 작품이다. 『관부연락선』의 중립은 둘 사이의 가운데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이분법을 가능케 하는 조건 자체를 탐구하는 중립이다. 최인훈의 「광장」은 중립국을 희망하는 이명준의 자살로 끝을 맺는다. 여기서 이명준의 중립은 ‘초월로서의 중립’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보다 유토피아를 좇은 이명준의 중립은 현실에 근거해 있지 않다. 하지만 이병주의 중립은 현실에 근거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이는 ‘계급의식의 부재’나 ‘교양주의의 한계’로 평가되기 어려운 이병주 문학 고유의 중립 관점이다.

주요어 : 이병주, 『관부연락선』, 중립, 방향으로서의 사랑, 윤리,
기회주의의 재평가, 성실함, 회색의 사상

학 번 : 2015-20041

목 차

<국문초록>

1. 서론	1
1.1. 문제 제기 및 연구사 검토	1
1.2. 연구의 시각	8
2. 서술 방식과 인물 형상화 방식을 통해 나타나는 중립의 의미와 그 가능성	17
2.1. 서술 시점의 형상화 방식과 인물의 체험을 통해 형성된 중립적 입장	18
2.2. 중립적 인물의 시선을 통해 드러나는 기회주의의 의미	33
2.3. 체제 외적 인물군과의 비교를 통해 드러나는 중립의 의미	53
3. ‘방향’으로서의 사랑	73
3.1. 인물 형상화 방식을 통해 드러나는 ‘방향’으로서의 사랑	74
3.2. 인물 간 사랑의 다양한 형태·양상과 ‘성실함’의 정체	84
4. 결론	98

<참고문헌>

<Abstract>

1. 서론

1.1. 문제 제기 및 연구사 검토

본고는 그동안 ‘회색의 사상’¹⁾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평가·이해되어 온 이병주²⁾의 역사의식을, 그의 장편소설 『관부연락선』³⁾에 드러나는 ‘중립’과 ‘사랑’의 의미 분석을 통해 재평가하고자 한다. 『관부연락선』에 나타나는 중립과 사랑은 소설에서 드러나는 윤리의식의 발현태이다. 소설에서 드러난 이러한 윤리의식은 개인에서 사회와 국가로 확장·적용되기 때문에 역사의식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사회적 격변기에 특정한 정치적, 사회적 입장을 택하지 않고 중립을 지켜온 사람은 세간에 의해 회색분자로 폄하되며 기회주의자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통념과 달리 『관부연락선』에 나타나는 ‘중립’은 어떤 태도와 입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윤리적 출발점으로 나타나며, 이는 궁극적으로 ‘선택’의 문제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의미를 함축한다. 나아가 『관부연락선』에서 ‘중립’적 입장을 통해 진리의 가치를 부여받게 된 개별적이고 소외된 것들 간 마주침의 가장 극적인 형태는 우정과 사랑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관부연락선』에서는 ‘사랑’이 많은 지면을 할애하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랑은 ‘중립’적 입장의 방향을 예각화해준다는 점에서 중립과 사랑은 서로 상보적 의미망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 1) 김외곤, 「이병주 문학과 학병 세대의 의식구조」, 『지역문학연구』 12, 경남부산지역문학회, 2005; 김윤식, 『이병주와 지리산』, 국학자료원, 2010; 이정석, 「학병세대 작가 이병주를 통해 본 탈식민의 과제」, 『한중인문학연구』, 한중인문학회, 2011; 노현주, 「이병주 소설의 정치의식과 대중성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2012 등.
 - 2) 나립 이병주(1921.3 - 1992.4)는 지병으로 타계할 때까지 약 80편이 넘는 방대한 작품을 남긴 작가다. 그는 경남 하동군에서 태어났으며, 1943년 메이지대학 문예과를 졸업하고, 1944년 1월 20일 4385명과 함께 일제의 학도병으로 끌려갔다. 그는 마흔이 넘는 나이에 창작활동을 시작하였는데, 「소설·알렉산드리아」를 1965년 6월 『세대』지에 발표함으로써 문단에 등장하였다.
 - 3) 1968년 4월 - 1970년 3월 『월간중앙』에 연재. 문단에 등장한 이후에 발표한 이병주의 첫 장편소설.

이병주에 대한 연구는 주로 그의 역사의식과 대중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병주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 김윤식은 정식 등단 절차 없이 문단에 데뷔했다는 점, 추천자도 없이 홀로 글쓰기에 임했다는 점으로 ‘순수문학’의 마당에 끝내 서지 못해 조명받지 못했다고 한다.⁴⁾ 이병주 작품의 대중성 또한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⁵⁾ 그의 주요 작품인 장편소설에 대한 연구 또한, 학술지 논문을 제외하고는 『지리산』⁶⁾을 대상으로 한 학위논문 외에는 정치한 분석의 작품론도 나오고 있지 않다.⁷⁾ 중·단편 소설을 대상으로 한 학위논문이 한 편 있기는 하나,⁸⁾ 대상 텍스트 선별의 기준이 모호한 점에서 이병주의 중·단편 소설들의 특징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

이병주에 대한 연구경향은 역사의식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축적되어 있다. 이병주는 남재희와의 대담에서 소설이란 “역사의 뒀안길에서 생략되어 버린 인간의 슬픔, 인생의 실상, 민족의 애환 등을 표현하는 것”이며, “승리와 패배의 기록만으로 점철되어 가는 역사의 이면을 추구해야겠다는 뜻에서 회색의 균상으로 눈을 돌렸다”고 말한다.⁹⁾ 이병주의 소설에는 그의 발언대로 역사의 뒀안길에서 생략되어 버린 것들이 자주 등장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이병주 연구에는 역사의식에 대한 언급이 빠짐없이 등장한다. 역사의식에 주목한 연구로는 김윤식,¹⁰⁾ 손혜숙,¹¹⁾ 노현주,¹²⁾ 이정석¹³⁾ 등의 연구가 있다. 이병주의 역사의식에 대한 대부분의 논지는 이

4) 김윤식, 『일제말기 한국인 학병세대의 체험적 글쓰기론』, 서울대출판부, 2007, 158면.

5) 손혜숙, 「이병주 소설의 ‘역사인식’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2011.

6) 문경화, 「이병주의 지리산 연구」, 서강대 석사학위 논문, 2010. 이 밖에도 김윤식의 『이병주와 지리산』 등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어느 정도 진척되어있지만, 타 작품에 관해서는 적은분량의 학술지논문 수준의 연구밖에 없는 실정이다.

7) 『관부연락선』의 작품론으로 두 개의 학위논문이 있지만, 지나칠 정도로 줄거리 요약에 치중하고 작품에 대한 내재적인 분석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작품론적 성과로 보기 어렵다. 대상 논문은 다음과 같다. 김민희, 「『관부연락선』 연구」, 홍익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강경선, 「이병주의 『관부연락선』 연구」, 경성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8) 김기용, 「이병주 중·단편 소설 연구」, 원광대 석사학위논문, 2010.

9) 이병주, 남재희 대담, 「회색균상의 이론」, 『세대』, 1974. 5.

10) 김윤식, 『이병주와 지리산』, 앞의 책; 김윤식, 『이병주 연구』, 국학자료원, 2015.

11) 손혜숙, 앞의 글.

12) 노현주, 「이병주 소설의 정치의식과 대중성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2012.

병주가 역사에 대한 뛰어난 통찰력을 보여주면서도 그의 역사의식은 1930년대 쇼와(昭和)교양주의¹⁴⁾로 인한 단편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담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에 따라, 이병주는 역사의 진보를 위해 행동하는 인물을 제시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거나 양비론의 입장에 서 있는 인물밖에 그려내지 못했다고 평가된다. 물론, 이병주 소설들의 인물이 한반도의 문제들을 조선대 일본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국제 정세 속에서 파악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는 연구들도 존재한다.¹⁵⁾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조차 이병주의 역사의식을 민족 내 계급갈등의 측면을 간과한 단편적인 것이라고 단정한다. 『관부연락선』에 대한 연구들도 ‘이병주의 역사의식은 1930년대 쇼와(昭和)교양주의가 보여주는 한계점에 놓여있다’는 이병주의 연구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병주의 역사의식을 중립적 입장으로 분석한 선행 연구사들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연구사들은 이병주의 역사의식이 ‘회색의 사상’으로 명명되며 이는 철저하고 객관적인 현실 인식이라는 손혜숙¹⁶⁾의 논의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만으로는 그의

13) 이정석, 「학병세대 작가 이병주를 통해 본 탈식민의 과제」, 『한중인문학연구』, 한중인문학회, 2011.

14) 쇼와 교양주의는 1910년대 니시다 철학으로 대표되는 교양주의 혹은 1920년대 마르크스주의로 대표되는 교양주의와 구별된다. 1930년대 쇼와(昭和) 교양주의를 김윤식은 입신출세주의 교육과 결부지어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1930년대 교양주의는 만주사변을 겪고 중일전쟁을 눈앞에 둔 시대의 교양주의로, 특징적인 것은 자유주의로의 선회이다. 김윤식은 이러한 교양주의를 제3기 교양주의라 칭한다. 1930년대 일본은 교육을 통한 입신출세를 강조하였는데 조선인에게 일부 제약이 있었지만, 이 시기에는 누구나 제국대학을 통해 학력귀족의 반열에 합류할 수 있었다. 제3기 교양주의 시기에는 공산주의의 장단점과 그 전략까지 폭로되었고, 자유주의 자본주의의 한계 또한 드러난 마당이었다. 따라서 이병주는 이분법으로 포섭되지 않는 ‘회색군상’에 주목하여 진리를 찾고자 하였다. 김윤식은 이병주의 문학이 1960년대 내면문학에 부재했던 공간의 확장을 보여주며 이데올로기의 장단점을 정치하게 드러냈다고 고평하지만, 이병주의 ‘부호로서의 계층의식’이 마르크스주의가 비판하는 상품의 물신화 현상을 등한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김윤식, 『이병주와 지리산』, 앞의 책; 김윤식, 『이병주 연구』, 앞의 책) 이러한 1930년대 교양주의의 대표적인 논자로 고바야시 히데오(小林秀雄)와 미키 기요시(三木清)를 들 수 있다. 이들의 교양주의는 국가주의와 전쟁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선행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교양주의의 특성을 들어, 이병주의 역사의식을 비판하는 논거로 활용하였다.

15) 노현주, 앞의 글; 이정석, 「학병세대 작가 이병주를 통해 본 탈식민의 과제」, 『한중인문학연구』 33, 한중인문학회, 2011.

16) 손혜숙, 앞의 글.

중립을 명쾌히 설명하기 어렵다. 이에 따르면, 중립은 단지 회색이라는 주장과 동어반복적으로 들리기 때문이다.

본고가 드러내고자 하는 『관부연락선』에 나타나는 윤리의식의 발현태인 중립과 사랑은 이병주의 역사의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소설에 나타나는 윤리의식의 적용범위가 개인에서 사회와 국가로 확장·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병주의 역사의식은 ‘교양주의의 한계’로 단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는 역사의 진보라는 명목 하에 희생되고 사라져간 개인에 주목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이병주의 역사의식을 역사의 진보를 부정하고 개인에만 주목하는 소박한 휴머니즘이라고 결론짓는 것은 이병주에 대한 오독일 수 있다. 『관부연락선』에 나타나는 주인공의 ‘중립적 입장’을 고찰해 보면 이병주의 역사의식이 소박한 휴머니즘이 아니라는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관부연락선』에서 이병주가 천착했던 ‘중립’과 ‘사랑’에 대한 주목은 그의 역사의식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병주는 중립에 대한 사유와 함께 사랑을 바탕으로 현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병주의 중립적 입장은 소박한 휴머니즘이 아니라 자유를 향한 개인의 적극적인 ‘추구’의 몸짓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입장에 대한 선택에 관련된다는 점에서 윤리적인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최현주는 『관부연락선』이 일제 식민지 기간 작가 이병주의 학생/학병 체험, 그리고 해방공간에서 교사로서의 원체험을 근간으로 식민성과 탈식민성의 함의를 깊이 있게 형상화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최현주는 『관부연락선』이 우리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식민성의 원인과 그로 인한 문제점을 제대로 추적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탈식민의 실천적 지평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고 본다. 결국 최현주가 바라보는 이병주와 『관부연락선』의 이념적 한계는 일제 식민지 교육과 왜곡된 교양주의 교육으로부터 발원하는 것이며, 『관부연락선』은 식민적 배치와 교육의 모순, 그리고 제국주의의 폭력성을 날카롭게 제시해냈지만 허무주의 혹은 자유주의라는 회색의 영역에 머무른 지식인들의 내면을 제시하는 데 그침으로써 실천적 탈식민의 지평까지는 제시하지 못한 작품이라고 평가한다.¹⁷⁾ 최현주의

이러한 시각은 『관부연락선』에서 나타나는 중립적 인물인 유태림과 우익적 인물인 이선생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시각으로는 『관부연락선』의 중립, 사랑과 중립적 입장이 제시하는 탈식민적 지평을 분석해낼 수 없다.

김외곤은 『관부연락선』을 우리 근대 및 현대의 역사적 진실을 집요하게 추구한 하나의 보고서라고 한다. 그는 『관부연락선』을 근대 및 현대의 역사적 진실을 추구한 점, 지식인을 작품의 중심인물로 등장시킴으로써 현실을 폭넓게 반영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한 작품이라고 평한다. 김외곤은 ‘이선생’이라는 해설자의 개입이 현실의 폭넓은 반영을 가능케 하고 현실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본다. 하지만 김외곤은 때때로 해설자의 해설이 지나치게 개입됨으로써 작가의 의식이 일방적으로 독자들에게 전달되는 경우도 더러 발견된다고 하며, 이러한 경우 독자의 상상력을 위축시킬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비판한다.¹⁸⁾ 그러나 『관부연락선』에서 형상화되는 이선생은 명백히 우익적 인물로 이병주가 일부러 우익의 입장을 보여주려고 한 점이 크다는 점에서 볼 때, 이선생의 말을 전부 작가의 해설인 것처럼 치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조갑상은 『관부연락선』을 소설 미학적 측면에서 분석했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들에 비해 차별적 성과를 이루었다. 그는 이선생의 현재적 서사가 거의 없다는 것을 지적하며 『관부연락선』은 현재의 시간이 결여된 완전한 회상시간, 과거의 시간만을 다룰 뿐이라고 한다. 그는 시간이란 물리적으로 분절되는 게 아니라 서로 맞물려 있거나 뒤섞여 있음으로 하여 그 가치를 가지는데, 지나간 시간은 현재에 영향을 미칠 때 참다운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과거 일변도는 다루어지는 사건의 무게나 부피가 아무리 무겁고 크다 하더라도 소설적 역동성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밖에 인칭과 시점의 측면에서 서술방법을 논하며 이 방식은 작품이 다루고 있는 내용에 대한 작가의 구체적 대응방식의 결과라고

17) 최현주, 「『관부연락선』의 탈식민성 연구」, 『배달말』 48, 배달말학회, 2011.

18) 김외곤, 「격동기 지식인의 초상-『관부연락선』」, 김윤식·임현영·김종희 편집, 『역사의 그늘, 문학의 길』, 한길사, 2008, 369-378면.

평한다.¹⁹⁾ 하지만, 조갑상이 논하는 『관부연락선』의 ‘과거 일변도’는 소설의 1967년으로 형상화되는 현재적 시점의 의미를 간과한 분석이다. 소설의 1967년 시점은 비중이 얼마되지 않지만 ‘중립’적 입장과 그 가능성을 드러내는 데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적인 서사이다.

『관부연락선』이 역사의 진보라는 관념에 갇혀 인간을 역사에 종속된 것으로 인식하는 우리 문학의 지배적인 한 경향에 대해 반성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고 하는 논의는 김외곤²⁰⁾과 노현주²¹⁾, 정호웅²²⁾ 등에게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들도 앞선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이병주의 역사의식을 ‘교양주의의 한계’로 단정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노정한다. 『관부연락선』에 대한 연구는 학병세대 이병주에 의한 자기변명을 드러내며 공산주의와 제국주의의 폭력성을 첨예하게 드러냈지만, 결국에는 허무주의적 자유주의의 지식인을 그려내는 데 그쳤다는 한계점을 갖는다고 요약된다.

이병주의 『관부연락선』은 이 작가에게 중립이란 단지 정치적 입장으로 서가 아니라 윤리적인 동시에 미학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는 중요한 텍스트이다. 이병주에게 과연 중립이란 어떠한 윤리적 세계 이해를 뜻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관부연락선』을 관통하고 있는 ‘사랑’의 서사 분석이 필수적이다.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중립이란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정하게 처신함”과 “국가 사이의 분쟁이나 전쟁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중간 입장을 지킴”이라고 여겨진다.²³⁾ 그러나 이병주에게 중립은 어느 한 편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부정적(negative)차원을 넘어, 어떤 입장과 태도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윤리적 출발지점’이라는 매우 긍정적(positive)차원에 연결되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롤랑 바르트가 말한 바, 중립의 담론은 기존에 주어진 것들 사이의 선택이 아니라 그것을

19) 조갑상, 「이병주의 『관부연락선』 연구」, 『현대소설연구』 11, 한국현대소설학회, 1999.

20) 김외곤, 「이병주 문학과 학병 세대의 의식구조」, 『지역문학연구』 12, 경남부산지역문학회, 2005.

21) 노현주, 「현대문학 : 정치의식의 소설화와 뉴저널리즘 - 이병주의 『관부연락선』 연구」, 『우리어문연구』 42, 우리어문학회, 2012.

22) 정호웅, 「해방 이후 지식인의 행로와 그 의미 - 이병주의 『관부연락선』」, 『현대소설연구』 24, 한국현대소설학회, 2004.

23)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참고.

벗어나는 선택을 이야기하는 담론이다. 중립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택의 문제에 결부되므로 윤리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다.²⁴⁾ 이는 ‘중립’이 두 가지 이상의 가치를 전제하여야만 존재할 수 있다는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 ‘중립’ 자체로 하나의 가치가 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중립’적 입장을 통해 드러난 가치들 간 마주침의 가장 극적인 형태는 인물들 사이의 우정과 사랑으로 나타난다.²⁵⁾

『관부연락선』 외에도 중립을 모티프로 한 여러 작품들이 존재한다. 이병주의 중립은 주로 일제 강점기와 해방기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점예하게 나타난다. 그중에서 『관부연락선』은 일제 강점기와 해방기를 통해 나타나는 중립을 모두 보여주는 유일한 작품이다. 이병주의 중립은 그가 긍정하는 사랑을 떠나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관부연락선』에 나타나는 다양한 사랑의 형태와 양상의 분석은 이병주의 중립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관부연락선』에 관한 연구는 이병주 작품에 관통하는 중립과 사랑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연구의의를 갖는다. 『관부연락선』에 나타나는 사랑에 주목한 연구는 드물다. 『관부연락선』에 나타나는 중립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사랑의 중요성에 비해 사랑에 주목한 연구가 드문 것은 아쉬운 점이다. 사랑은 『관부연락선』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부차적인 문제로 다루어졌다. 본고는 『관부연락선』에 나타난 사랑의 서사를 부차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이병주의 핵심적인 사상이라는 전제하에 본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관부연락선』은 이병주 작품을 관통하는 중립과 사랑의 문제를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텍스트라는 점에서 본격적으로 고찰될 필요가 있다. 소설의 배경이 한 개인의 내면과 작은 공간으로 나타났던 1960년대 당대 분위기에서 벗어나 『관부연락선』에 나타나는 공간적 배경은 만주와 일본 등지로 확대되어 있다는 점에서 『관부연락선』은 당대 문단 분위기와는 구별되는 특이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또한, 최인훈과 대비되는 이병주만의 고유한 중립관점은 문학사에서 중립에 대한 연구사를 축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24) 롤랑 바르트, 김웅권 옮김, 『중립』, 동문선, 2004, 38-39면.

25) 칼 마르크스, 고병권 옮김,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 자연철학의 차이」,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 자연철학의 차이』, 그린비, 2001, 82면.

한다.

본고는 이와 같은 연구사의 성과와 한계를 이어받아 『관부연락선』에 나타나는 윤리의식의 발현체인 중립과 사랑의 의미분석을 통해 이병주의 역사의식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윤리의식을 드러내고자 한다.

1.2. 연구의 시각

이병주는 1930년대 쇼와(昭和)교양주의의 영향 하에 놓여있었다. 그는 1930년대 전향국면에서 대표적인 학자 고바야시 히데오(小林秀雄)와 미키 기요시(三木清)의 사상에 깊이 영향을 받았던 일본유학파였다. 그의 세계 인식은 일본을 통해 수입된 서양사상으로써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병주의 역사의식을 1930년대 교양주의의 한계로, 거시적인 안목으로 인해 한반도 내의 계급적 모순을 간과했다고 단순하게 평가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교양주의는 이병주의 ‘중립’적 입장을 확고히 해주었을 뿐이다. 이것을 ‘계급의식의 부재’와 연결시켜 그를 폄하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예컨대 이병주 소설에 나타난 중립 관점을 정당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최인훈 소설의 중립 관점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광장」²⁶⁾은 중립국을 희망하는 이명준의 자살로 끝을 맺는다. 여기서 이명준의 중립은 ‘초월로서의 중립’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보다 유토피아를 쫓은 이명준의 중립은 현실에 근거해 있지 않다. 그러나 『관부연락선』의 중립은 현실에 근거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관부연락선』의 중립은 둘 사이의 가운데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이분법을 가능케 하는 조건 자체를 탐구하는 중립이다. 이는 ‘계급의식의 부재’나 ‘교양주의의 한계’로 평가되기 어려운 이병주 문학 고유의 중립 관점이다.

조선 후기 이후, 한반도에 대한 중립화 논의가 제기된 것은 1882년부터였다. 한반도의 중립화 주장은 주변국가에 의해 제기되거나, 또는 국내외의

26) 최인훈, 1960년 10월 『새벽』 지 발표.

개인이나 국가에 의해 주장되었다. 주변국가에 의해 제기된 한반도의 중립국 주장은 한반도의 순수한 자주독립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한반도를 속국으로 지배하기 위한 전략적 계략이었으며, 이를 반대한 국가들도 그들의 국가이익에 우선한 조치들이었다. 그러나 국내외 개인들이 주장한 한반도의 중립화론은 한반도의 진정한 자주독립을 유지하기 위한 충정에서 제기되었다는 면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²⁷⁾

1882년 7월 임오군란 발생으로부터 1910년 경술국치까지의 한반도 중립화론은 에노모토 다카키(Enomoto Takaki), 유길준, 김옥균, 이하영, 허만부들러(Hermann Budler), 아키발드 로즈베르(Archibald P. Rosebery) 등에 의해 각자의 이익과 목적에 따라 제기되었다. 이러한 한반도 중립화론은 궁극적으로 실패하였다. 고종은 1904년 1월 20일 조선이 영세중립국임을 일방적으로 선언했으나 1904년 2월 10일 러일전쟁의 발발로 조선의 영세중립정책은 실패하였다.²⁸⁾

해방 후 김용중은 1946년 1월 8일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에 포위되어 있으므로 영세중립국으로 통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김삼규는 일본에서 발행한 『코리아 평론』을 통해 한반도의 중립화통일운동을 전개했다. 1960년 8월 수립된 장면 정권은 시민단체의 한반도 중립화통일운동과 자유로운 토론을 직접 규제하지는 않았으나 중립화통일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4.19 학생의거에 참가한 학생 대표들은 고려대학교 학생회가 1960년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고려대에서 개최된 통일문제 토론회에서 남북의 중립화통일을 적극 주장했다.²⁹⁾

이와 같이 중립은 정치적인 관점에서 국제관계와 남북 간의 문제에 관하여 논의되어왔다. 이병주가 보여주었던 윤리적인 선택과 결부된 중립의 관점은, 정치적인 관점 일변도인 중립의 자장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중립을 정치적인 관점으로만 해석하게 되면, 중립의 통상적인 의미인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정하게 처신함’과 같이 중립이 부정적으로 해석되기 쉽다. 그러나 『관부연락선』에 나타나는 중립은 윤리의식과 긴밀히 결부

27) 강종일, 『한반도 생존전략-중립화-』, 해맞이미디어, 2014, 157면.

28) 강종일, 위의 책, 157-173면.

29) 강종일, 위의 책, 177면.

되어있다. 이병주는 『관부연락선』의 중립과 사랑을 통해 윤리의식을 드러낸다. 통상적으로 여겨지는 중립에 대한 선택은 타율적이며 상황논리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병주의 중립은 배제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객관적인 탐구를 통해 합리적인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선택의 영역에 놓여있다. 이러한 ‘중립’은 그 자체가 하나의 선택할 수 있는 가치, 즉 두 개의 항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의미를 함축한다.

이러한 이병주의 중립은 남북 간의 해방기뿐만이 아닌, 일제 강점기까지 시각을 확장시켜 한국현대사를 중립의 시선으로 총체적으로 바라보고자 했다는 점에서 1960년대 최인훈과 같은 당대 문인들과 차별성을 지닌다. ‘배제하는 행위를 배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관부연락선』에 나타난 중립은 한국현대사를 넘어 어느 국가, 어느 사회에나 적용할 수 있는 시각이다. 『관부연락선』의 유태립은 경직된 이념을 거부하고, 토론과 대화를 통해 진보적 방향을 모색하려고 노력했다. 따라서 유태립은 계급의식의 절대화를 지양하고자 하였다.

『관부연락선』은 두 가지 절대적인 평가기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첫째는 계급의식의 절대화이고 둘째는 민족의 절대화이다. 첫째, 이병주는 일본 유학 당시 악이 선을 압도하는 역사적 결과들을 무수히 많이 보아왔다. 제국주의 일본은 조선을 점령하였고, 유럽에서는 파시즘이 득세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대안적 해결책으로 나온 마르크스주의는 극우 파시즘과 다를 바 없는 전체주의적 속성을 통해, 소련이라는 공포의 국가를 낳았다. 물론, 초과노동이 착취노동이 아니라 예술과 창조가 되고,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가 모두에게 존재하는 풍요롭고 충만한 공산주의의 실현이라는 마르크스주의의 목표는 인류가 원하는 사회의 구상이다. 그러나 그것이 정치의 이데올로기와 같이 유일무이한 통치의 원칙이 되었을 때, 어떠한 사회가 탄생했는지는 소련이라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선행 연구자들이 공유하는 이병주의 일제 긍정과 식민성, 국제적인 안목 탓에 계급의 모순을 간과했다는 관점은 제국주의/식민지, 자본가/노동자라는 이분법적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이분법적 시각이야말로 이병주가

벗어나고자 했던 지평이다.

둘째, 민족을 절대화하는 전체주의적 시각은 문학연구의 방향과 성과를 단순화하거나 평면화할 가능성이 높다. ‘민족’의 절대화로 인한 자유로운 생각과 객관적인 평가의 배제는 ‘민족’을 사유하면서 생기는 병폐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는 목적으로 전략하기 쉽다. 이러한 관점은 좌우 이데올로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박병탁에 따르면, 문학은 선입견으로도 논리적으로도 그 어떤 답을 내리지 않아야 한다. 그는 답을 내리고 독자에게 허무적 낭만주의와 역사인식을 강요한다는 이병주의 한계를 지적한다.³⁰⁾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이병주에 대한 오독일 수 있다. 이병주는 오히려 ‘절대화’에 대응하여 ‘상대화’를 적용함으로써 이분법적 사고를 탈피하고자 하였다. 이는 『관부연락선』에서 형상화된 일제 강점기와 해방기 모두에 적용된다. 이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소통가능성을 원리로 하여 현실 문제 해결에 적용될 수 있는 담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에피쿠로스의 ‘편위’는 절대적인 초월자를 상정하지 않고 원자 내부의 마주침으로 현상을 설명한다. 원자들의 마주침을 통해 형성된 가치는 언제든지 원자들의 ‘편위’적인 움직임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³¹⁾ 본고는 에피쿠로스의 ‘편위’ 개념을 이병주의 ‘상대화’를 설명하는 데 원용하고자 한다. 직선운동과 구별되는 ‘편위’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을 가정할 때에야 원자들의 마주침과 충돌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병권에 따르면, 마르크스가 발견한 원자론에서 중요한 것은 원자 자체가 아니라, 원자들의 충돌로 생겨난 사건과 흐름이라고 한다.³²⁾ ‘편위’는 사건과 흐름을 만들어내는 원자들의 마주침을 생겨나게 하는 원리이다. 이러한 마주침의 가장 극적인 형태를 우리는 사랑과 우정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문제에 대한 해결은 내부의 소통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편위’ 개념은 내부의 절대화가 보여주는 폐단을 지적하고, 새로

30) 박병탁, 「이병주 역사소설의 유형과 의미 연구 : 『관부연락선』, 『지리산』, 『산하』를 중심으로」,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14, 65면.

31) 칼 마르크스, 고병권 옮김,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 자연철학의 차이』,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 자연철학의 차이」, 그린비, 2001, 71-82면.

32) 고병권, 「맑스와 에피쿠로스 : 유물론에 반하는 유물론」, 위의 책, 374면.

운 대안을 찾아내고자 하는 데 원용할 수 있다.

이병주 중립의 핵심은 타인과의 소통가능성이다. 원자론적 세계관에 따르면, 원자로 구성된 집적체는 원자의 ‘편위적 움직임’³³⁾으로 언제든지 재구성될 수 있다. 『관부연락선』의 주인공 유태림에 따르면, 구성된 집단은 언제든지 ‘기회주의형 인물’을 제외한 타인과의 소통으로 인해 재구성될 수 있어야 한다.

마르크스가 발견한 원자론은 절대적인 진리관념에서 벗어나 총체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탐구하는 토대를 마련해준다. 대일 협력 또는 저항에 대한 재해석, 이분법적 사고의 위험성은 원자론의 틀로 바라본 세계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있다. 특정 이데올로기와 민족 담론의 절대화는 원자의 ‘편위적 움직임’과는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롤랑 바르트의 ‘중립’ 개념은 원자의 ‘편위적 움직임’을 윤리적인 문제와 결부시킨다는 점에서 이병주의 ‘중립’을 설명하는 데 원용할 수 있다.

바르트의 중립은 윤리적인 문제와 결부된다. 중립이 궁극적으로 선택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패러다임이 주어진 기존의 것들 사이의 선택을 이야기할 때 중립의 담론은 기존에 주어진 것들 사이의 선택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는 선택을 이야기하는 담론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중립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바르트에 따르면, 선택의 대상은 중립 자체가 아니라 중립에 대한 욕망이라 할 수 있다.³⁴⁾

33) 원자가 자유로우려면, 원자는 그것이 그리는 직선안에서, 그 현 존재로부터 잃어버린 자신의 개별성을 찾아야 한다. 부정을 통해 재구성됨으로써, 새로운 실존이 창조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자는 직선의 부정, 현존재의 부정을 통해 자기 자신을 표상하며, 그것이 바로 직선으로부터의 ‘편위’이다. 원자들은 편위의 규정안에 정립되기 전에는 결코 완성될 수 없다. 이런 편위의 특질도 앞서 말한대로 원자들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칼 마르크스, 고병권 옮김,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 자연철학의 차이」, 위의 책, 71-82면)

‘편위’는 원자들이 구성한 집적체가 절대적 일자가 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현실세계는 편위에 따른 원자들의 충돌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공간으로, 파괴와 창조가 계속되는 공간이다. 마르크스의 원자들의 ‘편위’적인 충돌로 생긴 어떠한 집적체는 그 당시 실존과 동시에 본질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그 실존과 본질은 영원하지 않은데, 생성된 집적체 역시 원자들의 편위적인 운동을 통해 다시 파괴되고 새롭게 생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34) 김진영, 「중립 개념을 통해 본 롤랑 바르트의 사신론」, 서울대 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6, 35면.

기존의 담론에 중립의 담론을 추가하는 작업은 보편적 법칙으로서의 중립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중립에 대한 욕망을 택하는 삶의 태도를 촉구하는 윤리적 담론이다. 따라서 바르트의 중립은 패러다임의 한계를 드러낼 때에만 고유한 권리를 얻게 된다. 즉 중립의 가치는 패러다임을 드러내고 가시화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안정적 의미로 귀결되지 않는 중립은 사회적 규약과 폭력으로부터 해방의 가능성을 담지한다는 점에서 바르트에게 중요한 실천적 가치를 지닌다. 바르트에게 중립은 자유의 문제와 연결된 윤리적 개념이다. 중립은 그것에 내재된 결정불가능성으로 인해 질서의 폭력과 오류를 드러내는 하나의 투쟁 전략이 된다.³⁵⁾

바르트의 ‘중립’은 진리의 절대화를 벗어나 개별적이고 환원불가능한 것들에게 진리의 가치를 부여하고 재구성해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 『관부연락선』의 ‘중립’에 대응한다. 바르트는 사례를 나열함으로써 중립을 전달하는 방식을 택한다. 중립의 사태를 개별적으로 제시하는 것만이 중립을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환원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³⁶⁾ 『관부연락선』의 유태리즘은 개별적이고 환원불가능한 인물들을 탈이분법적 방식으로 유형화함으로써 ‘중립’의 입장을 드러낸다. 그는 인물들을 좌익/우익, 조선인/일본인과 같은 이분법적 방식으로 유형화하지 않는다. 이러한 유형화 방식을 통해, 유태리즘은 ‘기회주의’를 유형화해낸다. 유태리즘의 ‘중립’은 ‘기회주의’를 제외한 인물군에게 진리의 가치를 부여하고 재구성하며, 인물군 간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진리적 가치를 찾아내려고 하는 점에서 바르트의 ‘중립’에 대응한다.

『관부연락선』의 ‘중립’은 단지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추구’의 몸짓을 가능케 하는 역동적인 힘이다. ‘중립’의 역동적인 힘을 원

35) 롤랑 바르트, 앞의 책, 38-39면; 김진영, 위의 글.

36) 기존 질서의 강력한 권력으로 인해 바르트는 이데올로기에 맞서 저항을 ‘말하는 것’은 결국 또 다른 이데올로기의 주장이 되며 본질적인 비판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이는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나 이성중심주의에 대해서나 마찬가지이다. 저항을 단언하는 저항은 기존 질서에 대한 반정립으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패러다임 안에서의 논쟁이라는 점에서 기존 질서에 흡수되는 것과 다름없다.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은 단일한 구조화의 원리 자체에 귀속되지 않는 방식, 혹은 기존 패러다임에서 감추어진 영역에서 벌어질 때 진정한 저항과 다원화로 작동한다.(김진영, 위의 글, 90면)

동력으로 하는 ‘편위’적인 마주침을 통해 사랑과 우정과 같은 구체적인 형식들을 발견할 수 있다.³⁷⁾ 『관부연락선』에서는 원자들의 마주침을 통해 형성된 사랑이 매우 중요하게 서사화된다. 이때 서사화되는 사랑은 ‘대상’보다 ‘방향’이 중요시되는 사랑이다.

『관부연락선』이 고평하는 사랑의 방향은 개인의 주체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집단과의 통합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랑의 측면은 에리히 프롬의 사랑을 원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프롬의 사랑이 ‘방향성’에 주목한 까닭이다. 『관부연락선』은 사랑의 서사를 제외하고는 설명할 수 없다. 『관부연락선』에서는 이러한 사랑의 방향을 바탕으로 진정한 중립적인 위치의 인물인 유태림이 형상화되어 있다. 이병주는 집단과 개인 각각의 절대화를 지양하고, 그 사이에 있는 중용을 ‘방향’으로서의 사랑으로써 찾고자 했다.

사랑에서 중요한 것은 대상이라기보다 방향성이다. 사랑은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는 아니다. 사랑은 한 사람과, 사랑의 한 ‘대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세계 전체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태도’, 곧 ‘방향’이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만을 사랑하고 나머지 동포에게는 무관심하다면, 그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공서적 애착이거나 확대된 이기주의다.³⁸⁾³⁹⁾ 그렇다고 해서 사랑의 형태에 차이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관부연락선』의 사랑은 제자-스승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부모-자식간의 사랑, 민족에 대한 사랑, 동료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난다.

에리히 프롬은 인간의 정열과 욕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건전한 사회에 대한 구상을 한다. 그에 따르면, 사랑을 통한 욕구의 해결은 인간의 창조적 정열을 불러일으키고, 이를 통해 건전한 사회⁴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37) 칼 마르크스, 고병권 옮김,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 자연철학의 차이」, 앞의 책, 82면.

38) 에리히 프롬, 황문수 역, 『사랑의 기술』, 문예출판사, 2006.

39) 만일 내가 참으로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게 된다. 만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나는 당신을 통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당신을 통해 세계를 사랑하고 당신을 통해 나 자신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에리히 프롬, 위의 책, 70면)

40) 하나의 건전한 사회라는 것은 인간의 욕구와 일치하는 사회, 즉 인간이 자기 욕구라고 느끼는 것과 모두 일치하는 사회라는 말이 아니라—병적 욕구까지도 주관적으로는 가장

다.⁴¹⁾ 프롬에 따르면, 연구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인간의 욕구는 세 가지이다. 초월에의 욕구, 일체감에 대한 욕구, 신앙에 대한 욕구가 그것이다.⁴²⁾ 나머지 욕구는 세 가지 욕구가 정상적으로 채워지지 않았을 때 나온 병적인 것이거나 사회적 합의에 의해 미덕이라고 인정된 병적인 것이다.⁴³⁾

초월에의 욕구란 창조행위를 통해서 피조물로서의 자신을 초월하고 자기 존재의 피동성과 우연성에서 목적성과 자유의 영역으로 자신을 끌어올리는 것이다.⁴⁴⁾ 이에 따르면, 초월에의 욕구충족은 창조적이거나 파괴적인 방향으로 나타나며, 창조적인 방향으로 충족이 되어야 건강한 인간이 될 수 있다.⁴⁵⁾

초월에의 욕구가 창조적으로 발현되기 위해선 앞서 언급한 일체감과 신앙에 대한 욕구가 창조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일치하도록 ‘강요받은’ 정도 이상으로 일치하기를 ‘바라고 있다.’”⁴⁶⁾ 이러한 일체감에 대한 욕구는 현재 세 가지 방향으로 충족되고 있다.⁴⁷⁾ 그중에서 인간의 실존 문

원하는 것이라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연구에 의해 확인될 수 있는 객관적인 욕구와 일치하는 사회라는 생각이 이 책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에리히 프롬, 김병익 옮김, 『건전한 사회』, 범우사, 2013, 28면)

41) 에리히 프롬, 위의 책.

42) 에리히 프롬, 위의 책, 37-69면.

43) 명예욕, 탐욕 등은 ‘다수의 합의’로 인해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병적인 욕구에 불과하다. 한 사회의 구성원의 정신상태에 관한 가장 기만적인 것은 그들 구성원의 ‘합의에 의한 확인’이다.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공통의 인식과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것은 으레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게 마련이다. 이처럼 진리에서 먼 것은 없다. 이와 같은 ‘합의에 의한 확인’은 이성이나 정신건강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 두 사람이 서로 ‘감응성 정신병’을 일으키는 것과 같이 수백만 명 사이에서도 ‘감응성 정신병’이 일어날 수 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동일한 악을 공유한다고 하여 이 악이 미덕이 될 수는 없고 모두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여 그 잘못이 진실이 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수백만 명이 같은 형태의 정신이상을 나타냈다고 하여 그 사람들이 건전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에리히 프롬, 위의 책, 22-23면)

44) 에리히 프롬, 위의 책, 44면.

45) 예술, 종교, 생산 등과 마찬가지로 사랑의 근원은 자신을 초월하려는 인간의 욕구 속에 있다. 파괴하려는 의지의 무서운 힘은 창조하려는 경향과 다름없이 모든 인간의 본성에 뿌리박고 있다. 창조성과 파괴성은 모두 초월을 추구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다. 창조의 의지가 충족될 수 없을 때 파괴의 의지는 고개를 들게 마련이다. 창조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파괴성은 고난을, 무엇보다 파괴자 자신에게 고난을 안겨주는 길이다.(에리히 프롬, 위의 책, 44-45면)

46) 에리히 프롬, 『사랑의 기술』, 앞의 책, 2006, 30면.

47) 알코올과 성적 난행 의식 등으로 인한 도취적 합일과 일치에 의한 합일, 그리고 창조적 활동에 의한 합일이다. 세 가지 합일은 모두 일체감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도취

제에 대한 완전한 해답은 개인의 주체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집단과의 통합성을 달성하는 것이다.⁴⁸⁾

‘사랑’을 통한 합일에는 공서적 합일(배타적 사랑을 통한 합일)과 ‘성숙한 사랑’을 통한 합일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먼저, ‘사랑’을 통한 합일의 기본적인 형태는 수동적, 능동적인 방향으로 나타나는 공서적 합일이다. 공서적 합일의 수동적 형태는 자신의 통합성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 또는 자신의 밖에 있는 어떤 것의 도구로 만든다.⁴⁹⁾ 공서적 합일의 능동적 형태는 다른 사람을 자신의 일부로 만들어서 고독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한다. 자신을 숭배하는 다른 사람을 흡수함으로써 자신을 팽창시키고 강화하는 것이다.⁵⁰⁾ 전자는 후자에 의존하고 후자도 복종하는 자에게 의존한다.⁵¹⁾ 요컨대 공서적 합일은 배타적 사랑을 의미한다.

공서적 합일과는 대조적으로 ‘성숙한 사랑’을 통한 합일은 ‘자신의 통합성’, 곧 개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의 합일’이다. 사랑은 인간에게 능동적인 힘이다. 곧 인간을 동료에게서 분리하는 벽을 허물어버리는 힘, 인간을 타인과 결합하는 힘이다. 사랑은 인간으로 하여금 고립감과 분리감을 극복하게 하면서도 각자에게 각자의 특성을 허용하고 자신의 통합성을 유지시킨다. 사랑에서는 두 존재가 하나로 되면서도 둘로 남아 있다는 역설이 성립한다. 사랑은 행동이며 인간의 힘을 행사하는 것이고, 이 힘은 자유로운 상황에서만 행사할 수 있을 뿐, 강제된 결과로서는 결코 나타날 수 없다.⁵²⁾

『관부연락선』에 나타나는 사랑의 양상은 이러한 시각을 통해 배타적인 사랑과 성숙한 사랑으로 유형화 된다. 또한, 서경애-유태림-이선생의 사랑을 통해 드러나는 ‘방향’으로서의 사랑은 대상보다 ‘방향’을 문제시한다는

적 합일은 강렬하고 난폭하며 일시적이고 주기적으로 일어난다. 일치에 의한 합일은 ‘평등’의 의미를 자동 인형의 평등, 개성을 상실한 인간들의 평등으로 전락시킨다. 이는 일체성보다는 동일성을 강조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동일한 명령에 복종하면서도 각기 자신의 욕망에 따르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에리히 프롬, 위의 책, 29-34면)

48) 에리히 프롬, 위의 책, 35면.

49) 이상숭배나 안정적 생활을 위해 적극적 자유를 포기하는 홉스의 사회계약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50) 히틀러와 스탈린같은 독재자들이 공서적 합일의 능동적 형태의 대표적인 사례다.

51) 에리히 프롬, 위의 책, 36-38면.

52) 에리히 프롬, 위의 책, 38-40면.

점에서 이러한 사랑의 시각과 대응한다. 『관부연락선』의 사랑을 통해 이념을 넘어선 개인과 집단 간의 대화가능성을 꾀진하게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향’으로서의 사랑은 문제적이다.

‘방향’으로서의 성숙한 사랑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위치’라는 유태림의 입장을 구체화시켜주며 이를 통해 사랑도 하나의 사상임을 알려준다. 『관부연락선』에 나타나는 성숙한 사랑은 유태림과 그의 제자들이 보여주는 제자-스승 간의 사랑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패한다. 이를 통해, 격동하는 해방기에서의 사랑은 성취하기 어려운 사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유태림의 실종을 통해 『관부연락선』은 한국현대사에서 중립이란 불가능에 가까운 위험한 입장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관부연락선』은 중립이야말로 가장 극단적이고 위험한 입장이며, 사랑이야말로 가장 성취하기 어려운 사상임을 유태림의 실종을 통해 역설적으로 보여준 작품이다.

2. 서술 방식과 인물 형상화 방식을 통해 나타나는 중립의 의미와 그 가능성

『관부연락선』은 크게 세 부분의 시간으로 서사가 진행된다. 1938년 10월부터 1943년 11월까지의 일제말기를 서사화한 「柳泰林의 手記」와 이선생이라는 해설자의 눈으로 본 해방기(1944년~1951년 7월) 유태림의 행적, 1967년 해설자 이선생의 당대시점이 그것이다. 유태림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회문제에 대해 관찰자의 시각에서 평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대국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변혁하려는 움직임에 동참하지 않는다. 그의 변혁에 대한 참여는 학생들 교육에 한정된다. 『관부연락선』은 1968년 4월부터 1970년 3월까지 『월간중앙』에 24회분으로 연재된 작품이다. 「柳泰林의 手記」는 약 30%⁵³⁾, 해방기 이선생의 서사는 약 65%⁵⁴⁾, 1967년 당대 시점

53) 1968년 『월간중앙』 8월호 연재 5회, 11월호 연재 8회, 12월호 연재 9회. 1969년 『월간중앙』 4월호 연재 13회, 5월호 연재 14회, 9월호 연재 18회, 10월호 연재 19회, 1970년 『월간중앙』 3월호 24회 430-436면. 이하 『관부연락선』 인용시 『월간중앙』 연재 회수와 페이지만 표시하도록 한다.

은 약 5%⁵⁵⁾의 비중으로 『관부연락선』에 서사화되고 있다. 해방기의 서사가 『관부연락선』에 가장 큰 비중으로 형상화되고 있으며, 1967년 이선생의 당대시점은 비중이 얼마되지 않는다. 하지만, 1967년 이선생시점은 소설 전체적인 구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유태림과 이선생은 이병주 본인을 부분적으로 공유한다.⁵⁶⁾ 『관부연락선』은 작가 본인을 유태림과 이선생으로 분열하여 서사화된 작품이다. 이는 이미 『관부연락선』에 관한 선행 연구들이 잘 밝혀 놓은 부분이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은 『관부연락선』의 서사에서 유태림은 실종되지만 이와 달리 이선생은 살아남는다는 핵심적인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

본고는 유태림과 이선생이 모두 작가 이병주와 부분적으로 공명하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한 명은 실종되고 다른 한 명은 살아남는다는 차이가, 그들이 취한 정치적 입장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여기에 이병주가 보여주고자 한 『관부연락선』의 목적이 있다. 유태림을 통해 나타나는 중립의 입장은 한국 현대사에서 위험하고 극단적인 입장이었다는 것을 이병주는 『관부연락선』 속 인물의 형상화 방식과 유태림의 실종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중립’은 선택의 문제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어떤 입장과 태도를 가능하게 하는 ‘윤리적 출발점’이라는 매우 적극적인 차원에 연결되어 있다.

2.1. 서술 시점의 형상화 방식과 인물의 체험을 통해 형성된 중립적 입장

54) 「柳泰林의 手記」와 1967년 이선생 당대시점을 제외한 나머지 지면.

55) (1회:422-439면, 3회:412면, 433면(주:안달영), 439면(주:허봉도), 4회:437면(주:채기엽씨), 5회:420-421면, 437면, 15회:421면(주:이만갑), 18회:412면(주:박순근), 24회:426-430면)

56) 유태림의 학병체험과 해방기 행적, 이선생의 해방기 행적은 작가 이병주의 체험과 대응하는 지점이 많다. 이는 선행연구들이 밝혀놓았다. 한편, 유태림의 상해행적 등은 이병주의 학병동지인 황용주의 행적과 일치하는 지점이 있다. 유태림은 이병주와 황용주의 부분이 공존하는 인물이다. 이병주가 그리는 ‘유태림’이라는 인물의 설정값은 ‘중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유태림이 이병주와 황용주의 어느 부분을 공유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수적이지만, 본고에서는 유태림의 ‘중립’에 집중하여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관부연락선』의 인물 분석에 앞서 소설에 나타나는 세 가지 서술 시점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세 가지 서술 시점이 『관부연락선』의 중립과 사랑을 드러내는 데 각 시기별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柳泰林의 手記」의 본래 이름은 「관부연락선」이다.⁵⁷⁾ 「柳泰林의 手記」는 유태림과 일본인 E가 친일파 송병준을 암살하려다 실패한 독립투사 원주신을 찾아나서는 서사로 구성되어 있다. 유태림과 E의 확인결과, 독립투사 원주신은 인물의 이름이 아니라 ‘독립운동 비밀결사단체’의 이름이었다. 원주신은 송병준의 암살 실패 이 후, 자살한다. 자살한 인물에 대한 이름은 특정되지 않는다. 그는 단지 독립운동 비밀결사단체 ‘원주신’의 원주신이었을 뿐이다. 특이한 점은, 「柳泰林의 手記」는 본래 일본어로 되어 있었던 것을 이선생이 한국어로 직역하는 방식으로 소설에서 서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인 E와 함께 조사를 했으며, 원주신에 대한 조사에서 E의 힘이 결정적이었다는 사실에서 「柳泰林의 手記」는 일본어로 쓰일 수밖에 없었다. 「柳泰林의 手記」에서 E와 유태림은 관부연락선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을 수소문하여 원주신에 대한 행방을 찾는다. 이를 수상히 여긴 형사들이 E와 유태림이 투숙한 호텔 방에서 그들에게 심문조로 관부연락선을 조사하는 이유를 묻는다. E가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경찰들은 E와 유태림을 크게 의심하지 않았고, 유태림은 경찰서에서 모진 고문을 받지 않고 조사를 계속할 수 있었다. 일본인 E의 도움없이 유태림 혼자서만 원주신에 대한 조사를 행했다면 유태림은 원주신에 대한 조사를 끝내기도 전에 투옥되었을 것이다.

「柳泰林의 手記」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다름 아닌 수기의 논조에 있다. 수기에서 유태림은 일본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지 않는다. 그는 E, 고다씨에 대한 서술을 통해 일본 내에 있는 비판적인 지식인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유태림은 제국 일본 내에서도 윤리를 적용하려 했다. 이처럼 객관화된 역사의 균열지점을 찾아 윤리를 적용하려는 유태림의 시각에서 대

57) 「柳泰林의 手記」의 제목은 유태림이 「관부연락선」이라고 붙여놓았다. 하지만 소설의 제목이 『관부연락선』이므로, 「柳泰林의 手記」란 표제를 달기로 하였다고 이선생이 발화한다. 이병주 작가 본인이 이선생의 입장에 서서 발화하는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다.(5회:421면)

일협력과 저항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단초를 찾아낼 수 있다. 유태림은 「柳泰林의 手記」를 통해 당시(1938년 10월~1943년 11월)의 인물군을 유형화한다. 이러한 인물군은 유태림의 시선을 통해 체제 내적 기질을 가진 인물들의 경우, 체제 외적 기질을 가진 인물들의 경우, 중립적인 일본인의 경우, 기회주의형 인물의 경우로 유형화된다. 체제 내적 기질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거나 그것을 수호하거나, 그것 내에서 사고(思考)하는 기질을 말한다. 체제 외적 기질은 기존 체제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사회를 위해 ‘행동하는’ 인물군을 말한다.⁵⁸⁾ 여기서 행동하는 인물군은 신념을 갖고 행동하거나 그렇지 않은 인물군이 포함된다. 이러한 인물군의 유형화를 통해 기회주의는 회색의 입장으로 폄하되었던 중립적 인물이 아니고, 악질적인 친일파나 본인의 일신영달을 위해 행동했던 인물군임이 드러난다. 유태림의 시선은 이러한 모든 인물군을 유형화한다. 이러한 서술자의 시선이야말로 중립적인 시선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관부연락선』의 해방기 서사는 이선생이라는 서술자를 통해 해방기 유태림의 행적을 보여준다. 제랄드 프랭스(Gerald Prince)에 따르면, 하나의 서사물에 화자가 여럿이 있을 경우에는 그들을 등급별로 구분할 수가 있다. 이 때, 최종적으로 그 서사물 전체를 소개하는 화자가 주화자(主話者)다. 그리고 나머지 화자들은 2차 화자, 3차 화자 하는 식으로 등급지어진다.⁵⁹⁾ 이에 따르면, 『관부연락선』의 서사물 전체를 소개하는 화자는 이선생이므로 이선생은 주화자이고, 유태림은 2차 화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프랭스에 따르면 때로는 주화자보다 2차 화자가 더 중요하거나 흥미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⁶⁰⁾ 이선생은 우익의 입장이었기에 격동하는 해방기에 살아 남을 수 있었으며, 1967년의 시점에서 유태림의 행적을 서술하고 평가할 수 있었다. 이선생은 ‘나’로 등장하여 해방기 역사나 인물들에 대해 평가한다. 그에 따르면, 이승만은 정부수립시기, 가장 현실적인 해안을 가진 인물이었으며 따라서 단독정부수립은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한

58) ‘행동’하지 않으면 본질적으로 체제 내적 기질에 기반해 있는 인물이다. 따라서 체제 외적 기질은 ‘행동하는’ 인물군으로 한정한다.

59) 제랄드 프랭스, 최상규 옮김, 『서사학이란 무엇인가』, 예림기획, 2015, 28면.

60) 위의 책, 같은 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또한, 이선생은 학생동맹의 학생운동을 좌익이 선동한 것으로 해석는 안될 ‘악(惡)’으로 평가한다. 선행 연구사는 이를 유태림의 시각과 명징하게 구별하지 않고 있다. 『관부연락선』의 주화자인 이선생은 2차 화자인 유태림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으며, 1967년 현재시점에서 살아남아 유태림의 행적을 전하는 자신을 유태림에 비해 성실하게 살아오지 못한 사람으로 평가한다.⁶¹⁾ 소설에서 중요한 것은 2차 화자인 유태림으로, 주화자는 그 보조역할을 담당할 뿐이다. 『관부연락선』에 대한 분석은 이러한 사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작중 상황에서 유태림은 결국 실종되고 마는데, 이러한 유태림의 실종은 한국 현대사에서 중립이라는 위치가 역설적으로 매우 극단적이고 위험한 입장이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해방기 서사에서는 이선생의 시각에서 유태림이 중립적인 인물로 유형화된다. 해방기, 우익인 이선생을 통한 유태림의 행적에 대한 평가는 유태림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포지션을 더 명확히 드러내기 위한 작가의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해방기 인물군도 「柳泰林의 手記」의 인물군과 마찬가지로 체제 내적 기질을 가진 인물들의 경우, 체제 외적 기질을 가진 인물들의 경우, 중립적인 인물의 경우, 기회주의형 인물의 경우로 유형화된다. 이러한 인물군의 유형화 방식도 유태림의 시선을 이선생이 관찰하는 입장에서 서술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태림에 의한 인물 유형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유태림은 이선생의 시각으로 평가되고 유형화되지만, 유태림을 제외한 인물군은 유태림의 시각에서 유형화되는 인물군을 이선생이 관찰하는 입장으로 서술된다. 다음의 인용문은 일제 강점기의 유태림과는 구별되는 해방기 유태림의 외모 변화를 보여준다.

나는 우선 그 외모의 변화에 놀랐다. 동경에 있었을 때의 그의 얼굴엔 창백하게 보일만큼 핏기가 없었다. 동작은 언제나 조용했고 활기라곤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랬었는데 눈앞에 나타난 그의 얼굴엔 화색이 돌아 있었고 동작에도 활기가 넘쳐 있었다.

61) (5회:410면)

눈빛 역시 그랬다. 동경시절의 그의 눈은 차가웁고 날카롭기만 했다. (중략) 어떻게 된 셈인지 그의 눈빛엔 부드러운 윤기가 감돌아 있었고 붙임성까지 깃들여 있었다.

(중략)동경에 있었을 때라고 해서 유태림이 언제나 우울하고 활기가 없고 지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테지만 어쩐지 그런 인상으로 나의 기억 속에 새겨져 있었던 까닭으로 4년 후의, 어디로 보나 씩씩한 그의 모습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⁶²⁾

1946년 9월 5일 해방 후에 이선생이 처음으로 유태림을 만났을 때 유태림에 대한 인상은 “화색이 돋아 있었고 동작에도 활기가 넘쳐 있었다.”⁶³⁾ 유태림의 외모 변화는 그의 태도 변화에 수반된 것이다. 유태림은 「柳泰林의 手記」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행동하지 않고 관찰하고 사고(思考)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그러나 그는 항상 행동을 위한 신념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그는 행동을 위한 신념을 찾기까지 가면 쓰기를 통해 상황으로부터 회피한다. 유태림은 “「일본인으로서의 자각」이니 「황국신민으로서의 각오」니 하는 제목을 두고 작문을 지어야 할 경우가 누차 있었는데 그런 땀 도리 없이 나아닌 「나」를 가립(假立)해놓고 그렇게 가립된 「나」의 의견을 꾸몄다.⁶⁴⁾ 유태림의 가면 쓰기는 ‘강요’된 신념에 대한 유태림의 대응방식이였다. 그러나 「柳泰林의 手記」⁶⁵⁾에서는 이러한 가면 쓰기가 허용되지 않는 학병지원이라는 상황이 형상화된다. 병사는 무기를 들고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유태림의 학병 체험은 가면 쓰기라는 대응방식이 적용되기 어려운 차원의 경험이었다.

진퇴에 궁하게 된 R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분간할 수 없는 착란상태에서 총검으로 포로들의 가슴을 찔렀다. R의 차례는 자기의 줄에서 네 번째였다. R이 뛰어나갔을 땐 그 중국 청년의 가슴팍에는 검붉은 피가 낭자하게 흐르고 있었다. 그런데도 자갈을 물려 고향을 지르지 못하는 대신

62) (3회:413-414면)

63) (3회:413면)

64) (19회:392면)

65) (24회:430-436면)

눈으로 무성의 고향을 지르며 달려오는 R를 쏘아보고 있었다. R은 달린 여세로 눈을 딱 감은 채 총검을 내밀었다. 「퍼석」 하는 소리가 들린 것 같은 이상한 반응이었다.⁶⁶⁾

인용문은 유태림이 외출로 방문한 보병부대에서 벌어진 전투 훈련 장면을 목격한 것이다. 이러한 인용문에서 보여주듯, 학병 체험은 가면 쓰기로 설명되기 어려운 차원의 일이었다. 일본에 반기를 드는 중국인에게 무기를 든다는 사실에 가면 쓰기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무기를 들고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가면 쓰기와 그 한계 체험은 그의 행동 신념 모색의 과정이었다. 「柳泰林의 手記」에서 나타나는 원주신의 행방조사와 학병체험, 해방기 이선생을 통해 나타나는 학병체험과 교사 정체성에서 유태림은 자신만의 행동 신념을 찾았다. 따라서 “그의 얼굴엔 화색이 돋아 있었고 동작에도 활기가 넘쳐 있었다.”⁶⁷⁾ 그가 경험을 통해 확고히 한 그의 신념이란 ‘사랑에의 긍정’과 ‘인간 소외 거부’였다. 해방기 서사에서는 이러한 신념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유태림의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유태림의 표정이 밝았던 것이다.

유태림은 해방기 서사에서 인물들에 대해 성실하다는 속성을 부여한다. 성실함은 「柳泰林의 手記」에는 나오지 않는 속성이다. 「柳泰林의 手記」에서 독립투사 이인영 대장은 위대한 인물이지만,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는다. 이인영 대장은 해방기 유태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성실한 인물이지만 일체 말기 유태림은 ‘성실함’에 대한 기준을 세우지 못했다. 따라서 「柳泰林의 手記」의 유태림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다. 유태림은 해방기에 성실한 인물들을 유형화하는데, 이러한 인물들에 대해서도 층위가 나누어진다. 성실한 인물들이지만 고평되는 인물이 있고, 그렇지 못한 인물이 있다. 이러한 성실함은 사랑과 연결된다. 이는 3장에서 자세히 분석하도록 하겠다.

셋째, 유태림의 행적 중 마지막 시기는 1951년 7월이다. 그러나 이선생의

66) (4회:424면)

67) (3회:413면)

서사시간은 67년 당대시점으로 나타난다. 조갑상은 『관부연락선』을 과거 일변도의 작품이라고 평가한다. 그에 따르면, 소설의 현재적 시점이 부재한 것은 소설이 역동성을 부여받는 데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관부연락선』은 한국전쟁기까지의 한국현대사를 뾰족하게 제시했지만, 과거의 시간만을 다루기 때문에 소설적 역동성을 얻기 힘들다고 평가한다.⁶⁸⁾ 그러나, 이는 『관부연락선』에서 형상화되는 소설의 현재적 시점에 대해 간과한 분석이다. 16년이 지난 1967년 소설 발표 당시 시점에서 51년까지의 사건을 서사화하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1965년 6월에 이루어진 한일협정이 이선생의 서사시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군이 C공론(公論)에 쓴 한일조약(韓日條約)에 관한 코멘트를 커다란 감동을 갖고 읽었다. 한일조약에 임하는 일본측의 태도는 어디까지나 참회의식(懺悔意識)의 발현(發現)이어야 한다는 골자였는데 군의 그와 같은 의견이 어느 정도 한일조약에 반영되었는지는 몰라도 그런 정신이 반드시 씨앗이 되어 어떤 형상(形相)으로든 보람이 있을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⁶⁹⁾

위 인용문은 마지막 유태림의 행적을 E에게 보내면서 이선생이 작성한 편지의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E가 생각하는 일본의 한일조약에 대한 태도는 “참회의식의 발현이어야 한다.”⁷⁰⁾ 이러한 일본인 E의 태도는 1960년대 중반 한일협정에 대한 일본 사회당의 태도와 대응하는 지점이다. 일본 사회당의 한일회담 반대 논리에는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정책의 거부와 함께, 한반도 통일의 저해 우려, 그리고 한국의 군사파시스트 정권과의 수교 반대의 입장이 포함되었다. 일본 사회당의 문제제기는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분명했던 한국의 지식인들과의 연대 가능성의 근거가 될 수도 있었지만 실현되지는 못했다.⁷¹⁾

68) 조갑상, 앞의 글.

69) (24회:429면)

70) (24회:429면)

71) 김성환, 「일본이라는 타자와 1960년대 한국의 주체성」, 『語文論集』 61, 중앙어문학회, 2015, 367면.

우리는 南北이 각각 미국이나 소련, 중공과 맺고 있는 軍事同盟關係와 같은 통일에 대한 制約的條件들을 가지고 있는 터이므로 對日國交가 각별히 통일에 대하여 결정적인 장해를 구성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며 더우기 日本社會黨이 참으로 우리의 統一을 저해할까 염려하여 韓・日諸協定에 반대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들의 불만은 단적으로 말하여 북한 공산집단이 국교의 대상이 못되는 데에 있는 것 같다. 또 그들이 日本獨占資本의 반성 없는 새로운 對韓進出이 한국국민에게 끼치게 될 해악에 대하여 충심으로 깊이 염려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⁷²⁾

김철의 “中共 및 북한공산집단은 꾸준히 사회당에 대한 정치공작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⁷³⁾라는 진단은 일본사회당과 공산당의 결별을 통해 볼 때, 일방적인 이해라고 할 수 있다.⁷⁴⁾ 하타다 다카시(旗田巍)는 일본인 자신이 식민지 지배민족이었다는 자각을 하지 못함으로써 조선문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쟁시기 식민주의에 대해 반대하기 위해서는 자기부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하타다는 한일 회담이 일본과 조선 사람들 사이에 수립되는 새로운 국제관계의 모체이기 때문에 일본과 조선이 우호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일본인 자신의 ‘탈식민지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⁷⁵⁾ 『관부연락선』의 E가 C공론에 발표한 글자의 내용은 다카시의 이러한 관점과 상응한다. “한일조약에 임하는 일본측의 태도는 어디까지나 참회의식(懺悔意識)의 발현(發現)이어야 한다”⁷⁶⁾는 E는 본인 내부의 식민성 극복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국제적인 연대를 모색했던 ‘중립적인 일본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제국주의 / 식민지의 이분법은 이러한 유형의 일본인을 배제하기 쉽다. 이는 진정한 한일

72) 김철, 「日本社會黨의 對韓政策 - 韓・日協定에 반대하는 姿勢는 어디에서 오나」, 『사상계』, 사상계사, 1965년 11월호, 62-72면.

73) 김철, 위의 글, 70면.

74)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이 주로 일본공산당과의 협력을 통해서 전개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사회당과 공산당의 결별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김철의 태도는 일방적인 이해라 할 수 있다.(김성환, 앞의 글, 367면)

75) 유지아,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일본내 한일회담 반대운동」, 『탐라문화』 48,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5.

76) (24회:429면)

간의 유대가능성에 저해가 되는 관점이다.⁷⁷⁾

『관부연락선』의 연재가 시작된 1968년은 1965년 6월 한일협정으로 한일간의 국교가 정상화되었던 시점이었다. 『그해 5월』⁷⁸⁾은 1961년 5월 16일부터 1979년 10월 26일까지가 시대적 배경으로, 박정희 정권 18년사를 다룬 소설이다. 이병주는 이 소설 후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략)작자로선 혁명검찰, 혁명재판에서 희생된 사람의 생의 행방을 오늘의 시점까지 철저하게 추궁하지 못한점, 이른바 동백림 사건·인민혁명당 사건·4대 의혹 사건 등 허다한 사건들의 진상을 파고들지 못하고, 특히 한일협정의 배후에서 진행된 암거래 등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파헤치지 못한 점 등이 아쉽기 한량없다.

그런데 최근 나는 일본의 관보를 통해 작년(1987년) 9월 29일 일본국회가 대만 주민의 전몰자 유족 등에 대한 조의금에 관한 법률을 의결공포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법률에 의하면 2차대전 때 일본군에 속해 있던 대만인의 전몰 또는 전상자는 21만인데, 전사·전상을 불문하고 일본 돈으로 1인당 2백만엔씩을 지불한다는 것이다. 일본 돈 2백만엔이면 미화로 약 1만 7천 달러에 해당한다. 그러니 대만의 당시 전사상자 21만 명의 유가족은 일본 정부로부터 35억 달러의 조의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발표한 관보엔, 조선 출신의 일본의 군인·군속의 전사상자 수는 약 24만 2천 명인데 이들에 대한 보상의 문제는 1965년에 체결된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국과 대한민국의 협정에 의해 해결되었다.”고 발표되어 있다.

대만의 예에 의해 우리가 조의금을 받게 된다면 242,000X17,000달러=4,114,000,000 즉 약 42억 달러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기억으로서는 1965년의 한일협정으로 우리가 받은 돈은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이다. 그렇다면 42억 달러를 받아야 하는데 3억 달러를 받고

77) 장문석은 1970년 김윤식의 도일을 분석하면서, 개인과 개인의 만남에 기반한 열린 사회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양국 문화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비평적 대상으로 김윤식이 제안한 1940년대 이중어 문학과 자이니치 문학에 주목한다.(장문석, 「특집:상흔과 극복-1970년 김윤식의 도일과 비평」, 『민족문화사연구』 59, 민족문화사학회, 2014, 39면) 이러한 논의 또한, 일본인과 조선인의 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78) 『신동아』에서 1982년 9월부터 1988년 8월까지 연재.

말았다는 얘기가 아닌가.

이 전말을 살피기 위해서라도 ‘장군의 시대’는 계속 씌어져야 하는데, 얼만가의 시일을 더 기다려야만 하겠다.⁷⁹⁾

인용문을 통해 볼 때, 그는 당대에 이루어졌던 보상측면에서의 한일협정을 긍정하지 않았다. 그는 대만이 받은 보상금과의 비교를 통해, 턱없이 부족한 협상이었던 한일협정을 부정하는 편에 서 있다. 이병주는 ‘민족’이 모든 가치의 상위에 놓이게 되는 관점을 경계하고자 했다. ‘절대화’의 관점은 유동적인 원자들의 마주침을 방해하여 절대적 일자를 세우고자 함과 다름없다.⁸⁰⁾ 일본과 조선의 관계에 대한 자유로운 생각, 그러한 생각들의 마주침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민족’을 절대화한 시각은 ‘민족’을 사유하면서 생기는 병폐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는 목적으로 전략하기 쉽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는 기존의 패러다임에 함몰되어 ‘중립’을 향한 태도를 견지할 수 없다. 히틀러가 주장한 파시즘과 그로 인한 유대인 학살은 ‘민족’의 절대화와 관련이 깊다. 일본과 조선의 이분법적 틀을 통한 ‘민족’의 절대화는 이러한 세계사적인 대참극의 출발과 무관하지 않다.

둘째, 4.19 혁명 이후에 대두된 1960년대 중립화 담론의 영향이 소설의 현재시점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병주는 1961년 1월 1일 국제신보에 「통일에 민족역량을 총집결하자」라는 연두사를 신는다. “통일의 방식 중에 ‘이남의 이북화’는 최악이고 ‘이북의 이남화’는 최선의 통일인데 이 사이에 중립통일론은 차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중립통일론은 위험하다고 해서 그냥 억누르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연두사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 그는 중립통일론에 관심이 있었다. 이병주는 이 연두사와 1960년 12월 『새벽』지에 실은 「조국의 부재」로 인해 2년 7개월 간의 옥고체험을 하게 된다. 1960년 당대 이병주가 천착했던 중립은 소설 『관부연락선』에서 일본과 남북관계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이병주만의 고유한 중립으로 형상화된다.

셋째, ‘중립’의 가능성과 가치를 더 첨예하게 드러내기 위함이다. 1967년

79) 이병주, 『그해 5월』, 「작가 후기」, 한길사, 2006, 286-287면.

80) 고병권, 앞의 글, 370-372면.

시점에서 일본인 E와 편지를 주고받는 인물은 우익인 이선생이다. 유태림은 한국전쟁 중에 실종되어 생사를 알 수 없는 인물이다. 이병주는 1967년 이선생의 현재시점을 통해, 해방기에 유태림으로 대표되는 ‘중립’이라는 입장은 위험한 입장이었으며 이선생은 ‘우익’의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독자에게 알리고자 했다.

다음으로, 유태림의 중립적 입장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태림의 중립적 입장은 유태림의 체험을 통해 형성되었다. 유태림은 일제 강점기와 해방기를 거쳐 실종되기까지 ‘중립적 입장’을 견지한다. 그의 ‘중립적 입장’은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한다. 이러한 유태림의 ‘중립’은 윤리적인 문제와 결부된다. 유태림의 ‘중립’이 선택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태림의 ‘중립적 입장’은 독단적인 믿음을 갖지 않으면서 미결정 상태에서의 진리 발견 가능성을 담지한다는 점에서 바르트의 ‘중립’ 개념에 대응한다.⁸¹⁾

유태림의 ‘중립적 입장’은 「柳泰林의 手記」를 통해 그려지는 원주신을 찾는 과정과 그의 교사 정체성, 학병 정체성을 통해 형성되었다. 먼저, 유태림은 「柳泰林의 手記」에서 지속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자기에 대해 고민한다. 이러한 유태림의 태도는 기회주의를 제외한 여러 인물군들의 ‘확실한 태도’를 모두 긍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유태림은 제국주의 일본의 체제를 긍정하는 ‘권’의 식견을 일부 긍정하며 ‘조선 자치령’의 가능성을 믿는 박순근의 확실한 태도를 부러워한다. 유태림이 일제의 노예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의병대장 이인영을 고평하는 것을 통해 볼 때, 그는 권과 박순근의 ‘행동의 확실성’을 긍정하는 것이지 ‘행동의 방향’을 긍정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柳泰林의 手記」는 원주신을 찾는 서사로 구성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유태림이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탐구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柳泰林의 手記」에 나타난 인물의 유형화 방식이 ‘중립’의 개념에 대응되기 때문이다. 「柳泰林의 手記」의 유태림은 행동하지 못하는 자기에 대해 고민하면서 동시에, ‘중립’적 입장의 인물 유형화 방식을 보여준다. 「柳泰林의 手記」의 유태림의 유형화 방식

81) 롤랑 바르트, 앞의 책.

이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인물을 유형화하는 것이 아니고, 환원되지 않는 개별적 사례들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물 유형화 방식은 패러다임에 의한 타인의 배제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집단과의 대화 가능성을 담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개인의 주체성과 집단과의 통합성을 동시에 이루는 ‘방향’으로서의 성숙한 사랑과 연결될 수 있는 ‘중립’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柳泰林의 手記」를 통해 유태림의 행동 방향이 ‘방향’으로서의 성숙한 사랑을 지향할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둘째, 해방기 서사에서 유태림은 교육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 여기에 대해 박병탁은 이념적인 새로운 전위가 없는, 그러니까 체제가 없는 터에 윤리를 말한다는 것은 이들의 인식이 체제 순응에 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 된다면 유태림의 윤리관을 비판한다.⁸²⁾

교사로서의 제일의적 역할은 학문을 가르치는 데 있다. 나는 나의 역할을 이에 국한하고 싶다. 다만 정치적 사회적으로 대문제가 있을 때엔 거리낌없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 물론 강요는 없을 것이다. 가치가 정립(定立)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교사로서의 직무는 학생들의 윤리교육(倫理教育)에 있었다. 그러나 불행인지 다행인지 지금은 가치관(價値觀)이 혼란하고 있어 무엇이 선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인지 자신을 가지고 보편적 답안을 낼 수 없는 상황에 있다. 그러니 이러한 방면에선 의견을 말해보는 정도에서 끝낼 것이다. 다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서로 만들어나가고 배우고 가르치고 하기 위해 편리한 사제(師弟)간의 예의만은 서로 지켜나가기로 하자⁸³⁾

인용문은 유태림의 교사관을 잘 보여준다. 그는 현 시국을 “가치관이 혼란하고 있어 무엇이 선인지”⁸⁴⁾ 혼동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한다. 학생들과 대화와 토론을 통해 윤리의 방향을 찾고자 한 것이 유태림이었다. 따라서 유태림이 체제가 없는 터에 정해진 윤리를 말했다는 박병탁의 지적은 재고

82) 박병탁, 앞의 글, 40면.

83) (15회:411면)

84) (15회:같은 면)

되어야 한다. 인용문에 나타나는 유태림의 발언에 따르면, 유태림의 교육방식은 ‘중립적 입장’의 미결정성의 영역에 놓여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인용문에서 유태림이 교사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고 단지 “말해보는 정도에서 끝낼 것”⁸⁵⁾이라고 말하며 선택에 있어 타인과의 대화가능성을 긍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발언을 통해 볼 때, 유태림은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현주가 지적한 바와 같이 유태림은 교사-학생의 수직관계를 탈피하여 수평적 입장에서 학생들과 대화와 소통을 통한 관계 형성에 노력한다는 점에서 ‘탈식민적 교사’의 적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⁸⁶⁾ 이와 더불어 유태림의 교사 정체성은 그의 ‘허무주의’에 대한 숙고로 인해 형성되었다.

「허무주의엔 세가지가 있다. 하나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허무감, 생(生의) 허무감을 느껴보는 기분. 이걸 하나의 생활감정이기도 하다. 적당하게 생활을 물들여 단풍진 나뭇잎같이 생활을 아름답게도 할 수 있는 감정 이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모든 가치를 근본에서부터 의심해보는 태도, 철저히 탐구하고 진지하게 사색하는 감정과 이성. 이것은 학문적 허무주의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 앞에 말한 허무나, 지금 말한 허무는 아직 희망을 잃지 않은 허무다. 이 허무사상을 조절하고 기쁨으로써 보다 충실한 생활, 보다 훌륭한 가치에 이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 일체의 희망을 버려야 하는 허무가 있다. 일체의 가치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감정사상, 이걸 불모(不毛)의 사상, 키에르케골 말 따라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중략)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이 허무주의에 대해서다. 나는 앞으로 1년 동안은 이 허무주의에 이겨나갈 작정이다. 그 목적은? 지금 내가 맡고 있는 학급 학생 전원을 누구의 손에도 넘겨주지 않고 어떤 사고에도 다치지 않게 하고, 한 사람도 병들어 낙오하지 않게 해서 무사히 졸업시키는 일이다」⁸⁷⁾

85) (15회:같은 면)

86) 최현주, 「탈식민주의 문학교육과 이병주의 『관부연락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3,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1.

87) (16회:387면)

인용문은 유태림의 허무주의에 대한 속고를 보여준다. 그는 현재 조선의 상태를 “좌익이 덤비는 꼴, 그들의 사고방식을 보면 거기 희망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날뛰고 있는 우익에 기대를 걸 수도 없고, 제3의 길이 있느냐 하면 그것도 없고, 자라나는 세대는 스스로의 보류된 신분이란 특권을 이용하기는커녕, 어른들의 추잡한 혼란을 그들의 규모로서 모방한 채 혼란하고 있”⁸⁸⁾다고 진단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태림은 교사가 부모의 역할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인용문에 나타나있듯이, 허무주의에 대한 속고의 목적은 “내가 맡고 있는 학급 학생 전원을 누구의 손에도 넘겨주지 않고 어떤 사고에도 다치지 않게 하고, 한 사람도 병들어 낙오하지 않게 해서 무사히 졸업시키는 일”⁸⁹⁾을 행하기 위해서이다. 그는 학생을 좌익, 우익으로 나누어 보지 않았다. 유태림은 어떠한 신념을 가진 학생이라도 교사로서 보호하려고 했다. 해방기 가치관이 혼란스러웠던 상황에서, 교사로서 조선의 가능성인 학생들을 보호해야겠다는 유태림의 생각은 그를 ‘중립’의 입장으로 이끌었다. 해방기에 주어진 기존의 것들 사이의 선택은 필연적으로 반대편에 대한 폭력과 억압을 수반했다. 바르트에 의하면 ‘중립’의 담론은 기존에 주어진 것들 사이의 선택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는 선택을 이야기하는 것이다.⁹⁰⁾ 유태림은 좌우 이분법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패러다임의 틀을 넘어서 학생들과 관계하였다. 그와 동시에 학생들에게 좌·우 패러다임의 외부를 사유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했다.

셋째, 유태림의 ‘중립’적 입장은 그의 학병 체험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유태림은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하며, “「날리가 겁이 난단 말이야. 날리가····· 너희들은 날리가 겁나지도 않나?」”⁹¹⁾라며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준다. 유태림은 일제 강점기, 학병이었던 R들에게 있었던 중국인 포로의 가슴을 찌르는 훈련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다. 포로를 찌르는 연습을 했던 R들은 악몽에 시달렸다.⁹²⁾ 앞서 서술한 바

88) (16회:같은 면)

89) (16회:같은 면)

90) 롤랑 바르트, 앞의 책, 36-37면.

91) (20회:409면)

와 같이, 유태림의 학병체험은 가면 쓰기의 대응방식이 적용되기 어려운 차원의 경험이었다. 무기를 들고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학병체험 당시, 보초를 서는 과정에서 “지금 내 앞에 중국인 공작대원이 나타났다고 하자. 나는 그들을 쏠 수 있을까. 그들은 조국을 위한 충직한 애국자이고 나는 보잘 것 없는 용병이 아닌가. 용병이 애국자를 쏠 수 있을까. 내 생명이 위태로와진다면? 아마 쏠 거다. 아니면 나는 쏘지 않을거다. 나를 죽이지 않는다면 나도 쏘지 않겠다고 말할게다. 일본 군대는 여기 이 소주성벽 위에 자기들을 위해선 총 한 방 쏘지 않을 보초를 세워 둔 셈이 된다.”⁹³⁾라고 생각한다.

유태림은 일본을 위해 복무했던 ‘노예’였던 자신에 대해 회의한다. 유태림에게 있어서 주체적인 개인을 ‘노예’로 전락시키고, 인간성을 파괴시키는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되는 성질의 것이었다. 특히, 단독정부수립을 통해 그러한 비극적인 전쟁이 민족 내부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유태림에게 ‘단독정부수립 반대’라는 적극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유태림은 ‘단독정부수립 반대’와 ‘방향’으로서의 성숙한 사랑에서만큼은 적극적인 행동의 자세를 보여준다. 유태림은 인물 유형화 방식을 통해 기회주의를 제외한 타자를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현실문제인식에 대한 태도를 보여준다. 유태림의 판단에서 단독정부수립은 기회주의를 제외한 ‘타자 배제’의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만으로 유태림이 자신의 의견에 합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인물이라고 평가하며 그의 중립적인 위치를 평가절하해서는 안된다. ‘기회주의의 배제’는 그 자체로 ‘중립’의 욕망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선택’에 있어 본질적으로 ‘타자의 억압’을 수반하는 ‘기회주의적’ 태도의 배제는 윤리적인 출발점인 ‘중립’을 통한 패러다임의 재정립에 있어 필수적이다. ‘기회주의’ 자체가 자기자신의 입신양명을 제외한 타자와의 소통 불가능성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개별성과 집단의 통합성을 함께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서의 성숙한 사랑도 ‘중립’의 욕망을 따르며 ‘중립’을 구체화시켜준다. ‘방향’으로서의 사랑이 이분법으로 환

92) (4회:424면)

93) (4회:424-425면)

원불가능한 개인들에게 진리의 값을 부여함에 있어 그 방향과 층위를 제시 해주기 때문이다.

2.2. 중립적 인물의 시선을 통해 드러나는 기회주의의 의미

앞서 설명하였듯이 『관부연락선』의 인물군의 경우, 유태림의 시선을 통해 체제 내적 기질을 가진 인물들의 경우, 체제 외적 기질을 가진 인물들의 경우, 중립적인 인물의 경우, 기회주의형 인물의 경우로 유형화된다. 기회주의형 인물의 경우, 체제 내외적인 기질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유태림은 기회주의적이 아닌 인물들의 유형화를 통해 기회주의를 구별짓고자 했다. 이러한 인물 유형화 방식은 중립적인 인물의 시선으로 형성된다. 이를 통해, 중립적인 인물은 기회주의에서 벗어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중립적인 인물의 입장은 2.3.절의 체제 외적 인물군과의 비교를 통해 더욱 첨예하게 드러낼 것이다. 이 절에서는 기회주의라고 여겨지기 쉬운 체제 내적 기질을 가진 인물들의 경우를 재평가하여 기회주의와 구별하고자 한다.

2.2.1. 체제 내적 기질을 가진 인물들의 경우

상술했듯, 체제 내적 기질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거나 그것을 수호하거나, 그것 내에서 사고(思考)하는 기질을 말한다. 체제 내적 기질을 가진 인물군은 일본을 자기화한 경우, 식민지 현실을 고민한 지식인의 경우, 민족이 가야할 길을 고민했지만 결과적으로 친일파가 된 경우, 성실한 우익의 경우로 나타난다. 이들은 기회주의가 아니다. 먼저, 「柳泰林의 手記」에서 일본을 자기화한 경우의 대표적인 인물로 법과학생 권과 한, 그리고 금융조합 서기인 유태림의 옛 친구 홍이 등장한다. 먼저, 권은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한 수재이다. 유태림과 E는 조선의 군수 보직을 받아 현해탄을 건너는 권을 관부연락선 2등석에서 마주치게 된다. “「국가는 법치국가이고 사회도 법치사회인데 법률을 부정하고 문화사회가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⁹⁴⁾라고 말하는 권은 법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동시에 권

은 ‘일본적인 것’이 진리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의 도의를 대륙에서 소생시킨다는 것은 일본의 준법정신(遵法精神)을 대륙에 다 보급시킨다는 뜻으로 되어야 가장 효과가 있”⁹⁵⁾는 것이다. 권에 따르면 준법정신도 일본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가 보기에 “조선독립을 위해서 운동하고 있는 자들은 거개가 상식결핍증에 걸린 사람이거나 정신착란에 가까운 사람들이며, 그 외의 운동자들은 해외에서 생활할 수단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정신이 올바르게 서 있는 자들은 모두 내선일체(內鮮一體)의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조선독립 운운하는 자는 단순한 범법자로 취급해야”⁹⁶⁾ 한다. 문제적인 지점은 유태림이 이를 일부 긍정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나는 권의 번들번들한 이마를 쳐다봤다. 그리고 훌륭한 견식이라고 생각했다. 용기 있는 태도라고 생각했다. 나도 저런 명쾌한 관념을 지니고 동요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었다.⁹⁷⁾

인용문에서 유태림은 권의 문제적인 발언을 “훌륭한 견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태림의 생각이 제국주의 일본에 대한 긍정으로 치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사에서 지속적으로 표면화되는 ‘행동하지 못하는 자기’에 대한 유태림의 인식에 주목해야 한다. 유태림의 이러한 생각은 제국주의 일본에 대한 긍정이 아니다. 그는 『관부연락선』에서 지속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자기’에 대해 고뇌한다. 「柳泰林의 手記」⁹⁸⁾에서 박순근과의 만남을 회상하면서도 그는 “박은 누가 터무니 없다고 하더라도 조선을 자치령 정도로는 만들어야겠다는 신념 속에 살고 있다.”⁹⁹⁾라고 하면서 아무런 적극적인 행동도 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질책한다.

94) (9회:378면)

95) (9회:같은 면)

96) (9회:같은 면)

97) (9회:379면)

98) 연재 18회분

99) (18회:411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견식이 필요하며,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 종속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유태림은 일본유학을 통해 세계에 대한 인식을 갖추었다. 일본유학은 유태림의 식견을 넓혀주었다. ‘일본을 통한’ 세계인식이라는 측면에서 총체적 인식의 불가능성을 담지하지만, 「柳泰林의 手記」에서 보여주는 중립적인 시선을 통한 인물 유형화 방식은 당대 일본유학파의 총체적 인식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본인에 대한 질책과 여러 인물들의 유형화 방식과 비판적인 평가를 통해 볼 때, 유태림의 시각은 지식인 계층에 유리한 방향으로 되어있다고 보기 힘들다. 유태림은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하는 그 방법을 찾지 못할 바엔 저항의 의식을 의식의 표면에 내세울 필요가 없다는 체관(諦觀)이 습성화되어 버렸다고 할 수도 있”¹⁰⁰⁾다고 말한다. 그는 “「일본인으로서의 자각」이니 「황국신민으로서의 각오」니 하는 제목을 두고 작문을 지어야 할 경우가 누차 있었는데 그런 땀 도리 없이 나아닌 「나」를 가립(假立)해놓고 그렇게 가립된 「나」의 의견을 꾸”¹⁰¹⁾였다. 「柳泰林의 手記」의 유태림은 행동에의 참여가 강요되는 시점에는 가립된 ‘나’를 설정하였다. 일본유학을 통해 형성된 총체적 인식과 식민모국에서 살아가는 피식민지인의 ‘가면 쓰기’는 유태림의 ‘객관적인 거리두기’를 가능하게 하였다. 객관적인 거리두기를 통해 유태림은 일본 제국과 피식민지 조선인을 사유함에 있어 ‘민족’의 절대화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었다. 유태림의 중립적인 시선은 거리두기를 통해 형성된 것이다.

「柳泰林의 手記」에는 해방기 유태림이 보여주는 단독정부수립 반대와 사랑에의 헌신과 같은 행동적인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일제 말기 까지 유태림은 중립적인 시선의 행동화 원리를 발견해내지 못했다. 권의 행동에 대한 긍정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유태림은 권의 ‘행동의 확실성’ 자체만을 긍정한 것이다. 유태림은 철저히 일본 제국의 체제를 따르는 권의 ‘행동의 방향’을 긍정하지 않았다. 유태림이 긍정하는 권의 부분은 삶에 대한 확실한 태도다.

100) (19회:392면)

101) (19회:392면)

신념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권은 일본이라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공부하였고, 그에 따라 입신출세의 길을 걷는다. 그는 친일파 송병준과는 다르게 한일합방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다.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하여 조선의 군수로 가는 권의 나이는 소설에서 특정되지 않지만 유태림과 같은 청년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권은 태어날 때부터 일본인이었으며, 그에게는 일본이 곧 국가였다. 권의 정체성은 기회주의적인 태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경험의 부족에서 나온 것이다. 자신이 경험한 테두리 내에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물을 유태림은 경멸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맥락에 법과 학생 한이 위치해 있다. 유태림은 한에 대해서도 “한 곳에 목표를 세워 좌절하지 않고 일사불란할 수 있다는 건 부러운 일이다.”¹⁰²⁾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뒤이어 “그러나 그 목표라는 것이 뭇이난 얘기다.”¹⁰³⁾라고 하며 행동의 기준이 되는 목표에 대해 회의한다. 한도 권과 같이 “박형은 조선 사람에게 자치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오?”¹⁰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전형적인 일본제국의 입신출세 교양주의에 빠진 인물이다.

한편, 부산에 있는 금융조합에 근무하는 홍은 권, 황과는 달리 일본 유학을 통해 일본 교양주의를 체득한 인물은 아니다.

“차별은 불쾌해. 불쾌하다고 해서 반항해야 한다는 법은 없잖아? 같은 조선인이라도 어떤 사람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의 아들이 되고 하잖나. 만사가 팔자이고 분복 아닌가. 1등 국민은 1등대우를 받고 3등 국민은 3등대우를 받는거지, 나는 기차의 3등표를 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1등을 탄 사람이 부럽긴 하지만 분수를 지켜야지 별수가 있나.”¹⁰⁵⁾

위 인용문은 유태림과의 대화에서 발언하는 홍의 말이다. 그가 식민지 조선인으로서 세계에 대응하는 방식은 ‘분수를 지켜 살아가는 방식’이다.

102) (18회:407면)

103) (18회:같은 면)

104) (18회:408면)

105) (13회:413면)

홍은 제국주의 일본의 현실을 인정하고, 식민지의 현실 내에서 살 길을 찾고자 하였다. 유태림은 홍과 권, 한과 같은 인물에 대해 질책과 힐난을 하지 않는다. 그 대신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서 본인의 처세철학을 가지고 살아갔던 개인들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여 ‘역사’라는 이름 아래 사라져갔던 군상들을 소환한다. 그들은 제국주의 일본 내에서 삶을 ‘살아내었던’ 민중들이었다. 유태림이 긍정하는 것은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행동의 ‘확실성’ 그 자체이지, ‘행동의 방향’이 아니다.

일제 말기 당시에는 권과 한처럼 일본제국의 내선일체와 입신출세 교양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일본과 조선의 종속관계를 당연히 여기는 인물들이 있었다. 그에 반해 최종률, 황군과 같이 조선의 식민지 현실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했던 지식인들 또한 존재했다. 그러나 이들은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지 못한다. 그들은 식민지 현실에 종속된 채 일본 정부 하에서 입신양명하는 길을 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자신들이 처한 식민지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수단을 찾지는 못했다. 유태림이 판단하기에 최종률은 “우유 배달을 하며 어려운 독일 철학책만 읽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쌓여지는 지식이 활력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의 주위를 암울하게 하는 독소(毒素)가 될 것”¹⁰⁶⁾이며, 황은 “새삼스럽게 학교를 고쳐 다닐 생각도 나지 않고 소설을 쓰며 평생을 살아보겠다는 포부였지만 그렇게 노력할수록 허망한 느낌이 드는”¹⁰⁷⁾ 인물이다.

최종률과 황은 일제에 반대하고 식민지 현실에 대해 고민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측면에서, 두 인물은 ‘민족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최종률은 조선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황은 조선민족의 가능성을 믿지 않는다. 소설에서 이러한 차이가 극적으로 나타나는 지점은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대해 두 인물이 평가하는 대목이다.

최종률은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드러나는 조선 왕조의 횡포를 보고

106) (18회:406면)

107) (18회:같은 면)

우리 민족이 대단하다고 평가한다. 그에 따르면, “가혹한 정황 속에서도 예의를 지키고 효도를 하고 친구를 반길 줄 알고 이웃과 화합할 줄 알고 여기에 모여 있는 우리 같은 쟁쟁한 청년들을 생산할 수 있었”¹⁰⁸⁾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대단하다고 평가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황은 조선의 역사를 비굴한 역사로 기억한다. 그는 최종률과는 다르게 “그처럼 비참하게 살자니 효도나 해야겠다, 친구나 사귀어야겠다, 이웃과도 잘 지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게 아닐까. 생존하기 위한 막다른 수단으로 말야.”¹⁰⁹⁾라고 말한다. 따라서 최종률과 황은 현실에 대한 태도를 다르게 나타낸다. 최종률은 본래부터 위대했던 조선민족 내부의 식민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조선과 일본 내에서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만주로 갈 생각을 한다. 만주에서의 구체적인 행동방안이 제시되지는 않지만, “나는 영영 돌아오지 않을 각오로 떠나니”¹¹⁰⁾라는 발언과 조선 민족에 대한 그의 생각을 통해 볼 때, 만주에서 민족의 위신이 서는 방향을 모색할 것임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반면 황은 최종률과 같이 민족의 위대함과 같은 신념을 갖지 못했다. 황의 거취에 대한 언급은 소설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가 최종률과 같은 행동을 취하지 않았으리란 것은 명백하다.

최종률과 황군은 모두 식민지 내에서는 주체적인 개인으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인간이 되는 것을 고민했다는 점에서 권과 한과는 다른 인물군이다. 특히 유태림은 최종률에 대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란 수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류의 수재가 빠지기 쉬운 입신 출세주의에 사로잡히지 않고, 인간으로서 인격으로서 떳떳해야겠다는 에스프리를 관철한 위인이다.”¹¹¹⁾ 라고 고평한다. 일제 하에서 조선인은 ‘주체적인 인물’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최종률은 조선의 가능성을 모색하려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미루어볼 때, 이병주는 유태림의 시선을 통해 ‘주체적인 인물’이 되고자 ‘행동’하는 인물을 더욱 바람직한 유형으로 정립하고자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08) (8회:392면)

109) (8회:393면)

110) (24회:432면)

111) (24회:432-433면)

앞선 두 가지 유형과는 다른 인물군으로 박순근, 이완용, 이용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민족이 가야할 길을 고민했지만, 결과적으로 친일파가 된 인물이다. E는 “동경에서 이 원고를 읽으면 그 객관적(客觀的)인 의미를 납득할 수 있지만, 잘은 모르나 오늘의 한국에 앉아 이것을 읽으면 그 의미가 흐려지고 자칫하면 왜곡(歪曲)되지 않을까 두렵기도 해서 하는 말이니 양해하길 바란다.”¹¹²⁾라고 하며 유태림이 작성한 관부연락선이라는 수기를 보내기를 꺼려한다. E는 1967년 한국의 상황에서는¹¹³⁾ 유태림의 원고가 빛을 발하지 못하리라고 우려하였다.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한·일 간의 국교가 정상화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일방적인 한일협정은 많은 반대에 부딪혔다. 원주신을 찾는 서사로 구성된 「柳泰林의 手記」의 대체적인 내용은 일본과 조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준다. 「柳泰林의 手記」는 한일협정 찬성의 용도로 왜곡되어 이용될 가능성과 한일협정 반대의 논조에 묻혀 그 의미가 흐려질 수 있었다.

일본인 E의 우려가 무엇이었는지는 「柳泰林의 手記」 첫 부분부터 바로 알 수 있다. 「柳泰林의 手記」¹¹⁴⁾에서는 한일합방의 일등공신들인 이용구, 송병준, 이완용에 대한 서술이 나온다.

한일합방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송병준 같은 인간의 활약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한국으로서 치욕이며 일본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용구, 송병준, 이완용이 없었더라면 한일합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리라곤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분자가 없었더라면 이왕 합방이 되더라도 민족의 위신이 서는 방향으로 되지 않았을까 한다.

이들 가운데도 송병준이 가장 비열하고 간사한 인물이었다는 것은 기록을 종합해 보면 안다.

이용구는 한때 동학당의 중심인물이었다. 동학의 거사가 일본의 개입으로 실패하자 나라의 명운을 자기나름으로 판단하고 일본과의 합체를 통해서 민족

112) (1회:426면)

113) “유태림 군은 6.25동란이 발생한 그 이듬해의 가을, 행방불명(行方不明)이 되었다. 그 후 1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생사(生死)조차 모른다.”라는 ‘나’의 편지를 통해 볼 때, 소설의 현재시점은 1967년임을 알 수 있다.(1회:424면)

114) 연재 5회분

의 활로를 구상했다.(중략) 그런데 송병준은 거리낌없이 작위를 받은 자다.(중략)

같은 유에 속하는 인물이기는 하나 이완용의 경우엔 다소 납득이 가지 않는 바는 아니다. 이완용은 합방 문제에 있어서 일진회의 운동에 정면으로 반대했다. 합방조약의 조인을 할 때도 송병준의 협박에 못 이겨 내키지 않은 행동을 한 것 같은 기록이 있다.¹¹⁵⁾

이용구, 송병준, 이완용은 역사적으로 같은 친일파로 평가되지만 유태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유보적인 유태림의 태도는 그간 많은 선행연구자들을 통해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용정훈은 “유태림은 이완용의 이러한 견해에 대해 전혀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못한다. 단지 그러한 현실을 자신의 영달을 꾀하는데 이용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비판할 뿐이다. 식민사관을 통해 일제의 식민지 지배논리를 받아들인 지식인의 한계인 것이다.”¹¹⁶⁾라고 하며, 이병주의 작가의식을 비판한다. 최현주도 “일제에 의해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던 식민화의 과정을 일제의 탓으로만 돌리지 않거나 이완용의 친일행각을 민족의 처지라는 상황논리로 인정하려는 태도야말로 제국주의 이데올로기 교육의 내면화의 방증이라 할 것이다.”¹¹⁷⁾라고 하며, 유태림이 이완용에 대해 도덕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을 비판한다. 또한, 박병탁도 작가의 친일에 대한 관점은 새로운 진실의 발견이나 역사의 진보를 위한 재배치는 될 수 없으며, 이는 일면 독자의 연약한 휴머니즘에 호소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¹¹⁸⁾ 이병주의 이용구, 이완용에 대한 서술을 비판한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 비판된 것과 달리, 한편으로 이병주가 유태림의 시선을 통해 이용구와 이완용을 소환한 것은 ‘민족’의 절대화를 지양하고 진정한 기회주의자를 유형화해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석해 볼 여지가 있

115) (5회:430-432면)

116) 용정훈, 「이병주론-계몽주의적 성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2001, 44면.

117) 최현주, 「『관부연락선』의 탈식민성 연구」, 앞의 글, 159면.

118) 박병탁, 「이병주 역사소설의 유형과 의미연구 - 『관부연락선』, 『지리산』, 『산하』를 중심으로」,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14, 47-48면.

다. 민족을 위한 행동으로 출발하였지만, 민족을 억압하는 결과를 낳았던 인물들에 대한 재평가를 위해 극단적으로 이용구와 이완용을 내세운 것이다. 이는 세계정세 속에서 조선의 주체적 가능성을 실현하고자 했으나 잊혀지거나 친일파로 매도된 수많은 인물들에게서 진실의 파편을 찾을 수 있게 해준다. 이용구는 일본 정부에서 내리는 작위 수여를 거절했다. 이러한 인물들에 대한 사고는 민족의 주체적 가능성에 대해 더 예각화된 시야를 제공한다. 타인의 배제라는 측면에 대한 대화의 외연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¹¹⁹⁾

조선 독립운동가의 의거는 식민지라는 노예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신념을 가진 활동이다. 선행 연구에서 논의된 것과 달리 이완용과 이용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으로 인해 이러한 활동은 폄하되지 않는다. 그러한 독립운동 또한, 주체적인 개인과 민족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유태림은 의병대장 이인영을 고평한다.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운동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어떠한 가능성의 모색에도 강요가 수반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강요는 진보라는 명목 하에 개인의 주체성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전략하기 쉽기 때문이다.

유태림은 “약육강식(弱肉強食)하는 생존경쟁의 마당에서 약한 자가 강한 자의 야망을 책하는 풀보다 치사스러운 풀이란 없다. 대국(大國)과 강국(強國)의 자의(恣意)대로 세계의 지도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독 일본에게만 도의(道義)와 인도주의(人道主義)를 요구한다는 건 도무지 우스운 얘기다. 한반도의 비극과 불행은 한국인의 책임으로 다루고 설명해야 할 문제이지 남을 탓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¹²⁰⁾라고 하며, 상황 속에서 조선의 책임과 역할을 위치지어보려고 한다. 이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일본의 식민사관에 부정적 영향을 받은 이병주의 자화상이라고 평가될 만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태림의 의식은 대일협력과 저항이라는 인식의 틀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그는 항상 세계 속에서 조선을 위치지어

119) 이완용, 이용구가 그 이후 친일행위를 위한 행동만을 지속했다면, 유태림은 여지없이 기회주의로 취급했을 것이다. 뒤에서 정의하겠지만, 기회주의자는 ‘타인’에 대한 억압을 의식적으로 행하고 행위에 있어서 ‘타인’을 위한 행동이 일체 없다.

120) (8회:380면)

놓고, 우리가 가야할 방향을 찾고 있었다.

1946년은 세계적(世界的)으로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戰後處理)문제를 둘러싸고 그 방향과 내용에 있어서 미국(美國)과 소련(蘇聯)의 대립이 점차 예각적(銳角的)으로 부각(浮刻)되기 시작한 시기다. 동구라파(東歐羅巴)에 있어서의 구질서(舊秩序)의 분해(分解), 중국(中國)에 있어서의 국공내전(國共內戰)의 발전(發展), 동남아제국(東南亞諸國)에서의 독립기운(獨立機運), 승리자(勝利者)의 처단(處斷)만을 기다리는 패전국(敗戰國)의 초조(焦燥), 이러한 사상(事象)들이 얽히고 설켜 격심한 동요(動搖)를 겪고 있는 가운데 서서히 새로운 세계의 새로운 역관계(力關係)가 구축(構築)되어 갔다.

이와 같은 세계의 동요를 한국은 한국의 생리와 한국의 규모(規模)로서 동요하고 혼란하고 있었다. 해방의 벽찬 환희(歡喜)가 감격(感激)의 혼란으로 바뀌고 이 감격의 혼란이 분열(分裂)과 대립(對立)의 적대관계(敵對關係)로 응결(凝結)하기 시작한 것이 1946년의 일이다. 일본군(日本軍)을 무장해제(武裝解除)하기 위해서 편법적(便法的)으로 그어진 38선이 항구적(恒久的)인 분단선(分斷線)으로 교착(膠着)되지 않을까 했던 막연한 공포가 결정적(決定的)이고 냉엄(冷嚴)한 현실(現實)의 벽으로서 느껴지게 된 것도 1946년의 일이다.¹²¹⁾

인용문은 해방기 이선생의 세계사적 흐름에 대한 인식이다. 유태림은 이선생과 함께 상황을 세계 속에서 보는 시각을 공유한다. 이처럼 소설 곳곳에서 세계정세에 대한 내용에 뒤따라 조선의 정세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조선과 일본은 지구라는 세계 속에서의 두 나라이다. 그렇다면, 세계 속에서 일본과 같은 위상의 나라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행위하였으며, 조선과 같은 위상의 나라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행위하였는지를 비교하여 놓고 생각해야 한다. 유태림과 이선생의 이러한 관점은 일본의 악행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근대화가 상대적으로 더뎠던 민족을 침략할 수 있다는 당위는 어디에도 없다. 강대국 대열에 합류할 수 없었던 약소국을 합리적인 근대성과 보편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의 입장을 벗어나 약소국을 약탈하고 억압하는 제국주의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유태림은

121) (2회:415-416면)

세계적 분위기에서 일본이라는 제국주의 국가의 악행이 필연적이라고 한다면, 우리 조선의 처세는 어떠해야 했을까를 고민한다. 이러한 방식의 인식이 조선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데 더욱 합리적이다. 이병주의 다른 단편인 「그 테러리스트를 위한 만사」의 경산은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노예가 될 수는 없는 것이며 항일운동은 생존권과 위신의 문제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라고 하였다.¹²²⁾

유태림은 식민지 체제가 아니라 피식민 민족의 반응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의 문제제기의 초점이 제국 일본을 향하지 않았던 것은 세계사적 정세 때문이었다. 악이 선을 압도하는 역사가 현실로 다가왔던 1930년대 후반, 유럽에서는 파시즘이 득세하고 제국주의 일본은 조선을 점령하였다. 제국주의의 악행이 필연적으로 자행되고 있었던 현실에서 조선도 이를 피해갈 수 없었다. 유태림의 문제제기는 필연적인 외부현실을 문제삼기보다,¹²³⁾ 조선의 내부에서 노예의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주체적인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함이었다. 일본에게만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는 그의 발언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민족사의 최종 목표는 민족의 과거를 보편의 역사로 재구성함으로써 식민지를 특수한 사건으로 전환시키고 민족의 역사를 인류보편성의 틀 속에서 재정립하려는 것이다.¹²⁴⁾ 식민지를 특수한 사건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에도 이러한 시각은 필수적이다. 국제정세를 제외한 판단은 자칫하면, 이상적인 논의로 함몰되기 쉽기 때문이다. 조선이 열등한 민족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것이 아니다. 조선은 당시 제국주의의 침략성으로 인해 자연스레 식민지국가가 되었지만, 이러한 점만으로 조선의 발전 가능성을 불신하는 것은 일본의 식민논리를 내면화한 입장이다. 그러나 유태림은 그러한 정세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노예의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위치에 있다. 바르트에 의하면, 패러다임을 좌절시킬 수 있는 방안은 구

122) 이병주, 「그 테러리스트를 위한 만사」, 『그 테러리스트를 위한 만사』, 한길사, 2006, 9면. 「그 테러리스트를 위한 만사」는 1983년 1월 『한국문학』에 발표.

123) 필연적인 상황에 대한 논쟁은 소모적인 논쟁 밖에 벌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124) 김성환, 「식민지를 가로지르는 1960년대 글쓰기의 한 양식」, 『한국현대문학연구』 46, 한국현대문학회, 2015.

체적인 사례에서 찾아야 한다.¹²⁵⁾ 좌·우 이분법으로 환원되지 않는 유태리즘의 구체적인 인물 유형화 방식은 이러한 바르트의 ‘중립’ 추구방식과 대응한다.

일본이 보여주었던 제국주의적 침략성만을 기억하고 일본을 나쁘게만 바라보는 관점은 자신들의 이권만 챙기려고 행동했던 조선의 친일파들, 지배세력들의 사고 메커니즘과 다르지 않다. 이는 일제 강점기에 밀정노릇을 하다가 대중을 힘입은 공산주의에 편승하여 좌익이 되어 민족독립투사가 된 친일파나 미군정에 힘입은 우익에 편승하여 자신들의 이권만 챙기려고 했던 세력들과 다르지 않다. 공산주의=죄악과 일본=죄악의 도식은 전혀 다르지 않다. 앞서 인용문에서 보았듯이, 이병주는 일본의 침략근성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다. 일본의 모든 측면에 대한 고찰로 우리 조선의 나아갈 길을 찾아보자고 한 것이 그의 의식이자 방법이었다. ‘절대화’를 거부한 이러한 고려방식은 에피쿠로스의 ‘편위’적 마주침¹²⁶⁾에 대응한다.

또한, 「柳泰林의 手記」에는 나카노의 조선자치령을 추종하는 박순근이라는 인물이 형상화 된다. 박순근에 대한 서사가 끝나고 난 후, 박순근이 경남 진양군 문산면 출신인 실존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¹²⁷⁾ 박순근은 나름대로의 판단으로 동아시아 정세를 보았을 때, 조선의 완전 독립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일본에 예속해 있는 상태를 그냥 승인할 수 있는 마음은 되지 않아”¹²⁸⁾고민하던 중, 조선 자치령을 주장하는 대정익찬회의 나카노를 접하게 된다. 그는 그것을 최고의 해결책으로 보고, 나카노의 추종자가 된다. 박순근은 나카노를 신념의 인물이고 배반을 모르는 인물로 생각한다. 그동안 조선의 자치령을 긍정하는 인물들은 친일파로 여겨져 왔다. “대정익찬회의 국수주의는 팻쇼와 통하고 팻쇼는 침략과 통하고 침략은 타민족의 예속을 예상하는 것인데, 그런 국수주의자가 어떻게 조선이란 식민지를 자치령 정도에라도 해방시키겠다고 주장할 수 있을

125) 롤랑 바르트, 앞의 책, 99-108면.

126) 칼 마르크스, 앞의 책, 71-82면.

127) (18회:406-412면)물론 이러한 점만으로 박순근을 실존인물로 단정짓긴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인물형을 실존인물로 제시하고자 하는 작가의 욕망만으로도 당대에 있었던 인물형을 퓌진하게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에 적합하다.

128) (18회:407면)

까”¹²⁹⁾라는 유태림의 생각은 일반적인 통념이다. 그러나 박순근은 나카노의 조선 자치령이 당대 상황에서는 조선인의 주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았고, 그에 성실히 따랐다. 박순근은 나카노가 자인한 직후, 스가모의 하숙에서 자살했다. 그는 나카노의 죽음으로 인해 주체적인 조선의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믿었다. 박순근의 자살은 ‘대일본제국의 충실한 황국민으로서’ 천황폐하를 위해 행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의 판단에서는 조선의 주체적 가능성은 ‘자치령’으로서 가능한 것이었다. 그는 민족을 위하는 길을 나름대로 모색했으며, 그로 인해 친일파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간 인물이다.

유태림과 이선생은 해방기 서사에서 지속적으로 성실함에 대해 말한다. 성실함이 부여되는 인물군이란 ‘합리적인 신념을 갖고 타인을 위하는 길을 모색하는 경우’이다. 『관부연락선』의 성실함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은 ‘합리적인 신념’과 ‘타인을 위함’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타인은 기회주의적인 인물에 한정되지만 소설에 나타나는 성실한 인물군은 이에 충실히 따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성실함’에도 층위가 나뉜다.

유태림은 “우익의 연설은 좌익이 있어야 성립이 되고 좌익의 연설은 우익이 있어야 성립이 된다”¹³⁰⁾라고 말했다. 그는 ‘합리적인 신념’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 견고해질 수 있다고 믿었다. 해방기 성실한 인물들은 성실한 좌익과 성실한 우익의 경우로 나누어진다. 성실한 좌익의 경우는 P와 M교사, 서경애, 박창학, 강달호, 전승일로 나타나며, 성실한 우익의 경우는 B선생, 이광열로 나타난다. 해설자 이선생의 태도를 보았을 때, 이선생 또한 성실한 우익에 속하지만 그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그에게 대하여 느끼고 있는 죄의식은 것처럼 성실하게 살려고 애쓴 사람은 온데간데가 없고 성실하긴커녕 물결치는 대로 바람부는 대로 처신해온 나는 이렇게 뻔뻔스럽게 살아있다는 바로 그 사실에 연유하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¹³¹⁾

129) (18회:408면)

130) (7회:383면)

131) (5회:410면)

인용문에서 이선생은 성실하게 살지 못한 자신에 대해 자책한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정해진 틀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며, 그것을 죄행으로 느낀다는 것은 자신의 그런 위반이 다른 어떤 힘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서 비롯되었음을 승인하는 것이다.¹³²⁾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책임을 느낀다는 점에서 죄의식을 느낀다는 사실은 개인이 주체적인 자신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의 방증이다. 이선생은 혼란했던 해방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확실한 진영에 속해있어야 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따라서 살아남은 자신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이선생은 죄가 없는 곳에서 주체로서의 책임의 자리를 만들어냈다. 이선생은 “유태림이란 이름만 떠오르면 나의 가슴은 언제나 답답하다.”¹³³⁾고 말한다. 그의 답답함은 철저히 우익의 입장에 섰던 자신에 비해 중립적 입장을 고수했던 유태림에 대한 열등감¹³⁴⁾에서 발현된다. 이를 통해, 1967년의 시점에서 우익의 입장보다 중립적 입장이 훨씬 고평됨을 알 수 있다. 이선생도 두 가지 측면을 통해 성실한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나는 이선생이 죄의식을 통한 ‘책임’의 통감을 통해 주체적인 개인이 되려고 노력한 인물이라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선생이 본인의 일신영달을 도모한 것이 아닌, 민족을 위한 길을 사유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성실한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성실한 우익은 이선생, B선생, 이광열로 유형화된다. 이들은 성실한 좌익과 달리 미군정이 주둔한 현실을 인정하고, 그 바탕에서 민족을 위한 길을

132) 서영채, 「최인훈 소설의 세대론적 특성과 소설사적 위상 : 죄의식과 주체화」, 『한국현대문학연구』 37, 한국현대문학회, 2012, 310면.

133) (1회:424면)

134) 이선생은 유태림에의 열등감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 ‘밤새워 사전(辭典)과 씨름을 하는 처지이긴 했으나 그때 그 학교에선 나는 실력(實力)이 있는 교사로서 인정되어 있었는데 유태림이 등장하기만 하면 실력과인 척하는 나의 가면(假面)이 벗겨질 것은 뻔한 사실이었다.’(2회:422면)와 같은 교사로서의 실력 측면이나 서경애의 사랑을 얻고 있는 유태림으로부터 남자로서의 질투를 느낀다. 열등감과 답답함은 이처럼 여러 국면에서 나타난다. 1967년의 시점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이선생을 통해 볼 때, 열등감과 답답함의 본질은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지 못했던 이선생 자신에 대한 책망이라고 할 수 있다. 중립의 입장을 갖추는 데에는 개인의 실력적 측면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중립적 시선을 견지했던 유태림이 이선생 본인보다 실력적 측면에서도 출중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선생은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다.

모색한다. 성실한 좌익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행동 또한, ‘합리적인 신념’을 바탕으로 ‘민족’을 위해서 행동했기 때문에 성실한 우익이라고 할 수 있다. ‘합리적인 신념’의 측면에서 우익은 미군정의 체제 내에서 좌익은 미군정의 체제 밖에서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성실한 우익도 ‘타인에 대한 배제’에 있어서 성실한 좌익과 마찬가지로 위치에 놓여있다. 그들은 마르크스주의를 따르는 좌익은 모두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선동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인식한다. 유태림은 좌익의 행동에도 진실의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실한 우익은 성실한 좌익들과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타인에 대한 배제’ 측면에서 두 인물 부류가 모두 한계점을 보이는 것이다.

2.2.2. 기회주의형 인물의 경우

「柳泰林의 手記」에서 친일파 송병준은 기회주의형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송병준은 철저히 본인의 일신영달을 위해서 행동한다. 송병준은 “일본의 천황에 대해서는 극진하면서 한국의 황제에 대해서는 불측”¹³⁵⁾한 인물이다. 유태림은 송병준에 대해 “나라의 명운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전연 없”¹³⁶⁾으며, “일신의 영달을 위해선 그 밖의 모든 일은 일체 안중에도 없었다.”¹³⁷⁾고 평가한다. 이완용에 대해선 “평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속담의, 그 평계의 냄새가 강하게 풍기는 느낌이 없지 않지만 이완용의 말엔 한 가닥의 진실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¹³⁸⁾고 평가하나 “송병준에겐 한 조각의 진실, 한 가닥의 고민의 흔적, 그 흔적 조차 없다.”¹³⁹⁾라며 송병준을 냉정히 악인으로 평가한다. 기회주의란 도덕적 잣대를 들이댈 수 없는 인물군이다. 송병준은 개인의 일신영달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하는 인물

135) (5회:431면)

136) (5회:432면)

137) (5회:같은 면)

138) (5회:434면)

139) (5회:같은 면)

이다. 이러한 인물이야말로 기회주의형 인물이다.

기회주의는 앞서 설명했던 2.2.1.의 인물유형군이 아니다. 『관부연락선』에 나타나는 ‘중립’의 시선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기회주의는 자발적으로 노예의 상태를 지향하고, 본인의 일신영달을 위해 주어진 환경을 이용하여 의식적으로 타자의 억압을 마다하지않는 인물이다.¹⁴⁰⁾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그동안 ‘기회주의’라는 개념어를 통해 폄하되었던 ‘회색’의 입장은 기실 ‘기회주의’적이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기회주의에 대한 재평가는 『관부연락선』이 가진 문제적인 지점이다.

해방기에도 일제 강점기와 마찬가지로 기회주의형 인물이 형상화된다. 기회주의형 인물은 안달영, K선생, 10월항쟁의 일부 주동자들, 이만갑으로 그려진다. 이만갑은 철저한 악질 친일파라는 점에서 체제 내적 기질을 가진 인물이며 안달영, K선생, 10월항쟁의 일부 주동자들은 기존 체제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사회를 위해 ‘행동하는’ 인물군이라는 점에서 체제 외적 기질을 가진 인물군이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 외적 기질의 인물군은 본인의 일신영달을 위해 주어진 환경을 이용하여 의식적으로 타자의 억압을 마다하지않는 인물군이라는 점에서 기회주의형 인물군이다.

유태림이 소주(蘇州)에서 학병생활을 할 당시, 안달영은 유태림이 관리하는 창고에서 공산주의 교양회를 열고자 한다. 그러나 유태림은 “하필이면 지금 이 판국에 이곳에서 꼭 그런 모임을 가져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¹⁴¹⁾

140) 타자의 억압의 측면에서 의식적 억압과 무의식적 억압을 구분해야한다. 예를 들어, 권과 한은 조선민족에 대해 무의식적 억압을 행하고 있으며 송병준은 의식적인 억압을 행하고 있다. 권과 한은 억압을 의식적으로 자행하여 일신영달을 누리려는 송병준과 구별된다. 권과 한은 법의 틀 안에서 조선인들을 억압하고자 하였다. 독립운동도 자신들이 배웠던 법의 틀에 비추어보았을 때, 범죄이므로 독립운동을 범죄 중의 하나로서 억압하고자 한다. 법의 틀 자체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았지만, 주어진 사회 속에서 성실하게 살고자 했을 뿐이므로 이들은 민족의 구성원으로써 충분히 설득과 포용이 가능하다. 일본의 법의 틀 안에서 사고하려고 했던 이들은 결국에는 노예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이것 또한 ‘자발적으로’ 노예의 상태를 지향했다고 보기 힘들다. 반면, 송병준은 조선민족이라는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일본제국을 통해 자신을 위해 ‘의식적으로’ 조선민족을 억압하였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본인이 주체성을 상실하고 일제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본인의 일신영달을 위해 일제에 의존했던 송병준은 명백히 권과 한과는 다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의식적 억압’과 ‘무의식적 억압’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141) (3회:424면)

라고 생각하며 안달영의 이러한 행동에 의문을 제기한다. “전체 의사가 공산주의에의 의사라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양을 주라는 거요.”¹⁴²⁾와 같은 생각을 가진 안달영도 M교사와 마찬가지로 계급투쟁을 통한 공산주의만이 유일한 민족해방의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안달영의 말대로 “자연 공산국가로서 독립”¹⁴³⁾ 하는 것이 세계적 대세라면 굳이 공산주의 교양회를 위험한 환경에서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유태림의 말대로 안달영은 “일본이 패망할 날이 가까이 오니까, 이런 위험한 때, 이런 위험한 곳에서도 공산주의의 서클을 만들었다는 증거를 마련해두고 싶은 심보”¹⁴⁴⁾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순수한 계급적 투쟁을 생각했다기보다, 그 위에서 자신의 일신영달을 도모했다는 방증이다.

K교사는 대중을 업고 있는 좌익세력에 편승하여 본인의 일신영달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인물이다. “K교사는 지난 학기 초 장학사(獎學士)들의 일행이 학교시찰로 왔을 때, 초급부 1학년 영어수업을 하면서 「예스」와 「노오」를 바꿔 가르치고 있는 잘못을 적발당한 교사였다.”¹⁴⁵⁾ K교사는 운동장 조례가 있는 날 B선생의 뺨을 쳤는데, “이유는 B선생의 밀고로 자기가 좌천하게 되었으니 그 밀고자를 규탄한다는 것”¹⁴⁶⁾이었다. 그러나 K교사의 좌천은 그의 실력 때문이지, B선생의 탓이 아니었다. K교사의 행동은 좌익교사들의 책동으로 실력있는 우익인 B선생을 몰아내고자 함이었다.

K 선생은 계급투쟁 옹호만 한다면 자신들의 입지를 인정해주는 좌익에 동조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이러한 유형은 계급투쟁에 대한 이해도 부족할뿐더러, 사상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무능함을 숨기고 일신영달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기회주의형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H촌에서의 폭동¹⁴⁷⁾ 주모자들도 기회주의형 인물들이다. H촌에서의 항쟁

142) (3회:425면)

143) (3회:같은 면)

144) (3회:429면)

145) (10회:397면)

146) (10회:같은 면)

147) 10월 항쟁을 폭동으로 서술한 것은 10월 항쟁을 진정한 폭동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다. 『관부연락선』은 10월 항쟁이 폭동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했다기보다 당대에 있었던 시대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10월 항쟁을 서술했다. 『관부연락선』에는 10월 항쟁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없기 때문에, ‘폭동’의 단어선택은 당대에 있었던 검열을

중에 “면장(面長)은 돌에 맞아 죽고 순경 하나는 죽창에 찔려 죽었다. 그들에게 가담하지 않은 소위 유지(有志)들은 폐광(廢鑛)에 끌려가서 각기 자기가 문힐 구덩이를 파놓고 그 구덩이 앞에 쪼그리고 앉았었다.”¹⁴⁸⁾ 그 결과, 경찰대와 미군부대가 나타나 닥치는 대로 이들을 검거한다. 따라서, 남은 사람들은 전부 숨어 있는 상황이기에 수확기에도 농촌에 사람들이 없게 되었다. 농민들에게 계급투쟁적 사상을 주입하여 투쟁에 이르도록 하였으면, 그 이후의 방향 또한 주모자들이 제시했어야 한다.

주동자들의 이름을 들곤 더욱 놀랐다. 우두머리 최모는 나완 보통학교 동기 동창이었고 일제 때는 군청서기를 하던 사람이었다. 부두목은 일제 때 이곳 면장을 하면서 유기공출(鑿器供出)을 하지 않는다고 상주의 뺨을 치고 설친 권모란 사람이었다. 행동대장은 지원병으로 나가 필리핀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이모였다.¹⁴⁹⁾

인용문은 H촌 항쟁의 주모자들에 대한 이선생의 생각이다. 항쟁 후의 대처와 주모자들의 행적을 통해 볼 때, H촌에서 항쟁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순수한 계급투쟁을 위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인물들이 기회주의형 인물이다. 기회주의형 인물은 극우와 극좌 모두에 존재했었다.¹⁵⁰⁾

이만갑은 조선사람으로 일제 강점기에 특고계 형사로 뽑혔던 인물이다. 그는 “관부연락선에서 함경도 친구인 최종률¹⁵¹⁾에게 시비를 걸어 끝내 교토경찰서에까지 연락을 해서 당시 S고등학교에 있던 조선인학생을 투옥하고 집단으로 퇴학”¹⁵²⁾시킨 인물이다. 일본경찰에서 훈련을 받고, 좌익을 빨

의식한 서술로 보아야 한다.

148) (7회:399면)

149) (7회:400면)

150) 부화뇌동과 기회주의는 구분되어야 한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부화뇌동의 사전적 의미는 ‘좃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임’이다. 부화뇌동하는 인물들은 교육에 의해 계몽과 교화가 가능하며 그에 따라 대화와 토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회주의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고 본인을 위해서만 움직인다는 명확한 사실 속에 붙여지는 레테르이므로 부화뇌동과 기회주의는 구분된다.

151) 『관부연락선』 원문(15회:420면)에는 ‘이종률’로 표기되어 있으나 1972년 신구문화사판, 2006년 한길사판 등의 텍스트에서 최종률로 표기되고 있다는 점과 맥락을 고려할 때, 원문의 ‘이종률’표기는 옳기라고 봄이 타당하다.

쟁이에 철저한 원수로 여기는 이만갑은¹⁵³⁾ 해방이 되자, 우익에 편승하여 좌익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애국가 행세를 했던 전형적인 악질적 친일파다.

기회주의는 자발적으로 노예의 상태를 지향하고, 본인의 일신영달을 위해 주어진 환경을 이용하여 의식적으로 타자의 억압을 마다하지 않는 인물이다. 기회주의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해방기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기회주의자는 기존에 회색의 입장으로 폄하되었던 유태림과 같은 중립적 인물이 아니다. 기회주의자는 혼란했던 해방기 당시 좌·우익 사이에 존재했던 유태림이 아니고, 좌·우 한편의 이데올로기에 편승하여 본인의 일신영달을 추구하고자 했던 인물들이다.

『관부연락선』은 기회주의형 인물을 악질 친일파와 좌익에 편승한 인물로 형상화한다. 친일 매관자본가와 친일파가 다수 속해있는 우익에 대해서는 이만갑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침묵한다. 그러나, 우익에 수많은 기회주의자가 있었다는 사실은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 이 점을 굳이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을 뿐, 이병주는 이를 외면하지 않았다. ‘반공주의’가 국시였던 1968년 소설 발표 당대, 소설에 구체적으로 해방기를 형상화해낸 것에서 더 나아가 우익을 체계적으로 비판·서술하기는 어려웠다. 『관부연락선』의 대항 이념에 대한 비판은 중립적인 시선을 통해 총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기회주의자의 대부분이 악질 친일파와 좌익 기회주의자로 그려졌다. 하지만, 우익의 과오에 대해서도 『관부연락선』은 완전히 침묵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사건이 보도연맹학살사건이다.

1949년은 이러한, 지금 생각하면 납득이 가질 않는 일들이 연이어 발생한 해다. 보도연맹(保導聯盟)이란 것이 결성된 것도 이해가 아닐까 한다. 좌익분자에게 돈을 주었다는 혐의 짚을 받아도 이 연맹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신 귀찮게 굴지 않을 것이니 들라고 해서 참가했다는 친구도 있었다. 내겐 물론 그런 권유가 없었는데 태림에겐 있었던 모양이었다. 태림은 일언지하에 「나는 어떤 단체에도 가담하지 않는 것을 신념으로 하고 있다」면서 거절했다고 했다. 그러니 나와 태림과 J와 이광열을 빼고는 C시에 사는 우리 친구는

152) (15회:420면)

153) (15회:419면)

죄다 보도연맹의 맹원이 된 셈이었다.¹⁵⁴⁾

보련으로서 체포한 자들은 즉결처분하고 있다는, 사실인지 낭설인지 모르는 풍문이 시민들을 더욱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보련원 가운데 진짜 빨갱이도 있었겠지만 진짜에 속하는 사람들은 재빨리 신변의 위협을 깨닫고 어디론가 도피해버리고 붙들린 사람들의 거개는 「내쫓은 팬잖겠지」 하는 부류라고도 들었다. 그런 사람들을 총살한다면 이건 2중의 비극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¹⁵⁵⁾

『관부연락선』에 제시되는 보도연맹에 대한 것은 이 대목이 전부이다. 그러나 이병주는 보도연맹사건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그의 수필 『스페인 내전의 비극』¹⁵⁶⁾에서 직접 경험했던 보도연맹 학살사건을 회상한다.¹⁵⁷⁾ 이와 같은 의식을 가진 이병주가 『관부연락선』에서 보도연맹사건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지 않은 것은 소설 창작 당대의 분위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1968년 『월간중앙』에 소설이 연재될 당시 한국사회 분위기 속에서 해방기를 이처럼 첨예하게 소설로 형상화하는 것에 더하여 이승만정권의 부정적 측면을 서술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납득이 가질 않는 일”¹⁵⁸⁾이라고 하며 보도연맹사건을 다루는 『관부연락선』의 서술을 볼 때, 인용문과 같이 우익의 폭력성에 대한 비판적 의식

154) (22회:424면)

155) (23회:414면)

156) 이병주, 김윤식·김중회 엮음, 『스페인 내전의 비극』, 바이북스, 2013.

157) 소변을 보는 척하고 그 반점 같은 것을 판별할 수 있는 지점까지로 숲 속을 비집고 내려가보았다. 줄잡아 30명은 넘을 것 같은 시체가 흙을 쓰고 누워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즉각적으로 보도연맹원들이라고 짐작했다. 새벽에 거기까지 트럭으로 운반해와서 쏘아 죽이고 흙을 덮는다고 한 것이 그런 조잡한 결과가 되어버린 게 분명했다. 쏘아 죽인 사람들도 다급했을 것이었다. 인민군이 접근해 있었기 때문이다. 도망을 가기도 해야 하고 남은 보도연맹원을 처치도 해야 했을 테니 말이다. 죽여놓고 흙으로 덮는다는 것이 흙을 뿌려 놓는 결과가 되었다.

(중략) 내가 아는 사람만으로도 보도연맹원으로 붙들려간 수가 십수 명이나 되었다. 그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고 싶은 충동이 없지 않았지만 나는 그 흉측스런 참상을 견디어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중략) 전쟁에서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것도 나라의 대죄인데 무저항한 국민을 이처럼 학살하고 배겨낼 수 있는 일일까. 나는 심각하게 조국의 부채를 느꼈다.(이병주, 김윤식·김중회 엮음, 위의 책, 2013, 77-82면)

158) (22회:424면)

이 내재되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현실을 이병주는 직시하고 있었다.

2.3. 체제 외적 인물군과의 비교를 통해 드러나는 중립의 의미

2.3.1. 체제 외적 기질을 가진 인물들의 경우

체제 외적 기질을 가진 인물들의 경우는 「柳泰林의 手記」와 해방기 서사 모두에서 나타난다. 먼저, 「柳泰林의 手記」의 전체적인 서사는 유태림과 일본인 E가 송병준을 암살하려다 실패하고 자살한 원주신을 찾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주신은 체제 외적 기질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와 더불어 이인영대장도 체제 외적 기질을 가진 인물로 분류될 수 있다. 체제 외적 기질은 대부분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있다. 유태림이 긍정하는 합리적인 신념에는 반드시 인간 소외 거부가 포함되어있다. 원주신과 이인영대장은 일체로부터 노예상태를 벗어나려고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신념을 가지고 행동한 인물이다. 그들은 독립운동을 누군가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신념을 갖고 행동하는 인물이 타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필연적으로 타인에 대한 소외가 발생하게 마련이다. 이들은 신념을 관철하며 타인에게 본인들의 신념을 강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태림의 관점으로 이들은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에도 냉철한 현실 판단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유태림은 놓치지 않는다. 그에 따르면 “성공하지 못한 혁명, 목적을 관철하지 못한 저항은 모두 아나크로니즘”¹⁵⁹⁾이다.

그러나 인간의 집념, 인간의 위대, 인간의 특질이 아나크로니즘을 통해서 더욱 명료하게, 보다 빛나게 나타나는 것은 슬픈 일이다. 그러니까 인생은 그 위

159) (14회:412면)

상에 있어서나 본질에 있어서나 비극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¹⁶⁰⁾

위 인용문은 이인영대장의 죽음을 평가한 유태림의 생각이다. 유태림은 합리적인 신념을 갖고 용기 있게 행동한 이인영대장을 높게 평가한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그는 냉철한 현실 판단을 갖춘 용기 있는 행동을 요구한다. 그가 아나크로니즘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독립운동자체라기보다 냉철한 현실 판단의 측면이다. 유태림은 독립운동의 신념과 용기를 높게 평가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와 동시에 냉철한 현실판단의 측면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중립의 시선만이 가능한 평가이다. ‘민족’의 절대화 관점은 독립운동의 실패를 제국주의 일본이라는 대상에만 치중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중립적인 시선은 제국주의 일본과 더불어 독립운동 내부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바라본다. 이러한 총체적인 시선은 독립운동의 ‘가능성’과 ‘방향’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제시해주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유태림은 독립운동을 부정한 것이 아니다. 유태림에게 있어서 독립운동은 실패했지만, 실패했다는 ‘사실’보다 ‘피식민지인의 주체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개인의 주체성을 억압하는 체제는 용납될 수 없다. 유태림이 독립운동을 시대착오적으로 평가한 것은 이인영의 독립운동을 통해 파시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희생되어 간 피식민지인의 주체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다. 그밖에도 스위스로 가서 독립운동을 한다고 추정되는 유태림의 조선인 친구 김형수군이 체제 외적 기질을 가진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 기회주의형 인물을 제외한 체제 외적 기질을 가진 인물군은 유태림이 『관부연락선』에서 해방기 중립적 인물인 여운형과 함께 가장 고평하는 인물군이다. 일제 강점기 체제 외적 기질을 가진 인물군은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주체적인 움직임’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으며, 그들의 행동의 실행에 ‘강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인영을 중심으로 한 독립군은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립운동에 동참하지 않는 조선인에게 독립운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이러한 독립운동

160) (14회:같은 면)

의 성격은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집단의 통합성과 개인의 주체성을 함께 유지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랑’의 방향을 따르고 있다.

둘째, 해방기 성실한 좌익의 경우는 P와 M교사, 서경애, 박창학, 강달호, 전승일로 나타난다. 이선생에 따르면, M교사는 “우편배달부의 아들로서 고생고생 중학교를 나왔고 그 재능을 아낀 어떤 특지가의 호의로 당시의 한 반도예선 일류에 속한다는 전문학교를 졸업한 독실하고 성실한 인격의 소유자로서 일반에게 알려진 사람이다.”¹⁶¹⁾ M교사와 유태림은 정치적인 견해를 두고 토론을 벌인다.¹⁶²⁾ 이선생은 유태림과 M교사와의 대면에서 그를 “(아무리 성실한 인격이기로서니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학생들을 선동까지 한다면 그것이 무슨 성실인가?)”¹⁶³⁾라며 M교사에의 거부감을 보여준다.

그러나 유태림은 다른 태도를 보여준다. 이선생은 M교사와 헤어진 유태림에게 “왜 결연하게 대하지 않고 너절한 얘기만 듣고만 있었느냐”¹⁶⁴⁾고 따진다. 하지만, 유태림은 M교사와의 토론을 가치있게 생각한다.¹⁶⁵⁾ M교사가 성실한 좌익이기 때문이다. M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일체의 가치체계를 뒤바꾸어놓자면 공산주의에 의한 실천 밖에 없다고 생각”¹⁶⁶⁾했다. 그는 “설혹 악화되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의 상황은 바꿔놓고 봐야 한다.”¹⁶⁷⁾고 말한다. 그의 생각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선 “사상으로서의 무기는 공산주의밖에 없다.”¹⁶⁸⁾ 물론, M교사의 의식 저변에는 “악화될 리는 만무하다는 신앙”¹⁶⁹⁾이 바탕에 있다. M교사의 이러한 신앙에는 친일파 및 자본가들의 착취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현실 판단이 자리잡고 있었다.

161) (7회:387면)

162) (7회:388-394면)

163) (7회:388면)

164) (7회:395면)

165) “아냐. 오늘 나는 좋은 얘기를 들었어. 나도 솔직했지만 M선생도 솔직했어.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애. M선생의 사람 됨됨도 안 것만 같고. 무슨 일에 관해서든 이제 나와 M선생처럼 그런 식으로 대화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7회:395면)

166) (7회:394면)

167) (7회:같은 면)

168) (7회:같은 면)

169) (7회:같은 면)

분명히, 이와 같은 문제는 조선현실에 존재했던 사안이다. 따라서 M교사는 합리적인 신념을 바탕으로 행동원칙을 세웠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M교사로 대표되는 해방기 좌익사상의 실현은 필연적으로 급진성과 폭력성을 동반한다. 계급 모순을 자각하지 못하는 인민들은 모두 반동분자들이며, 기본적으로 부르주아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반동분자로 여겨진다. 반동분자는 ‘반동’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척된다. 따라서 좌익사상의 ‘계급 모순 타파’에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배제된다. 배제된 사람에 대한 폭력은 무시되는 것이 해방기 당시 좌익의 투쟁을 통한 마르크스주의의 실현의 모태였다.¹⁷⁰⁾

유태림은 이러한 좌익의 폭력성을 비난하지만, 좌익 자체를 비난하지는 않는다. M교사도 민족을 위한 길을 모색했던 성실한 인물이었다. P교사와 서경애, 박창학, 강달호, 전승일도 이와 같은 맥락에 위치해 있다. 서경애는 “「반인간적(反人間的)인 조건을 제거 하기 위해서는 광기의 포로가 되어야 하고 너무나 불합리한 사회를 고치기 위해서는 당분간 액자적인 세계도 견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¹⁷¹⁾ 라며, 계급모순의 해결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 보고 있다. 남로당 C시당의 책임자 전승일 또한, “그러나 당의 활동을 위해서는 자본론과 유물사관과 변증법적 유물론으로서 족한 것입니다. 요는 전투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설득력만 가지면 되는 것이니까요.”¹⁷²⁾ 라며 당의 투쟁을 통한 마르크스주의의 실현을 맹신하고 있다. P교사, 박창학, 강달호도 마찬가지다. 모두, 해방기 현실에서 당을 중심으로 투쟁을 통한 마르크스주의의 실현만이 행복한 사회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있다. 이들은 사회에 존재했던 계급모순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성실한 인물군이다. 본인의 일신영달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고 ‘민족’을 위해 행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타인에 대한 배제’의 측면에서 기회주의형 인물 외의 인물들을 배제했다는 데에 한계가 있다. 계급 모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판단과 그로 인한 타인의 배제

170) 좌익교사들은 좌익세력인 학생동맹원에 대한 테러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학생동맹원이 다른 학생들에게 가한 폭력에 대해서는 침묵한다.(6회:391-392, 401-403면)

171) (12회:387면)

172) (16회:394면)

는 소통 불가능성의 한계를 보이기 때문에 성실함의 층위에서도 고평받을 수 없다.

유태림은 그의 독서체험과 그가 파악한 국제사회의 정세를 바탕으로 조선을 위치지음으로써, 조선을 세계사 속에 위치시키고자 하였다. 그 때 당시, 자본주의에 대한 대항이념은 공산주의였다. 그러나 공산주의만을 현실에 구현한 사회도 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병폐를 지닐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간파한 유태림은 자본주의의 한계를 공산주의로 넘어서려는 시도를 비판한다. 이때, 공산주의에 대한 유태림의 비판은 공산주의적 이념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그 실천적 방법, ‘투쟁’을 비판하는 측면이 강하다. 사회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적 개념의 핵심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정서적 내지 지적인 능력은 문화의 목적이자 목표인 것으로 사물이 사람에게 봉사해야 하며 생명이 있는 것이 생명이 없는 것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¹⁷³⁾ 유태림은 마르크스주의에 진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당을 중심으로 이러한 마르크스주의를 현실화하고자 한 시도는 과정상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인간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취급하고, 계급모순에 반대되는 행위를 무조건 배제한다. 유태림은 계급모순을 유일무이한 악으로 규정하고, 많은 이들의 희생을 전제하는, 투쟁으로 얻어낸 마르크시즘을 현실화한 사회에서도 사회적 병폐가 필연적이라고 본다. 마르크스주의자들에 따르면, 계급모순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모두가 반동분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인간의 생명과 실존을 모두 마르크시즘에 귀속시키는 것은 ‘허망한 정열’이라고 판단한다. 유태림의 기준에서 이러한 좌익은 ‘타인에 대한 배제’로 인해 통일민족국가를 설립하는 데 저해가 된다.

이 상황에서 유태림은 해방기 인물들을 유형화한다. 좌·우 모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유태림을 통해 좌·우의 문제점들을 면밀히 고찰해 볼 수 있다. 특히, 유태림은 우익보다는 좌익을 더 체계적으로 비판한다. 이는, 당시 지배이데올로기의 대항담론이었던 마르크스주의의 ‘절대화’를 경계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그에게 있어 해방기 당시에 좌익적 투쟁은 잘못된 소련

173) 에리히 프롬, 『사랑의 기술』, 앞의 책, 277면.

사회를 재구축하려는 시도¹⁷⁴⁾로 보였기 때문이다.

유태립은 일제 강점기, 권과 한처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행동의 확실성’을 가진 인물을 긍정한다. 성실한 좌익 또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행동의 확실성’을 가진 인물이다. 그러나 두 인물군은 ‘신념의 강요’라는 관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일제 강점기 권과 한의 행동을 통해 이들은 환경이 어떠한 간에 주어진 환경 내에서 살아갈 것임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송병준과 같은 기회주의형 인물군은 ‘독립운동가’를 대일본제국에 반하는 부도덕한 인물들로 평가한다. 그러나 권과 한은 ‘독립운동가’를 특수하게 보지 않는다. 그들에겐 ‘독립운동가’는 일본의 법을 어긴 범법자들과 같은 층위일 뿐이다. 조선인을 억압하고 박해함으로써 일본을 적극적으로 비호하는 기회주의형 인물과는 다르다. 권과 한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갔을 뿐이다.

하지만, 성실한 좌익의 경우 바람직한 사회를 구상함에 있어 ‘신념’을 타인에게 강요한다. ‘계급의식’의 부재는 반동이며, 반동분자들은 배제된다. 배제된 자들에의 폭력은 정당화된다. 단지, 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가는 권, 한과 사회를 변혁하고자 하는 성실한 좌익은 이러한 점에서 크게 다르다. ‘신념’에 대한 맹신은 타인에 대한 배제를 수반한다.¹⁷⁵⁾ 유태립은 대화와 토론의 가능성을 억압하는 이러한 좌익의 ‘폭력성’을 비판한 것이지 좌익 자체를 비난하지 않는다. 좌익의 혁명이 성공하여 공산주의사회가 도래했을 경우, 권과 한을 ‘체제 적응성’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할 때, 그들은 그러한 사회에서도 적응하여 살았을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인물군의 행동은 기회주의가 아니다. 기회주의형 인물군은 ‘본인의 일신 영달을 위해 주어진 환경을 이용하여 의식적으로 타자의 억압을 마다하지

174) 소설 전반에서 유태립은 소련사회를 신성시하는 좌익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인다. 그에 따르면, 소련도 다른 모든 국가와 마찬가지로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하나의 국가에 불과하다. 그에 더하여, 유태립은 타인과 소통가능성의 측면에서 소통불가능한 전체주의적인 소련사회를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175) 신념에 대한 맹신의 측면에서 권과 한도 자유롭지 못하지만,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신념과 체제를 변혁하려는 신념은 ‘폭력성’의 차원에서 다르다. 전자도 폭력성을 수반한다. 하지만 후자는 변혁과정에서의 폭력으로 인한 희생뿐만 아니고, 변혁 후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폭력을 수반하기에 후자는 전자에 비해 엄격한 잣대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않는' 인물이다. 권과 한은 단지 체제 내에서 적응할 뿐이지, '식민지 조선'의 체제를 적극 활용하여 타자를 억압하고 출세하고자하는 인물군은 아니다.¹⁷⁶⁾

유태림의 참여유보적 행동은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현실을 변혁하는 지식인을 형상화하지 못한 이병주의 한계라고 읽혀지기 쉽다. 그러나 이병주는 당시의 대안적 이념으로 제시되었던 그 어느 것에도 절대적인 진실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태림이라는 인물을 형상화한 것이었다.

2.3.2. 중립적인 인물의 경우

중립적인 인물은 「柳泰林의 手記」와 해방기 서사 모두에서 나타난다. 이들은 기존의 것들 사이에서의 선택을 강요하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그것을 벗어나는 선택을 이야기하는 '중립'에 놓여있는 인물군이다. '중립'은 진리의 절대화를 벗어나 개별적이고 환원불가능한 것들에게 진리의 가치를 부여한다.¹⁷⁷⁾ 이러한 '중립'의 태도에 따라 상이한 인물들 간의 대화와 토론이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총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柳泰林의 手記」에서 중립적인 일본인의 경우를 유형화해낸 점이 기회주의와 더불어 문제적인 지점이다. 이 인물군에는 고다씨와 E가 속한다. 고다씨는 얼마 더 받는 월급이 탐이나서 일본에서 조선의 학교로 전근을 온 인물이다. 그는 조선인 학교인 부산이상과 동래중학의 학생들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는 “동경부립일중(東京府立一中)도 그만큼 우수한 학생들을 모아놓지 못했을 것”¹⁷⁸⁾이라며 그들이 일본의 우수한 학

176) 타자의 억압 측면에서, 권과 한의 행동이 결국에는 타자의 억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권이 법관이 되어, 독립운동가를 탄압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그러나, 권은 '독립운동가'를 특수한 유형으로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탄압하는 인물이 아니고, 단지 수많은 죄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유형은 식민지 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본인의 일신영달을 위해 활용한다고 보기 힘들다. 기회주의형 인물은 식민지 체제하에서의 독립운동탄압이라는 특수성을 적극 활용하여 본인의 일신양명에 활용했을 것이다. 권과 한은 이러한 점에서 기회주의형 인물군과 다르다.

177) 롤랑 바르트, 앞의 책.

178) (13회:416면)

생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고다씨는 “내가 조선에 나온 것은 얼마 더 받는 월급이 탐이 나서였다. 그런데 너무나 우수한 조선학생들을 만나고 보니 일종의 사명감 비슷한 것이 생겼다.”¹⁷⁹⁾라고 한다. 조선학생들의 우수성이 조선학생들을 위한 그의 사명감을 키워준 것이다. 그는 노다이 사건¹⁸⁰⁾이 조선인 학생으로선 당연한 사건이고 일본인으로선 창피한 사건이라고 한다. 그에 따르면 노다이 사건은 “일본인의 가장 못된 버르장머리가 집중적으로 나타난 사건”이다.¹⁸¹⁾

고오다 씨의 의견에 의하면 일한병합(日韓併合)을 이룩하는데 백가지의 작용이 있었다면 그 중 80가지까지는 조선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조선의 자립(自立)을 불가능하게 한 것도 조선인이고, 일본의 군대를 청한 것도 조선인이고, 병합운동을 유발한 것도 조선인이고, 반대의 방향으로 국론을 통일하지 못한 것도 조선인이고, 조선의 왕실을 협박(脅迫)했다고 하지만 그 협박의 각본(脚本)을 만든 사람도 조선인이고, 그 협박의 앞장을 선 사람도 조선인이라는 것이다.

나머지 20까지는 일본이 응당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것은 주로 도의(道義)의 문제다. 일본이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격의 행동을 한 것도 사실이고 날도 독을 방불케 한 짓을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영국이 인도를 먹고, 미국이 필리핀을 먹고, 불란서가 인도지나(印度支那)를 먹고, 홀란드가 인도네시아를 먹고 그 위에 이들 열강(列強)이 지나대륙(支那大陸)을 제 각기 식민지화 하려고 법석을 떨고 있는 세계 정세 속에서 일본에게만 도의적인 태도를 취하라고 요구할 순 없는 것이 아닌가.¹⁸²⁾

인용문은 고다씨의 한일합방에 대한 생각이다. 이러한 고다씨의 생각을 유태림은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다씨에게서 “일본 지식인 가운데서는

179) (13회:417면)

180) 1940년 11월 23일, 부산 공설운동장에서 경남도내 중등학교생의 제2회 학도전력증강 국방경기대회가 열렸다. 여기에서 조선인 학교 동래중학의 우승을 일본인 노다이 심판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방해하고, 일본인 학교 부산중학의 우승을 선포한 사건을 의미한다.(13회:409-410면)

181) (13회:416면)

182) (13회:같은 면)

일류에 속하는 식견”¹⁸³⁾을 발견했다고 서술한다. 고다씨도 식민지 체제가 아니라 피식민 민족의 반응에 문제제기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제기는 앞서 논의했듯이 제국주의의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함이 아니다. 제국주의의 흐름이 세계사를 관통하고 있을 당시에, 제국주의 반열에 속하지 못했던 조선이 취해야 했을 태도에 대해 지적한다. 약소국의 발전가능성을 억압하는 제국주의는 악이다. 그러나 악이 선을 압도하는 당시 세계 정세 속에서, 일본의 제국주의 측면만을 비판하는 것은 필연적인 역사적 측면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인한 식민지 체제 형성은 제국주의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하지만, 식민지 내부의 문제점을 제국주의에게만 전가하려는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식민지 내부의 문제점과 제국주의의 병폐를 함께 고려해야만 한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은 일본에 억압당한 조선이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는 중립적인 시선만이 가능한 작업이다. “「독립운동은 성패(成敗)의 문제이기 전에 신념의 문제이니까 쓸데없는 노릇이니 뭐니 할 수는 없지」”¹⁸⁴⁾ 라는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듯, 고다씨는 독립운동의 의의를 폄하하지 않는다.

일본인 E를 통해서도 이러한 비판적인 지식인들과의 연대가능성을 보여 준다. 유태림은 E와는 긴밀한 유대관계 속에 있다. 독립투사 원주신을 찾아나서는 「柳泰林의 手記」에서 유태림과 일본인 E와의 서사는 가장 비중 있게 그려지고 있다. 사실상 일제 강점기에 조선인 유태림이 원주신의 행적을 조사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일본인 E가 있었기 때문이다.¹⁸⁵⁾ 그리고 일본인 E는 유태림에게 자신을 일본사람으로 보지 않고 ‘친구’로서 대해주길 바란다. 유태림은 조선이 처한 당면문제나 기타 여러 제반사항에 대해 사고할 때, E가 자신과는 다른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계속 의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E는 유태림의 이러한 태도가 못마땅하다.

183) (13회:같은 면)

184) (13회:같은 면)

185) E와 유태림은 원주신에 대한 조사로 인해 형사들의 의심을 받지만, E가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형사들의 의심으로부터 쉽게 벗어난다.

“유군은 내게까지 경계하고 드는 눈치 같은데 제발 그러질 말게. 나를 일본인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보지 말고 친구로서 대해주면 고맙겠다. 나는 군과의 우정을 키우고 싶어. 군이 반도인(半島人)이라고 해서 하는 말이 아냐. 같은 나이의 학생으로서 하는 말이야. 우리끼리만이라도 진실을 겁내지 말고 사귀자는 거다.”¹⁸⁶⁾

E는 지속적으로 일본인 대 조선인이 아닌, 인간 대 인간으로 유태림과 관계하고자 한다. 조선인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을 가진 일본인을 탓하고, 그를 제국주의적인 인물로 평가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민족’이라는 이름하에 모든 일본적인 것들을 제국주의의 산물로 평가하면 안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조선인과 순수한 인간적인 유대로 묶이고자 하는 일본인은 배제된다. 그러한 일본인은 고려대상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극히 예외적인 대상으로 치부된다. 일본인은 하위계층인 조선인과 우정의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관점, 침략자 일본인과 조선인이 우의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관점은 모두가 각자의 ‘민족’을 특권화시키는 위치에 놓여있다. 일본을 가해자, 조선을 피해자로 규정하여 그 기반 위에서 사고하는 것은 또 다른 배제를 낳을 것이다. 앞서 여러 번 서술하였듯이, 이병주는 조선민족을 특권화하는 것을 경계하였다. 이것이 또 다른 소외자를 낳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조선과 일본의 이분법적 구도가 아닌, 세계 속에서의 조선, 세계 속에서의 일본을 사유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조선인 대 일본인이 아닌,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유대와 우정은 이병주가 긍정했던 가치이다.

「어때 유군, 자넨 일본 여자와 결혼할 생각은 없나?」

나는 너무나 돌연한 얘기가 되어서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다.

「나는 조선 여성과 결혼했으면 하는데 어떨까」

E가 이렇게 말을 바꿨다.

(중략)

「아냐, 문득 생각을 했지. 자넨 표면은 그렇지 않지만 조선과 일본과의 관계

186) (8회:379-380면)

를 두고 석연치 않은 기분을 지니고 있는 모양인데 자네 아들에게 그런 걸 물려주지 않게끔 한번 과단성을 발휘해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 거지」 187)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E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결혼을 통해 조선대 일본이라는 이분법적 구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물론, 1940년대 초 동아시아 각지로 뻗어나가던 일본제국의 상황과 변두리 식민지국으로 치부되던 조선의 상황을 볼 때, 일본인과 조선인의 이러한 우정관계는 형성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일제 말기에 E라는 일본인 지식인과 유태림이라는 식민지 지식인을 형상화하여 그들 간의 우정관계를 보여준 것은 일본과 조선의 이분법적 구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일본과 조선의 관계를 바라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준다. 식민지 조선인 대 제국주의 일본인의 관계에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와 사랑, 유대로의 이행은 민족내부의 폐쇄화에 대응하여 외부의 적극적인 수용을 보여준다. ‘중립적인 일본인’이 유형화된 이러한 사유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속성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한일 간의 진정한 유대를 도모할 수 있다. 비판적인 일본인과 함께 식민성의 극복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식민성 극복’의 방향을 예각화할 수 있다.

유태림은 중립적인 시선으로 일제 말기의 여러 인물들을 유형화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자의 시선이야말로 이병주가 형상화한 문제적인 것이다. 서술자의 시선을 통해 ‘기회주의’가 재해석되며, 서술자의 인물 유형화 방식을 통해 일본에 대한 중립적 시각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유태림이 유형화해낸 인물들을 통해 나타나는 일본에 대한 중립적 시각이란, 조선 내부의 식민성 극복과 함께 일본의 자기부정을 통한 탈식민적 가능성을 모색한 총체적인 시각의 바탕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한 해결방안의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중립적인 인물의 경우는 『관부연락선』에서 가장 고평되는 인물유형이다. 해방기 서사에서 이는 유태림과 여운형, 이와사키 교수로 나타난다. 유

187) (8회:399면)

태림은 해방기 서사에서 「柳泰林의 手記」와 달리 3인칭으로 등장한다. 이는 앞서 말했듯이, 유태림을 3인칭으로 배치함으로써 유태림의 중립적인 위치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이다. 중립적인 인물들은 총체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유형이다. 이들 또한, ‘합리적인 신념’과 ‘타인을 위함’을 통해 세상을 보았다는 점에서 성실한 인물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다른 성실한 인물들과는 차별된다. 이들의 사고(思考)는 성실한 좌익, 우익과 달리 ‘타인에 대한 배제’를 수반하지 않는다. 중립적인 인물들이 배제하는 타인이란 철저히 기회주의적인 인물뿐이다. 그들의 사고방식은 유태림의 다음과 같은 말로 요약된다. “4,5백만 명을 죽이고 80점쯤 되는 나라를 만들기보다 사람 하나 죽이지 않고 60점쯤 되는 나라를 만들자는 편에 나는 서있는데”¹⁸⁸⁾ 이와 같이 이들은 불합리한 제도를 점진적으로 고쳐나가자는 입장에 서있다. 유태림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인물군이 아니다. 인물군을 유형화하는 중립적인 시선은 독자들에게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유도한다. 주인공의 적극적인 행동방향의 제시는 그러한 행동의 옳음과 그름의 여부를 작가가 독자들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태림의 행동방식은 독자들의 자율적인 판단을 보장한다고 할 수 있다.

나는 동맹휴학을 반대도 안 하거니와 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건 교육적인 뜻만도 아냐. 우선 요구조건의 제1로 나와 있다는 국대안¹⁸⁹⁾에 대해서 나 자신 판단이 서 있지 않으니깐. 만일 국대안이 우리나라의 대학 발전에 지장을 주는 것이라면 그 안(案)의 내용을 모르는 학생까지 동원해서 반대해 보는 것도 무방한 일 아냐? 그런데 내겐 국대안 자체에 관한 판단이 서 있지 않아. 학원 민주화는 지당한 요구라고 생각했고, 무능교사의 배척도 있음직한 일이고.¹⁹⁰⁾

188) (22회:416면)

189) 1946년 7월 3일 문교부장 유억겸은 경성대학교와 관립인 경성법학전문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공업전문학교, 경성광산전문학교, 경성경제전문학교, 수원고등농림학교, 경성고등상업학교, 경성사범학교, 경성여자사범학교와 사립인 경성치과전문학교를 한데 묶어 국립대학을 만들겠다는 국대안을 발표했다. 국대안은 즉각 반발에 부딪혔다. 미국인 문교부장, 한국인 문교부장 등 6인의 이사회가 모두 관료여서 중앙집권적, 관료적으로 운영될 것이 뻔했다.(서중석,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 웅진 지식하우스, 2013, 184면)

인용문은 동맹휴학에 대한 유태림의 의견이다. 성실한 우익들은 동맹휴학을 좌익계열의 선동으로만 치부한다. 그러나 유태림은 동맹휴학의 요구조건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판단한다. 그는 민족 대학 발전에 저해가 되는 정책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판단도 ‘합리적인 신념’ 아래 이루어지는 판단이기에 유태림은 배제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유태림은 “내용을 모르는 학생들까지 동원해서 반대”¹⁹¹⁾하는 것에도 유연한 태도를 보여준다. 그에 따르면, 학생대회의 학원 민주화와 무능교사 배척도 부당한 요구조건은 아니었다. 그러나 학원 민주화의 방향이 학원을 좌익화하는 것이고, 무능교사 배척도 좌익교사가 아닌 교사를 배척하는 태도를 볼 때, 이들의 요구조건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유태림은 학생대회의 방향과 방법을 긍정한다. 학생대회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대화가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대회를 넘어, 학생들이 반대편에 테러와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에는 절대 반대한다. 유태림이 긍정하는 것은 좌익이 가진 진보적인 측면이지, 폭력성이 아니다. 대화와 토론은 폭력이 개입되는 순간 불가능해진다. 특히, 폭력의 극단으로 인간의 생명이 사라질 때는 가능성조차 없어지는 것이다.

유태림은 좌·우 어느 편에도 동조하지 않고, 상황에 대한 관조로 일관한다. 인간의 생명을 짓밟는 것을 ‘사상’이란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자행하는 해방기 당시 공산주의자들에게 유태림은 동조할 수 없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계급모순의 타파’를 위한 모든 행위는 정당화된다. 좌익교사 M은 “그런 사실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또 그런 사실을 잘한 것이라고 우길 생각도 없습니다. 어떤 정권도 그러한 부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정권이 다른 정권보다도 심하게 그런 종류의 부정을 저질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행착오(試行錯誤)라는 것은 어떤 사회나 어떤 역사에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 시행착오된 부분만을 클로즈업시켜 전체를 평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¹⁹²⁾라고 하며 유태림의 의견에 반대한다. 그러나 유태림에 따르면 ‘시행착오’가 정당화되는 것에 ‘강요된 생명경

190) (6회:390면)

191) (6회:같은 면)

192) (7회:393-394면)

시'193)가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반공(反共)은 좋다. 그러나 반공에는 군대적 반공, 경찰적 반공이 있는 동시에 시민적반공(市民的反共)이란 것도 있다. 모든 사람이 군대적으로 경찰적으로 반공하지 않는다고 용공분자로 취급한다면 진실한 뜻에 있어서의 반공의 효과를 올리지 못한다」 또 이런 말도 했다.

「반공이란 따지고 들면 공산주의자가 쓰는 수단에 대한 반대다. 그들이 쓰는 수단이 야비하고 가혹하고 교활하고 비인간적이기 때문에 반공하는 거다. 반공을 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쓰는 수단을 그냥 쓴다면 하늘을 보고 침 뱉기가 아닌가」 194)

인용문은 1949년 당시 미소 공동위원회도 결렬되고, 좌·우의 분열이 극심해지면서 좌익은 좌익대로 우익은 우익대로 더욱 더 병적인 상태가 되어 갔던 사회를 향해 유태림이 발언했던 것이다. 그 당시는 “어떤 모임에 참가했다고 해서 혐의를 받는 사람, 아들이나 남편이 행방불명일 경우, 빨치산으로 가지 않았느냐는 추궁”195)등 우익의 폭력적 성향 또한 절정에 다다르고 있을 시점이었다. 유태림이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이유는 그들의 “야비하고 가혹하고 교활하고 비인간적인”196)수단에 반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익도 또한 마찬가지로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유태림은 좌·우 어느편에도 동조하지 않는다.

유태림은 자기가 좌익계의 기관에도 잡히고 대한민국의 검찰에도 걸려들고 한 사실 자체에 적잖은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그의 말을 빌리면 설 자리가 없다는 기분이며 그러니 도무지 살맛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197)

193) 독립운동가들도 일본에 대한 의거를 통해, 일본인의 생명을 빼앗는 테러를 했다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독립운동가들의 행동은 ‘노예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누구에게 독립운동을 강요하지 않았다. 3.1운동도 일본으로 인한 노예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민중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다. 하지만, 좌익운동은 ‘좌익사상’을 모두에게 강요한다. 계급의식에 대한 자각을 못하는 사람들은 반동분자이다. 반동분자들에 대한 폭력도 자연스레 정당화된다.

194) (22회:423면)

195) (22회:같은 면)

196) (22회:같은 면)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태림의 태도는 그를 좌·우 모두의 적으로 만든다. 유태림과 같은 사람은 해방기에 기회주의자로 폄하되었다. 그러나 기회주의자는 극좌와 극우에 많았다. 서중석은 “일제 강점기에 친일행위를 했던 인물이 해방이 되자, 극좌·극우에 기대어 극좌가 되고 극우가 된 사람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해방 후 극좌는 강력한 대중조직을 가졌고 극우는 미군정에 기댔기 때문에 기회주의자들이 기대고자 했다. 극좌와 극우 중에는 지나치게 외세에 의존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경우도 기회주의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¹⁹⁸⁾라고 하였다.

일본인 이와사키 교수 또한, 중립적인 인물이다. 이는 「柳泰林의 手記」에서 보이는 E와 고다씨 같은 인물들과 통하는데, 해방기에서도 중립적인 일본인의 경우가 중립적인 인물형으로 유형화되고 있다. 이와사키 교수는 “학문이 그대로 지성이 되고 그것이 바로 인격으로 결정되어 버린 듯한 부드럽고 따뜻하고 지혜로운 인물이었다.”¹⁹⁹⁾고 유태림을 평가한다. 이와사키는 무더운 여름날, 2백 키로 강행군에서 위급한 환자에 대비하여 수통물을 끝까지 아꼈던 인물이다. 부대장이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말을 앓고, 위급한 환자가 생기자 수통물을 기꺼이 내놓았던 상황에서²⁰⁰⁾ 그의 인격을 볼 수 있다.

「사람에겐 두가지의 기질이 있다. 어떤 체제(體制)이건 그것을 긍정하고 사는 체제내적 기질과 어떤 체제이건 그것을 부정하려는 반체제적 기질과 이 두가지 기질이 하나의 사람 속에 공존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인격으로 분열하는 수도 있다. 나의 경우는 체제 내적 기질이다. 어떤 체제 속에서라도 나는 나의 성(城)을 만들 수가 있다. (중략) 물은 어디까지나 체제 내적 법칙에 충실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론 산의 모양을 바꿀 수도 있고 반체제의 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나는 한 방울의 물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²⁰¹⁾

197) (23회:426면)

198) 서중석, 「해방정국의 중도와 정치세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9,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4, 7면.

199) (4회:423면)

200) (4회:같은 면)

인용문은 ‘철학자로서의 병정이 가능한가’라는 유태림의 물음에 대한 이와사키 교수의 답변이다. 이와사키 교수도 유태림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반발보다 가면 쓰기를 통해 상황을 회피한다. 그러나 이와사키 교수는 일본인으로서의 병정도 가면 쓰기를 통해 가능하다고 보는 반면, 유태림은 병정으로서의 가능성을 상정하지 않는다. 유태림의 생각에 병정은 가면 쓰기를 통해 회피하더라도 필연적으로 타인의 생명에 대해 직접적으로 박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사키도 일본과 조선의 상황을 앞서 설명한 E와 고다씨와 같은 층위에서 판단한다. 이는 “착각이라면 전 세계가 착각 위에 서 있는 느낌이고 미신이라면 전 인류가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니 일본만을 가지고 할 얘기는 못된다.”²⁰²⁾라는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와사키는 그 권총을 보더니 그것을 두고 가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략)나만은 무기를 들지 않을 작정이다. 그 때문에 내가 죽을 경우를 당하더라도 이 신념만은 관철할 작정이다.(중략)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약속을 하자는 거다. 자기의 주의, 자기의 신념을 살리되 무기를 손에 들지 않고 하는 방향을 택하라는 뜻이다. 이건 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마하트마 간디를 보면 안다. 진실한 승리는 간디 또는 간디적인 실천을 통한 승리라야만 한다. (중략) 평화적 수단 이외의 수단으로 평화에 이르지 못한다. 평화를 위한 전쟁이란 기만이다. 전쟁을 통한 평화는 자네가 좋아하는 폴 발레리의 말따나 다른 형태를 취한 전쟁상태일 뿐이고 전쟁과 전쟁 사이의 간주곡일 뿐이다. 그러나 이런 나의 뜻을 모든 사람에게 강요할 생각도 없고(중략)”²⁰³⁾

위 인용문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된 후, 일본군으로부터 제대를 하려는 유태림에게 이와사키가 한 발언이다. 이를 통해, 이와사키의 의식이 해방을 기점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해방 전, 유태림에게 일본인으로서의 병정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해방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201) (4회:422면)

202) (4회:423면)

203) (4회:431-432면)

무기를 들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와사키에 따르면, 신념을 행하는데 있어 ‘간디적인 실천’이 아니면 또 다른 폭력을 낳기 때문에, ‘진실한 승리’가 되지 못한다. 평화적인 수단에 있어 무기는 필요없는 것이다. 또한, 이와사키 교수는 이와 같은 본인의 뜻을 ‘강요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 신념을 타인에게 설득함에 있어, 참여를 강요할 경우에 필연적인 배제를 일으키고, 총체적인 시각을 통한 세계인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와사키 교수는 알고 있었다. 유대림이 이러한 이와사키의 말을 따라 권총을 반납하는 것을 볼 때,²⁰⁴⁾ 이와사키의 말에 동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관부연락선』은 여운형의 암살과 관련해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²⁰⁵⁾ 여운형은 “우익으로 부턴 좌익으로서 적대시(敵對視) 당하고 공산당으로부터 반동시(反動視)당한 그 어렵고 복잡한 처지”²⁰⁶⁾에 있었다.

뭐니뭐니 해도 이승만 씨는 먼 곳에 있는 어른이었다. 김구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김규식 씨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지도자의 상과는 달랐다. 먼빛으로나마 한두 번 만나고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는 단순한 사정 때문일까, 노선과 사상은 달라 있다고 해도 어쩐지 가장 가깝게 느껴오던 지도자는 여운형 선생이었다.²⁰⁷⁾

인용문은 여운형에 대한 이선생의 생각이다. 이선생은 여운형보다는 이승만을 ‘민족이 갈 길을 명백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유일한 사람’²⁰⁸⁾이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우익인 이선생조차도 여운형 선생에 대해서는 “하나의 간악한 인간의 폭행이 어떤 지도자의 목숨을 끊고 그로 인해서 역사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다면 역사란 믿을 수 없는 일종의 자의(恣意)가 아닐까.”²⁰⁹⁾라고 하며 여운형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다. 유대림은 여운형의

204) (4회:432면)

205) (17회:422-429면)

206) (17회:423면)

207) (17회:같은 면)

208) (20회:398면)반면, 유대림은 이승만의 행동이 민족 분단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맹렬히 비난한다.

암살사건 후 “사흘 동안 학교엘 나오지 않았다.”²¹⁰⁾ 유태림의 이러한 모습은 여운형이 유태림이 추구한 중립의 의미에 대한 힌트로서 제시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1945년 11월 선구회에서 실시한 첫 여론조사에서 여운형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것으로 볼 때 그가 상당한 대중적 지지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²¹¹⁾ 여운형은 좌우합작에 의해서만 통일자주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²¹²⁾ 여운형에 의한 좌우합작시도의 좌절은 이승만, 한민당 등의 극우세력들과 박헌영을 주축으로 한 남로당의 극좌세력들 때문이었다. 1946년 1월 7일 한민당·국민당·인민당·공산당 대표가 간담회를 갖고 모스크바삼상회의에서 자주독립을 보장한다는 것은 전면적으로 지지하되, 신탁은 장래 수립될 우리 정부로 하여금 해결케 한다는 결정을 보았다(4당 커뮤니케).²¹³⁾ 이 합의는 해방정국에서 4당이 유일하게 합의를 보았다는 점에서도 역사적인 의의가 있고, 통일임시정부를 수립하는 데 가장 적절한 합의라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할만하다.²¹⁴⁾ 그러나, 4당 커뮤니케는 한민당과 국민당이 이탈하면서 무효가 되었다. 해방정국에서 우익들은 미군정에 기대어 본인들의 입지를 견고히 하고자 하였다. 조선공산당의 급진좌경화도 문제시되었는데, 특히 공산당의 급진좌경화가 소련 때문이라는 것은 더욱 더 큰 문제였다. 공산당은 미·소를 배제한 순수한 노동자·농민의 계급투쟁적 성격을 긍정한 것이 아니었다. 공산당이 소련의 지령을 받아 하루아침에 찬탁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대중으로 하여금 공산당이 소련에게서 전혀 독립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²¹⁵⁾ 따라서 “유태림의 말따라

209) (17회:423면)

210) (17회:424면)

211) ‘반다시 우리를 지도해야 할 인물은’이라는 제목의 여론조사에서 조선을 이끌어 갈 양심적 지도자와 생존 인물 중 최고의 혁명가 항목에서 모두 여운형이 1등이었다. 선구회는 우파 성향의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장차 조직될 임시정부 내각 명단에 추천된 인물은 좌익 여섯 명, 우익 네 명으로 좌익이 우익보다 많았다.(서중석, 앞의 책, 52-53면)

212) 서중석, 「국내 독립운동세력의 해방 후 국가건설방향」, 『大東文化研究』 56,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6, 289면.

213) 서중석, 앞의 책, 60면.

214) 서중석, 앞의 글, 18면.

215) 한규환, 「해방정국의 좌우합작과 민족통일전선」, 『마르크스21』 8, 2010, 228면.

조선공산당이 탁치를 지지하고 나선 것은 전술적 면만으로도 그들로 봐서 가장 큰 과오라고 아니할 수 없다.”는 이선생의 해석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유태림의 말대로 “공산당이 탁치를 반대하고 나섰더라면 그것이 우익의 독점물이 될 수는 없었다. 좌익이 지지하는 바람에 너희들이 싫어하는 친일파, 또는 민족반역자가 애국자연 할 수 있게 되어버렸다.”²¹⁶⁾

여운형식 좌우합작²¹⁷⁾의 좌절에는 극우 못지않게 이처럼 극좌도 큰 걸림돌이 되었다. 좌우를 막론하고 민족의사의 집결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유태림은 여운형의 죽음에 상당한 충격을 받는다. 여운형은 남북이 각각 단독정부 수립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민족통일전선론을 통해 미·소 양국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규한은 우익을 포괄하고자 한 점과 국가건설과정에서 미·소를 제외하지 못했던 계급협조적 노선 때문에 한국이 분단 자본국가가 되었다고 주장한다.²¹⁸⁾ 그에 따르면 좌우합작과 민족통일전선은 계급적 운동의 수위를 낮춘 결과가 되었을 뿐이다. 계급투쟁을 억제하는 노선은 결국 우익과 미군정에 유리하게 작용했다.²¹⁹⁾ 그러나 한규한의 논의는 스페인 인민전선이 프랑코에게 패한 이유를 계급투쟁적 노선이 약화되었던 요인으로만 지적한다는 점²²⁰⁾과 미·소 냉전의 전조가 보이는 상황에서 소련의 절대적 영향력에 있었던 북한을 고려하지 않은 점, 농민·노동자 중심의 계급투쟁을 통한 통일민족국가 건설을 정치한 설명없이 낙관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볼 때, ‘계급의식’의 특권화에 놓여있었던 극좌의 노선에서 벗어나있지 않다. 유태림이 여운형을 높

216) (15회:422면)

217) 여운형이 중심이 되는 좌우합작 논리는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최소강령주의’다. 민족 통일 국가를 건설하려면 다양한 계급을, 심지어 우익까지도 포괄해야 하므로, 강령 수준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고, 또 그래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둘째, ‘선 민족국가 건설, 후 계급투쟁’론이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민족 국가 건설이므로, 일단 국가부터 건설한 뒤에 체제 경쟁이나 계급투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급 간, 좌우익 간 투쟁은 민족을 분열시키는 행위이므로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협상을 통한 국가 건설론인 평화혁명론이다. 이는 계급 간 평화, 좌우익 간 정치협상으로 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일 뿐 아니라, 당시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고 있던 두 열강 간의 협상에 의존한다는 것이기도 하다.(한규한, 앞의 글, 207면)

218) 한규한, 위의 글.

219) 한규한, 위의 글, 239면.

220) 실제로, 스페인 인민전선의 다수 인사들은 공산당이 ана키스트들을 학살했던 사실에서 인민전선에 대한 신뢰를 거둔 경우가 많았다.

게 평가한 것은 여운형의 좌우합작과 민족통일전선론을 통한 한민족국가 건설의 가능성 때문이었다. 여운형의 ‘합리적인 신념’에서 배제되는 타자란 악질적인 친일파와 지주들과 같은 기회주의자들이었다. 여운형의 중립적인 성격은 『관부연락선』에서 가장 고평하는 인물유형이다.

기타 인물로 유태림의 친구 고맹수는 허무주의적 자유주의자의 전형을 보여준다. 그는 사형선고를 받은 한국인 포로 감시원 약 5백 명을 탄원하려고 노력했던 학병 출신 인물이다. 고맹수가 감시원 석방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그들의 사형이 집행되고 말았다.²²¹⁾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맹수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의 힘을 빌릴 필요도 없고, 국가니 민족이니 들먹일 필요도 없고, 어떤 정당과 정파에 가담할 필요도 없고 그저 내자신이 고독을 보물처럼 지키면서 생명이 있는한 살아야겠다.”²²²⁾고 다짐한 인물이다. 그는 현실에 실망을 한 나머지, “지리산 밑에 묻혀서 내 마누라와 함께 개간(開墾)이나 하고 살려고”²²³⁾ 하는 전형적인 허무주의적 자유주의자이다.

유태림의 친구 허봉도는 나약하고 똑똑하지 못하며 남에게 쉽게 휩쓸리는 인물이다. 민족을 위해 멋있게 살고자 하는 허봉도는 예리한 판단과 현실감각이 떨어지는 인물로 그려진다. 허봉도는 그의 일본군에서의 탈출을 돕고자 했던 중국인 부부가 사살되자, 미쳐버린다.²²⁴⁾

이처럼 『관부연락선』은 중립적인 시각으로 다양한 인물군을 일제 말기와 해방기를 통해 제시한다. 이를 통해 진정한 기회주의를 유형화해낸 점이 『관부연락선』의 큰 성과라 하겠다. 또한, 이러한 중립적인 시각으로 일제 강점기부터 해방기라는 한국현대사를 총체적으로 바라보려고 했던 이병주는 당대 문인들과 차별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을 통해, 중립적인 일본인도 유형화해낼 수 있는 만큼, 중립의 시선은 총체적인 시각의 구현에 있어 탁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절대화’된 관점으로는 기회주의를 유형화해낼 수 없기 때문에 기회주의를 제외한 주체적인 개인을 진보라는

221) (17회:420면)

222) (17회:같은 면)

223) (17회:421면)

224) (3회:433-439면)

명목 하에 배제시키기 쉽다.

3. ‘방향’으로서의 사랑

『관부연락선』에서 서사화되는 사랑은 ‘대상’보다 ‘방향’에 주목해서 해석되어야 한다. 흔히, 사랑이라고 하면 ‘대상’의 중요성에 대해 주목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관부연락선』은 사랑의 ‘방향’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대상에 주목한다면 사랑은 필연적으로 배타성을 띠기 때문이다. 『관부연락선』에서 보여주는 사랑은 배타적인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관계하는 방향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받는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여러 가지 사랑의 형태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²²⁵⁾ 『관부연락선』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 제자-스승 간의 사랑, 동료에 대한 사랑, 민족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난다.

사랑은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는 아니다. 사랑은 한 사람과, 사랑의 한 ‘대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세계 전체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태도’, 곧 ‘방향’이다. 어떤 사람이 다른 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나머지 동포에게는 무관심하다면, 그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공서적 애착이거나 확대된 이기주의다.²²⁶⁾

2장에서 분석한 중립은 사랑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 사랑은 중립적인 시선으로 유형화된 인물들의 행동의 방향을 예각화해 준다. 성숙한 사랑은 개인의 개별성과 집단과의 일체성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동력이다. 성숙한 ‘사랑’은 ‘자신의 통합성’, 곧 개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의 합일’이다. 사랑은 행동이며 인간의 힘을 행사하는 것이고, 이 힘은 자유로운 상황에서만 행사할 수 있을 뿐, 강제된 결과로서는 결코 나타날

225) 에리히 프롬, 『사랑의 기술』, 앞의 책, 70면.

226) 에리히 프롬, 위의 책, 69면. 만일 내가 참으로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게 된다. 만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나는 당신을 통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당신을 통해 세계를 사랑하고 당신을 통해 나 자신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위의 책, 70면)

수 없다.²²⁷⁾ 중립적 인물들의 성숙한 ‘사랑’을 통한 합일은 합리적으로 여겨지는 해방기 좌·우익의 ‘일치에 의한 합일’과 구별된다. 개인의 주체성과 집단의 통합성을 함께 추구하는 ‘성숙한 사랑’의 방향을 통해 중립적인 시선의 방향이 예각화 될 수 있다. 중립의 선택은 중립 자체에 대한 선택이라기보다 중립에 대한 욕망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욕망 자체가 방향성을 상징하는데, 사랑의 방향은 중립의 방향을 개인의 주체성과 집단의 통합성을 함께 이룰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한다.

중립적인 시선은 기회주의를 유형화함으로써 배제될 수 있는 ‘타인’의 유형을 가시화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중립적인 시선은 궁극적으로 타자와의 ‘관계’에 주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중립에 대한 욕망은 개별적이고 환원불가능한 것들에게 진리의 가치를 부여하고 재구성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립은 변화하는 통합성에 결합될 수 있는 원리를 제시하지는 못한다. 공동체의 실재적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중립적 입장으로 가능한 ‘편위’적 움직임²²⁸⁾의 원리에 대한 언급이 필수적이다. ‘사랑’의 방향은 이러한 원리 설정에 도움을 준다. 성숙한 사랑의 대표적인 요소로 인간 소외 거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중립과 사랑은 상호보완관계라고 할 수 있다.

3.1. 인물 형상화 방식을 통해 드러나는 ‘방향’으로서의 사랑

『관부연락선』은 중립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하여 일제 강점기와 해방기에 걸쳐 유태립이라는 인물을 형상화하였다. 유태립의 행적과 유태립의 인물 형상화 방식을 통해 이분법적으로 환원되었던 개별주체들에게 진리의 가치를 부여하고, 기회주의를 유형화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유태립은 기존의 패러다임에 대한 제3의 변증법적인 향으로 중립²²⁹⁾을 설정하였고, ‘중

227) 에리히 프롬, 위의 책, 38-40면.

228) 칼 마르크스, 앞의 책, 71-82면.

229) 롤랑 바르트, 앞의 책, 37면. 앞서 설명하였듯이 그렇다고 해서 두 가지의 향이 전제되어야만 중립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중립의 변증법적인 향은 항상-언제나 발동되는

립'적 입장은 기회주의형 인물을 제외한 인물들과의 대화와 토론을 통한 해결방안모색의 적극적인 입장임을 밝혔다.

『관부연락선』이 중립을 드러내기 위해 유태림을 형상화하였다면, 『관부연락선』은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서경애를 형상화하였다. 서경애를 둘러싼 사랑의 서사는 『관부연락선』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앞서 2장에서 설명했듯이, 서경애는 철저한 좌익투사로 그려진다. 서경애는 1946년 10월 대구에서 일어났던 시월항쟁의 선두에 섰다. 그녀는 유태림에게 “인민이 인민답게 잘살려고 노력하는 방향을 방해하시질 말라”²³⁰⁾고 주문하며 좌익 지도자들을 “일제 때부터 항거운동을 해온 지도자들의 두뇌”²³¹⁾라고 고평한다. 이선생은 유태림을 만나러 온 서경애를 1946년 여름에 첫 대면한다. 다음의 인용문은 이선생의 서경애에 대한 첫인상이다.

베이지색 사야지의 투·피이스를 입은 이십오륙세 가량의 여인. 당시로선 호사스러운 그 차림엔 어울리지 않게 화장기(化粧氣)라곤 전연 없는 얼굴이었다. 어떻게 보면 시골티가 풍기는 거므스레한 얼굴빛이기도 했다. 그러나 잠깐 대좌(對坐)하고 있는 동안에 그 시골티가 말쑥히 가셔지고 뭘지 모르게 높은 기품(氣品)이 느껴지는 것이니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²³²⁾

이선생은 서경애를 “뭘지 모르게 높은 기품이 느껴지는”²³³⁾ 인물이라고 평가한다. 서경애는 『관부연락선』에서 이선생의 시선을 통해 고귀한 인물로 그려진다. 이선생과 두 번째 대면에서도 서경애는 이선생의 시선을 통해 “촌스럽게 꾸며진 최영자의 방에서 진회색 울 복지의 슈트를 입고 단정히 앉은 서경애의 몸 언저리에만 향긋이 세련된 도시풍의 공기가 서려 있는 느낌”²³⁴⁾이라고 묘사된다. 서경애는 이선생의 약혼자 최영자와의 비교를 통해 더욱 고평된다. 이선생은 “그러한 경애와 나란히 앉아 있는 최

기재이다.

230) (10회:393면)

231) (10회:같은 면)

232) (2회:429면)

233) (2회:같은 면)

234) (10회:387면)

영자를 보는 것은 고통스러웠다. 같은 나이 또래이고 학교를 말해도 같은 정도의 교육을 받았을 것인데 저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하는 한탄이 솟았다”²³⁵⁾고 생각한다. 서경애와의 만남은 이선생에게 있어 최영자와의 약혼을 해소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직접적으로 이선생이 최영자와의 약혼을 해소하게 된 원인은 유태림과 최영자가 본인도 모르게 단독정부반대 연판장을 작성한 것 때문이다. 하지만, 이선생-최영자의 약혼은 계기만 있다면 언제든지 해소될 것이었다. 이선생은 “최영자에의 나의 정열이 식게 된 동시에 서경애라는 여자가 있다고 해도 당돌한 말은 아니다. (중략) 최영자도 서경애가 나타나서 유태림에 대한 열렬한 사랑 얘기를 한 것을 듣고 뒤이어 유태림을 알고 그와 나와를 비교해보는 버릇이 들면서부터 내게 대한 정열이 식어간 것이 틀림이 없었다.”²³⁶⁾ 라고 회상한다. 『관부연락선』은 서경애의 인물가치를 높이기 위해 이선생과 최영자간의 약혼도 해소시켰다.

『관부연락선』에서 좌익인 서경애가 고귀한 인물로 묘사되는 이유는 서경애의 형상화를 통해 『관부연락선』 자체의 중립적인 위치를 확보하고자 함이다. 『관부연락선』에서 주인공인 유태림은 중립적인 인물로, 이선생은 우익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M선생과 같은 좌익투사도 고귀한 인품을 가진 인물로 그려진다. 하지만, M선생은 유태림의 시선을 통해 하나의 인물 유형화 방식으로만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M선생은 이선생과 유태림의 행동변화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해방기 소설의 전체적인 구도는 우익인물의 시점을 통해 중립적인 인물을 드러내는 방식이다. 따라서 『관부연락선』의 인물 형상화 방식은 한편의 이데올로기에 편승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쉽다. 하지만, 『관부연락선』은 철저한 좌익투사인 서경애를 고귀한 인물로 형상화한다. 또한, 서경애는 이선생과 유태림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다. 이선생은 좌익을 혐오하는 철저히 우익적인 인물이다. 그러나, 서경애에 대해선 이러한 혐오감을 느끼지 않는다. 유태림도 지리산으로 향하는 서경애를 설득하여 그녀를 지리산에 가지 못하게 한다. 유태

235) (10회:같은 면)

236) (10회:388면)

림이 학생과 친구를 제외한 인물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를 소설에서 비중있게 서사화한 것은 서경애가 유일하다.

서경애의 인물 형상화는 『관부연락선』의 좌익비판의 초점이 좌익자체라기보다 좌익의 폭력성을 향해있다는 방증이다. 또한, 서경애의 배치는 전체적인 소설 구도의 시선이 우익 인물인 이선생과 대비하여 좌익인 서경애를 전면적인 서사에 고귀한 인물로 내세움으로써 이념을 넘어선 화해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러한 서경애를 통해 『관부연락선』은 한편의 이데올로기를 대변한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있다. 이를 통해 중립적인 인물 유태림, 우익인물 이선생과 좌익인물 서경애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서사는 『관부연락선』 자체가 중립적인 텍스트임을 강조하기 위한 이병주의 기법적 측면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경애-이선생-유태림의 구도로 이루어지는 사랑의 서사는 통념적인 사랑의 서사를 넘어서 있다. 통념적인 사랑의 경우는 고맹수-일본여자가 잘 보여준다. 고맹수는 일본의 M대학 야간 전문부에 입학하여 자기가 속해 있는 과의 과장의 딸과 연애를 하게 되었다. 1944년 대학생이던 고맹수도 학병지원을 피할 수 없었다. 고맹수는 나남(羅南)에 있는 사단에 입영했다. 고맹수가 떠나고 난 뒤 그의 애인이 고맹수의 집으로 왔는데, 고맹수의 집은 허물어져 가는 초가집이었으며 맹수의 부모는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초라하게 살고 있었다. 맹수의 애인인 그 일인 여성은 가난한 맹수의 집에 그냥 눌러앉았다.²³⁷⁾ 다음의 인용문은 고맹수와 그의 애인의 행적을 보여준다.

맹수의 부모는 그 일인 며느리를 한사코 돌려보내려고 애썼다. 그 면의 일인 순사, 일인 교장, 그 밖의 일본인들이 번갈아 찾아와서 자기들의 체면을 보아주는 셈치고라도 일본으로 돌아가도록 회유도 하고 강권도 하고 위협도 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움직이지 않았다. 자기가 지니고 온 얼마간의 돈으로 논과 밭을 두락두락 사놓곤, 농촌 여자들도 엄두에 내지 못할 정도로 일을 하기 시작했다. 한복으로 갈아입곤 물동이를 이는 동작부터 시작해서 논밭의 김을 매

237) (17회:411면)

고 소를 치는 것은 물론 남의 품앗이도 하고, 누에도 치고 삼을 쪼개는 길쌈까지도 사양하지 않았다. (중략) 해방이 되었다. 그러나 그 여성은 맹수가 돌아와서 뭐라고 하기까진 그 집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1945년이 지나도 맹수에게선 소식이 없었다. (중략) 그 여인이 떠나는 아침 온 동리의 여자들이 몰려와서 울음바다를 이루었다. (중략) 맹수가 버마에서 돌아온 것은 8월 초순이었다. 돌아오자 이 사실을 안 맹수는 하룻밤을 집에서 묵곤 그 이튿날 새벽 부산으로 떠났다. 부산엘 가서 일인 수용소를 뒤졌으나 그 여인은 없었다. 한 달쯤 전에 일본으로 건너가버린 것이었다. 맹수는 갖은 수단을 다해 일본으로 밀항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1년 동안 도쿄에 있다가 그 여자를 데리고 귀국한 것이다.²³⁸⁾

인용문에서 고맹수의 애인은 고맹수가 학병으로 떠나자 조선으로 입국하여 고맹수의 고향에서 고맹수를 기다리며 조선에서 부인이 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그녀는 “한복으로 갈아입곤 물동이를 이는 동작부터 시작해서 논밭의 김을 매고 소를 치는 것은 물론 남의 품앗이도 하고, 누에도 치고 삼을 쪼개는 길쌈까지도 사양하지 않았다.”²³⁹⁾ 고맹수 또한, 귀향하자마자 부인을 찾아 부산의 일인수용소를 방문하고 일본으로 밀항하여 부인을 찾아내는 데 성공한다. 이처럼 남녀 간의 헌신적인 사랑의 경우는 고맹수와 일인여자가 잘 보여준다. 고맹수와 일인여자의 사랑은 ‘대상’간의 헌신적인 사랑의 경우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사랑의 유형에서는 ‘방향’으로서의 사랑을 찾아내기 힘들다. 고맹수와 일인여자의 사랑은 단지, 남녀 대상간의 배타적인 사랑일뿐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서경애-유태림-이선생 사이에 진행되는 사랑의 서사는 ‘방향’으로서의 사랑을 잘 보여준다. 이선생은 서경애를 사랑하며, 서경애는 유태림을 사랑한다. 기본적으로 이들의 사랑도 각각 ‘유태림’, ‘서경애’라는 대상에 대한 사랑이다. 하지만 대상에 대한 배타성을 넘어선 통합의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방향으로서의 성숙한 사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초가 된다. 이선생은 유태림을 사랑하는 서경애를 사랑하면서, 실력 뿐만이

238) (17회:411-412면)

239) (17회:412면)

아닌 사랑에 있어서도 유태림에게 열등감을 느낀다. 이처럼 이병주는 중립적인 인물형에 과도한 매력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최영자도 유태림이라는 중립적인 인물형에 매력을 느끼고, 서경애 또한 유태림을 사랑하는 인물이다. 중립적인 인물형의 뛰어난 우익인물의 실력적인 열등감과 더불어 사랑에서의 열등감으로 인해 또 한번 부각된다. 유태림은 이미 결혼한 몸이기에 서경애와의 사랑은 성사되지 못한다.

해방이 되었다. 유태림이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그 소녀와의 문제였다. 어떤 수단으로든 이혼을 하고 그 소녀에게 구혼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태림이 상해에 있을 적에 이 뜻을 몇몇 친구들에게 전하고 의논했다. 친구들은 모두들 협력하겠다고 나섰다. (중략) 귀국하자마자 쇠뿔은 단김에 빼야 한다는 격으로 서둘렀다.

“고향에 돌아와서 집엘 들어서자 중문中門에 서서 내 가방을 받으며 울음을 터뜨린 여자가 있었다. 그것이 내 아내였다. 나는 아내가 친정에 있지 않고 우리집에 와 있을 줄은 꿈에도 예상하지 않았었다. 나를 남편이라고 해서 수년이란 세월을 기다린 아내란 생각이 일자, 그 순간 나의 결심은 무너졌다. 내가 뭐 잘했다고 이혼을 하느니 마느니 할 수 있을까. 일본군에서 온갖 압제도 받고 살아왔는데 해방되고 광복된 내 나라에선 웬만한 일쯤은 참고 견디며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때부터 나는 그 소녀를 내 마음속에서 말쑥이 지워 버리기로 했다.²⁴⁰⁾

인용문을 통해 유태림의 결혼은 사랑의 감정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의 결혼은 집안과 집안끼리의 결혼이었다. 서경애와의 사랑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타자, 유태림의 부인이 필수적으로 배제되고 소외될 것이다. 유태림은 서경애와의 사랑과 부인과의 의리 사이에서 고민하지만, 결국에는 부인과의 의리를 택한다. 이러한 유태림의 행동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부인과의 의리를 선택했다기보다 선택을 ‘당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유태림이 적극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이 결국엔 부인과의 의리를 선택한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적

240) (10회:386면)

극적으로 선택하지 않는 유태림의 행동은 독자에게 열린 판단을 하도록 유도하는 작가의 서사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서경애와의 비극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뛰어난 서술기법이라고 평가될 만하다. 『관부연락선』은 유태림과 서경애의 비극을 통해, 개인을 무시한 전통적 결혼관을 문제시함으로써 집단으로 인해 희생되는 개인을 ‘결혼’이라는 전통적인 제도를 통해서도 보여준다.

서경애의 오빠와 유태림은 일본 교토 S고등학교의 동기동창이다. 서경애와 유태림의 만남은 서경애의 오빠 병문안에서 시작됐다. 병문안이 계기가 되어, 도쿄에서 서경애는 1주일에 한번 꼴로 유태림의 하숙에 놀러가게 되었다. 서경애는 유태림의 하숙에서 미하일 이린의 책을 가지고 나와 읽다가 경찰에게 붙들려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된다.²⁴¹⁾ 서경애가 모진 고문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유태림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 서경애는 “모도후 지서의 감방에서 「가마다」라는 중년여성(中年女性)을 만났다.”²⁴²⁾ “어떤 사상관계(思想關係)로 들어온 이 여자도 심한 고문을 연일(連日) 받고 있는 형편”²⁴³⁾이었는데, 그 여자는 서경애에게 다음 인용문과 같이 말한다.

“보아 하니 당신도 어떤 남자 때문에 이 고비를 당하는 것 같소. 사상(思想)보다도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사랑이다. 당신은 당신의 사랑을 시련(試鍊)을 통해서 키워야 한다. 사랑이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험준(險峻)한 산을 넘는다는 뜻이다. 광풍노도(狂風怒濤)에도 뛰어들다는 뜻이다. 이 세상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사랑을 당신은 당신의 시련을 통해서 겪는다는 자부(自負)를 가져라. 누구도 가꾸보지 못했고 가꾸지 못한 사랑을 당신은 이 고통을 통해서 가꾸어 보겠다는 긍지(矜持)를 가져라.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평화롭게 살아야만 유지(維持)되는 그 따위 사랑은 근처에도 접근할 수 없는 고귀(高貴)한 사랑이 이 세상에, 이 인생(人生)에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증명해야 한다. 짐승과 사람이 싸우다가 사람이 짐승에게 잡혀 먹힐 수도 있다. 그러나 힘이 모자라 잡혀 먹히는 것과 힘이 있는데도 굴복하는 것과는 다른 거다. 굴복하면 개처럼 거꾸러지는 거고 잡혀 먹는 것

241) (2회:431-432면)

242) (2회:435면)

243) (2회:같은 면)

은 당당(堂堂)한 전사(戰死)다. 어떻게 죽어도 죽는 건 마찬가지로 생각해선 안 된다. 사랑의 극한(極限)에서 죽는 것과 굴욕의 나락(奈落)에서 죽는 것과는 승리(勝利)와 패배(敗北)만큼 다른 거다. 우리가 여기서 굴복하지만 않으면 살아 나가도 승리자, 죽어도 승리자다. 굴복을 하면 살아나가도 패배자, 죽어도 패배자다. 부디 당신은 이 시련 속에서 당신의 사랑을 위대하게 가꿔라...
...”²⁴⁴⁾

인용문에서 가마타라는 여성은 서경애에게 시련을 통해서 사랑을 키워야 한다고 말한다. 가마타에 따르면, “사랑의 극한에서 죽는 것과 굴욕의 나락에서 죽는 것과는 승리와 패배만큼 다른 것”²⁴⁵⁾이다. 가마타는 서경애에게 “이 시련 속에서 당신의 사랑을 위대하게 가꾸”²⁴⁶⁾라고 말한다. 이러한 가마타의 조언을 듣고 서경애는 “비록 일방적일망정 유태림에게의 사랑을 키우고 가꾸기로”²⁴⁷⁾ 한다. 서경애의 유태림에 대한 사랑은 ‘유태림’이라는 관념 속의 인물에 대한 사랑이다. 서경애는 이선생에게 “전 상상 속에서 유태림 씨란 인물의 이미지를 키워왔을 뿐예요. 그땐 실제의 유태림 씨와 겹쳐진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을 뿐이지요. 제가 상상 속에 키워온 그 사람과 실제의 그 사람과 겹쳐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 다음에야 제게 의미가 있는 것은 상상 속의 인물이지 실제의 인물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전연 판사람이예요.”²⁴⁸⁾ 라며 유태림에 대한 사랑의 정체를 밝힌다. 그녀가 사랑한 ‘유태림’은 인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을 긍정하는 유태림이다. 실제의 유태림은 중립적인 인물이며, 서경애는 관념적인 유태림에 대한 사랑을 지향한다. 서경애가 긍정하는 관념적인 ‘유태림’에 대한 사랑은 ‘방향’으로서의 사랑을 잘 보여준다. 서경애는 ‘좌익의 방향’을 따르는 인물이다. 서경애에게는 ‘계급모순’을 자각하지 못하는 인물들은 모두 반동분자라는 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중립적인 인물인 실제의 유태림은 서경애에게 사랑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2장에서 충분히 논의했듯이

244) (2회:435-436면)

245) (2회:436면)

246) (2회:같은 면)

247) (2회:같은 면)

248) (12회:386면)

좌익사상은 기회주의를 제외한 인물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서경애의 방향으로서의 사랑은 이러한 점에서 한계를 노정한다. 좌익사상은 해방기에서 성숙한 사랑을 통한 합일보다는 일치에 의한 합일의 사례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소설의 문제적인 지점은 유태림의 실종과 함께 유태림을 찾아 나선 서경애도 실종처리함으로써 서경애가 결국에는 실재의 유태림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점이다. 서경애는 빨치산에게 납치당한 유태림을 찾으러 갈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긴 후 사라지고 1967년에도 소식을 알 수 없다.²⁴⁹⁾ 또한, 서경애는 유태림에게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일 핑계를 대며 유태림의 소식을 들으러 C시로 찾아온다. 이러한 사실은 ‘관념으로서의 유태림’만을 사랑한다는 서경애의 발언으로 주목되지 않는다. 하지만, 실종된 유태림을 찾다가 같이 실종처리되는 서경애를 통해 보았을 때, 그녀가 ‘실재의 유태림’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이렇게 밝혀진 서경애의 사랑은 유태림이라는 대상에 대한 사랑이지만, 서경애의 사랑을 대상만을 위한 배타적인 사랑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 서경애는 유태림을 사랑하면서 대상으로 인한 타인에 대한 배타성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서경애가 보이는 배타성은 유태림이라는 대상때문이라기 보다 계급의식의 자각이라는 방향으로 인해 나타난다. 프롬은 성애는 배타적이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 전 인류를, 모든 살아 있는 자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하였다.²⁵⁰⁾ 서경애의 유태림에 대한 사랑을 이러한 사랑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배타적인 사랑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관부연락선』이 서경애의 유태림이라는 대상에 대한 사랑을 보여준 것은 ‘사상’으로 환원되지 않는 진실의 부분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또한, 그러한 진실이 중립적인 가치에 있음을 서경애의 사랑을 통해 또 한번 드러낸다.

서경애는 끝끝내 좌익세력이 승리하리라고 믿고 있다. “다른 사람이 그 따위 소릴 하면 나는 분격에 사로잡힐게 뻔한”²⁵¹⁾ 이선생은 “서경애의 입을 통하면 그런 말을 들어도 성이 나지 않는다.”²⁵²⁾ 유태림의 안부가 궁금

249) (23회:430면, 24회:426면)

250) 에리히 프롬, 『사랑의 기술』, 앞의 책, 80면.

251) (21회:397면)

하여 찾아온 서경애는 이선생과 산책 도중에 이선생에게 C시에 체류할 때 사용할 가짜 신분증을 보여준다. 이선생은 서경애와 산책을 하면서 그의 머릿 속엔 “가짜 증명서를 가진 위험한 여자와 공범으로서 행동하고 있다는 의식으로 꽂차 있었다”²⁵³⁾ 이선생은 이러한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이 서경애가 아니었다면 어림도 없는 일”²⁵⁴⁾이라고 생각한다.

“서경애가 좌익이라는데 일순 가슴이 섬뜩했으나 다른 부류에서와는 달리 적개심이 솟지 않는”²⁵⁵⁾ 이선생은 결국엔 스스로 “모든 가치에 우선하는 것이 사랑이 아닐까요?”²⁵⁶⁾라고 반문하게 된다. “이 여자와 결혼하지 못하는 한 나는 평생 독신으로 지내리라.”²⁵⁷⁾고 다짐했던 이선생은 서경애에게 고백을 하려던 찰나, 눈치를 챈 그녀의 만류로 인해 끝내 고백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선생이 보여주었던 서경애에 대한 사랑은 이념을 넘어선 사랑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선생의 사랑은 이념을 넘어선 非배타적인 사랑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철저한 우익적인 인물인 이선생이 투철한 좌익투사인 서경애에 대해 사랑의 감정을 갖기 때문이다. 이선생은 서경애의 좌익적 측면보다는 서경애의 좌익으로 환원되지 않는 개인적인 측면에 매력을 느낀다. 이러한 사랑은 개별적이고 환원불가능한 것들에게 진리의 가치를 부여하는 ‘중립’과 통한다. 이러한 사랑은 이념을 넘어선 화해의 가능성을 담지한다. 하지만, 이선생의 서경애에 대한 사랑은 결국 실패한다. 이러한 사랑의 실패는 해방기 좌우익 진영논리의 대화 불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념을 넘어선 개인 간의 유대 가능성만으로도 사랑을 바탕으로 한 대화의 가능성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정리하자면, 『관부연락선』은 유태림이라는 중립적인 인물과 이선생이라는 우익적인 인물에 대응되는 서경애라는 고귀한 좌익인물을 형상화한다. 서경애를 둘러싼 유태림과 이선생의 사랑을 통해 『관부연락선』은 ‘방

252) (21회:같은 면)

253) (21회:400면)

254) (21회:같은 면)

255) (10회:389면)

256) (12회:387면)

257) (22회:419면)

향’으로서의 사랑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사랑들은 모두 실패한다. 이 선생의 서경애에 대한 사랑을 통해 우익의 좌익에 대한 사랑을 드러냄으로써 이념을 넘어선 화해가능성을 보여주지만, 이는 결국 실패함으로써 좌우익의 대화 불가능성을 담지한다. 유태림과 서경애의 사랑도 실패한다. 유태림-서경애의 사랑은 중립적인 인물과 좌익 인물 간의 사랑의 실패를 의미한다. 이는 좌익의 ‘방향’으로서의 사랑의 한계를 첨예하게 드러내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이를 통해 『관부연락선』은 개인의 주체성을 억압하는 전통적인 결혼제도의 문제점도 지적해낸다.

3.2 인물 간 사랑의 다양한 형태·양상과 ‘성실함’의 정체

사랑의 형태는 남녀 간의 사랑, 제자-스승 간의 사랑, 민족에 대한 사랑, 동료에 대한 사랑, 자식-부모 간의 사랑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랑의 형태는 양상에 따라 배타적인 사랑과 성숙한 사랑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배타적인 사랑은 좌익교사-제자 간의 사랑, 좌·우익의 민족에 대한 사랑, 좌·우익의 동료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난다. 좌익교사와 제자간의 사랑은 C고등학교의 학생대회에서 잘 드러난다. 동지적인 유대관계로 묶인 그들은 좌익사상을 신봉하지 않는 자에게는 배타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들에게 있어서 배제된 상대에 대한 폭력은 정당화된다. 좌익교사들은 학생대회를 폭력으로 방해했던 정삼호와 임홍구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다. 좌익계열 학생들 단체인 학생동맹은 다음 학생대회를 여는 과정에서 반대했던 소수의 화랑동지회의 학생들을 집단으로 폭행하는데, 좌익교사들은 이에 대해 침묵한다. 유태림은 “테러가 잘못이라면 왜 학생동맹이 집단폭행을 해서 중상자를 낸 사건은 흐지부지해 두느냐. 수백 명을 상대로 한 행위는 테러가 되고 어린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한 행위는 테러가 아니냐.”²⁵⁸⁾라고 반문한다. 또한, “혁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일사부재리를 운운하는 것은 가소롭다. 국가도 혁명할 수가 있고 헌법도 수정할 수가 있지 않느냐. 나쁜 결정

258) (7회:402면)

은 백 번을 반복해도 좋고 옳은 교육은 한 번 결정했다는 그런 형식에 사로잡힐 수가 없다.”²⁵⁹⁾ 라며 좌익의 이중성을 꼬집는다.

좌·우익의 민족에 대한 사랑 또한,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 성실한 좌익과 우익은 민족을 위해 나아갈 길을 고민한다는 데에서 동질성을 갖는다. 하지만,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좌·우익 모두 이러한 차이를 서로 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선생과 이광열은 좌익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이선생과 이광열은 시종일관 좌익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로 일관한다. 이광열은 유태림의 집에서 좌익인사 박창학과 강달호에게 “신탁통치 지지니, 소련을 조국시(祖國視)하는 비뚤어진 심정을 버리기만 하면 사태가 똑똑히 될 테니까, 그런 것을 버리란 말이다. 비뚤어진 거울은 대상을 비뚤어지게만 비추게 마련 아닌가.”²⁶⁰⁾ 라고 말한다. 우익에게 있어 좌익은 소련을 통해 자신들의 신념을 실현하려고 하는 현실성 없는 이상주의자라고 여겨졌다. 성실한 좌익이 소련에서 행해졌던 혁명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오직 조선의 ‘계급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였다는 것을 우익은 인정하지 않는다. 좌익 또한 우익과 마찬가지로 자주적인 민주국가 건설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었고, 그러한 방향의 제일의 목표를 조선내 계급모순의 해결로 보았던 것이다. 하지만, 우익은 좌익과 소통하지 않으려고 한다. 우익이 파악한 세계정세를 통해, 우익은 조선반도에서는 단독정부수립을 통한 우익정권의 수립만이 조선민족만의 자주적 정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보았다. 좌익과의 소통을 배제했던 이러한 우익의 태도 또한, 단독정부 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좌익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계급모순’에 반대되는 모든 행위를 반동시한다. 이와 더불어, 앞서 2장에서 보았듯이 공산당이 소련의 지령을 받아 하루아침에 찬탁으로 입장을 돌변시킨 것은, 대중으로 하여금 공산당이 소련에게서 전혀 독립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²⁶¹⁾ 공산당은 자신들과 이념적으로 반대되는 타자들을 포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좌·우익의 배타적인 민족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한반도는 결국 단독정부

259) (7회:같은 면)

260) (16회:379면)

261) 한규환, 「해방정국의 좌우합작과 민족통일전선」, 『마르크스21』 8, 2010, 228면.

수립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좌익의 동료에 대한 사랑 또한, 이러한 맥락에 위치해 있다. 실력없는 좌익 K교사로 하여금 실력있는 우익 B교사의 뺨을 때리게 하여 B교사가 학교를 그만두게 만들도록 책동한 좌익교사들의 행동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바르트는 기존 철학의 개념을 기본 지식이 아니고, 지닌 의미에 대한 강요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이와 같은 ‘강제적 입장’은 철학의 오만이다.²⁶²⁾ 해방기 좌·우익의 신념의 ‘강요’는 좌·우익의 오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타자와의 소통 가능성을 억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단독정부수립에는 극좌·극우에 속하여 본인의 일신 영달을 위해 행동했던 기회주의자들의 역할이 가장 컸다고 할 수 있다.

성숙한 사랑은 유태림이 보여주는 제자-스승, 동료, 민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유태림의 아버지가 보여주는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난다. 유태림이 보여주는 제자-스승 간의 사랑은 『관부연락선』에서 유일하게 성공하는 사랑의 유형이다. 유태림과 제자 간의 관계는 앞서 2장에서 언급했듯이, 탈식민교육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지배와 복종의 수직적 교사-학생의 장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태림은 교수 방식에 있어서 탈식민적 교사의 적절한 모습을 보여준다.²⁶³⁾ 지배와 복종의 수직적 관계의 탈피는 곧 수평적인 대화와 토론으로 이어진다.

서로 설득하고 서로 이해해서 일치시키는 데까진 우리의 의견을 일치시켜볼 필요도 있는 것이다. 문제는 같이 배우자는 게다.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배우고 나는 여러분을 통해서 배운다. 교사와 학생은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관계를 통해 다같이 보다 옳고 보다 착하고 보다 아름다운 것을 배워나가자는 신분인 것이다.²⁶⁴⁾

인용문은 유태림의 교사적 자질을 잘 보여준다. 유태림에 따르면 교사와 학생은 서로가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에 놓여있다. “유태림은 학생을 이끌고 갈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서 우선 학생들의 일반적 상황을 분

262) 롤랑 바르트, 앞의 책, 303면.

263) 최현주, 「탈식민주의 문학교육과 이병주의 『관부연락선』」, 앞의 글.

264) (15회:411면)

석하고 파악해 보도록 애썼다.”²⁶⁵⁾ 그의 교육적 태도는 성숙한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다. 프롬에 따르면, 성숙한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선 사랑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한다.²⁶⁶⁾ 유태림은 값진 애국과 혁명가가 되기 위해서라도 학문을 해야한다고 역설한다. 그에 따르면 무명의 인사보다 유명한 인사로서 애국하는 길이 훨씬 유익한 길이며, 학문을 하지 않은 혁명가는 혁명이 성공해도 재료로 쓰이는 인간밖엔 되지 못한다.²⁶⁷⁾ 태림은 일반적으로 본인의 지식을 학생들에게 주입하지 않았다. 유태림은 “소위 소크라테스의 방법”²⁶⁸⁾을 통해 학생들과의 대화를 시도했다. “예를 들어 사회

265) 월등하게 두뇌가 좋은 학생들은 왕성한 지식욕을 해방 직후 조잡하게 출판되어 나오는 팜플릿을 읽는 것으로 충족시켜왔다. 그런 팜플릿은 대부분 좌익계열에서 출판한 것이어서 독서를 즐기는 학생들의 동향이 자연 그런 방향으로 쏠리게 된 것도 당연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좌익적 팜플릿은 종래학교에서 얻은 지식을 부정하는 매력을 지니고 있어 이것이 또 학생들의 구미를 돋우었다. 그런 팜플릿만 읽고 모임에 나가서 토론을 하면 일류의 지식인 행세를 할 수 있는데 학교 과목을 두고 따지면 스스로의 무식을 자각하지 않을 수 없는 판이니, 그들의 자존심을 지탱하기 위해서라도 학교의 수업을 경멸해야 된단 말이다. 게다가 일제교육에 대한 반발이 또 있다. 심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일제 때의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교사들은 예외 없이 무능해보였다고 해도 무리가 아닌 얘기다. 무엇보다도 좌익 계열의 팜플릿을 읽고 어떤 조직에 들기만 하면 전도 유망한 청년으로서의 대접을 받고 애국자로서 행세할 수 있다는 게 커다란 감동이었고 생생한 현실 속에 뛰어들어 활동함으로써 역사창조(歷史創造)에 직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신선한 매력이 아닐 수 있겠는가. 그래 놓으니 밤잠 안 자고 돌아다니며 뼈라를 붙이고 산을 넘어 연락을 하고 신이 나게 교사들의 욕을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지도하고 협조하고 심지어는 선동까지 하는 것이 좌익계 교사이고, 이러한 방향에 다소나마 브레이크를 걸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익계 교사다. 좌익계 교사는 많은 과오가 없지는 않지만 전진적 진취적으로 보이고 우익계 교사는 양심은 있을는지 몰라도 퇴영적(退嬰的)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해서 의식 있는 학생의 대부분은 좌익의 조직 속에 들게 되고, 부화뇌동하기도 해서 일반적인 학생의 기풍이 지금 좌익 일변도로 기울어지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학생을 상대로 하고 있다.(15회:411-413면)

266) 에리히 프롬, 『사랑의 기술』, 앞의 책.

267) 그는 또 무명의 인사로서 애국하느니보다 유명한 인물로서 애국하는 편을 택하라고도 했다. 「무명 인사의 애국이 값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 그 애국도 높이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유명한 인물이 될 수 있고 유명한 인물로서 애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무명의 인사로서 끝나겠다는 것은 폭이 맞지 않는 얘기다. 졸병으로서보다 장군으로서 애국하고 이름없는 기술자로서보다 아인슈타인 같은 대과학자로서 애국하는 것이 국가, 민족 또는 인류를 위해서 훨씬 유익한 일이다」 혁명가가 되기 위해서라도 학문을 해야 한다고 했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맑시즘도 학문에서 나왔고 또한 학문이다. 학문을 하지 않은 혁명가는 혁명이 성공해도 재료로 쓰이는 인간밖엔 되지 못한다. 혁명을 하기 위한 학문도 기초 학문 없이 해나갈 수 없다」 (15회:414면)

268) (15회:415면)

주의(社會主義)란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태림은 일단 사회주의를 긍정하는 입장에 서서 학생과의 문답을 통해 평이하고 간명하게 사회주의의 의미를 해명한다. 그리고는 사회주의도 많은 주의주장 가운데의 하나이며 그 자체를 몇 갈래로 나눌 수 있는 것이며 공산주의도 그 몇 갈래로 나누인 것 가운데의 하나라고 설명한다.”²⁶⁹⁾ 이러한 와중에 유태림의 지식전달과 학생들과의 피드백에는 교사로서의 권위와 강제성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유태림과 학생들간의 관계는 인간의 초월의 욕구를 창조적인 방향으로 충족시키는 데에 적합하다. 유태림-학생의 관계가 보여주는 수평적 특성은 개인의 개별성인 교사와 학생이라는 위치와 교사-학생 배움집단의 통합성을 함께 유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월의 욕구가 창조적으로 발현되기 위해선 앞서 언급한 일체감과 신앙에 대한 욕구가 창조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일체감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성숙한 사랑의 방향’을 따라야 하는데, 이는 ‘일치에 의한 합일’과 구별된다. 일치에 의한 합일은 ‘평등’의 의미를 자동 인형의 평등, 개성을 상실한 인간들의 평등으로 전락시킨다. 이는 일체성보다는 동일성을 강조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동일한 명령에 복종하면서도 각기 자신의 욕망에 따르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²⁷⁰⁾ 해방기 극좌가 보여주는 ‘계급모순’을 통한 합일의 사례가 일치에 의한 합일이다. 하지만, 성숙한 사랑의 방향을 따르는 일체감은 자신의 통합성, 곧 개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의 합일이다. 유태림이 보여주는 대화와 토론을 통한 해결, 여운형이 보여주는 좌우합작의 가능성은 주체적인 개인과 더불어 통일 민족국가의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유태림과 여운형의 태도야말로 ‘성숙한 사랑의 방향’을 따르는 행동이다.

유태림의 제자에 대한 사랑은 좌익교사들과는 다르게 좌·우를 구분하지 않는다. 학생들의 이념이 좌익이든 우익이든 간에 유태림은 학생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교육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유태림은 “전교 학생 전부를 감당할 수는 없었으나 그가 맡은 학생은 한 사람도 경찰에 붙들리지 않게 신

269) (15회:같은 면)

270) 에리히 프롬, 『사랑의 기술』, 앞의 책, 29-34면.

경을 쓰고 수단도 썼다.”²⁷¹⁾ 초기에는 좌익학생단체인 학생동맹의 규모가 커서 학생동맹의 우익학생들에 대한 폭력사건이 잦았다. 따라서 유태림은 학생동맹의 학생들을 비호하려고 노력했다. “몇 차례에 걸친 맹휴(盟休)에 있어서의 유태림의 결연한 행동으로 다소 당국의 신임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태림의 노력은 그만한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²⁷²⁾ 그러나 유태림의 입장은 “몇 달 전만 해도 학생동맹의 압력에서 학생동맹원이 아닌 학생을 보호하고 두둔하는 입장에 있었는데 어느덧 학생연맹의 압력에서 학생동맹원을 보호하고 두둔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는 입장으로 옮겨지고 있었다.”²⁷³⁾ 학생연맹원의 수는 학생동맹원보다 많지 않았으나, 이들이 우익정당·단체와 경찰의 협조를 얻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세력은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었다.²⁷⁴⁾

유태림은 학생동맹과 학생연맹의 충돌을 “단순한 폭력사건으로 취급하고 가해자(加害者)를 색출해서 어떠한 폭력도 용서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그 자가 학동이건 학련이건 구애할 것 없이 공평히 처리하는 것이 후환을 덜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²⁷⁵⁾이라고 생각했다. 폭력은 대화와 토론의 가능성을 억압하는 것이었으므로 유태림은 어떠한 폭력도 용납할 수 없었다.²⁷⁶⁾

유태림이 제자-스승간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제자-스승의 수평적 관계와 이념을 넘어선 제자에 대한 사랑은 ‘성숙한 사랑의 방향’을 따른 행동이다. 유태림의 학급인원 수는 33명이었다. 유태림은 33명을 전원 무사히 졸업시키는 데 성공한다. 유태림의 제자들은 모두 능력을 발휘하는 훌륭한 인물

271) (15회:415면)

272) (15회:같은 면)

273) (15회:423면)

274) (15회:같은 면)

275) (15회:415면)

276) 이러한 폭력은 제국주의 일본을 대상으로 한 독립운동가의 폭력과 구별된다. 일제 강점기에는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주체성을 억압했고, 이 당시는 대화와 토론의 가능성 자체가 없었던 시대였다. 그러나, 해방기는 달랐다. 조선인이라면 누구든지 발언권이 인정되었던 해방기에는 대화와 토론을 통한 설득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열려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가능성을 억압하는 해방기 당시의 폭력은 지양되어야 했다. 또한, 좌익은 계급모순에 동조하지 않는 모두를 ‘배제’했다. 배제된 이에 대한 폭력은 정당화되었다. 일제에 대한 독립운동가의 폭력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들로 성장한다.²⁷⁷⁾ 유태림의 중립적인 위치와 사랑에 대한 긍정은 결국 33명이라는 학급안에서는 성공을 거둔다. 그러나 유태림은 실종되기 때문에, 유태림의 입장은 해방기 조선이라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입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태림의 동료에 대한 사랑도 이와 같은 맥락에 있다. 그는 좌익, 우익을 따지지 않고 동료로서 포용하였다. 성실한 우익인사 이광열은 성실한 좌익인사 박창학과 강달호와 민족의 앞날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²⁷⁸⁾ 이와 같은 토론은 그들을 각각 주체적인 개인으로 인정하는 유태림의 존재로 인해 가능했던 것이다. 서로가 서로의 이념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이성적인 토론은 중립적인 인물의 중계를 거치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이었다. 유태림은 좌·우익을 막론하고 대화와 토론을 이어간다. 유태림은 박창학과 강달호를 좌익검거선봉으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해 자신의 집에 들인다.²⁷⁹⁾ 마찬가지로, 우익인 이광열이 학생동맹에게 붙들리고 나서 그의 생사를 알아보기 위해 태림은 “자기 나름대로 사람을 보내보기도 하고 광열의 가족과도 연락을 취하고 있”²⁸⁰⁾었다. 이러한 태림의 태도는 태림이 정치보위부에 체포되었을 때, 강달호로 하여금 “그 밤을 꼬박 새워가며 인민위원장을 찾고 C시당 위원장을 찾고 경남도 인민위원회의 문화부장과 경남도당 문화책(文化責)을 찾아다니며 태림의 구명운동”²⁸¹⁾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유태림의 태도는 좌·우익 간의 토론과 화해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사상에 대한 신념은 더 나은 방향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토론의 가능성을 묵살하는 선을 넘어서 안된다. 토론의 가능성이야말로 에피쿠로스의

277) 태림이 C고등학교에서 맡은 바로 그 학급에서 박사(博士)가 셋, 대학교수가 여섯, 판사 검사가 각각 하나, 고급관리가 다섯, 은행지점장(銀行支店長)이 셋, 꽤 성공한 실업가가 둘, 음악가가 하나, 한국의 현 문단(文壇)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문학평론가(文學評論家)가 하나, 一流신문의 중견급 논설위원(論說委員)이 하나, 국영기업체(國營企業體)의 간부 하나, 의사가 하나, 중고등학교의 교사가 셋, 합해서 29명이 우리나라 사회에 진출해선 일류의 인물로서 활약하고 있다. 태림이 C고등학교에서 그 학급을 맡을 때 33명이었고 그것을 고스란히 졸업시켰는데 이상 29명을 제외한 4명 가운데 한 명은 병사(病死), 세명은 동란중에 행방불명이 되었다.(24회:429면)

278) (16회:376-384면)

279) (16회:377면)

280) (23회:426면)

281) (23회:420-421면)

원자론적 세계의 원자의 편위적 움직임과 대응하는 지점이다. 하나의 집적체가 다른 집적체로 변할 때, 원자는 개별성을 얻게 되고, 또 다른 통합성을 새로이 획득하게 된다.²⁸²⁾ 상대방과의 토론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은 상대방의 주체적인 개체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주체적인 개체성들의 토론으로 인해 새로이 통합될 집단의 가능성을 긍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상과 상관없이 토론의 가능성을 열어두어 개체의 개별성과 토론을 통한 집단의 통합성을 모색하고자 했던 유태림은 ‘성숙한 사랑의 방향’을 따랐다고 할 수 있다.

유태림이 보여주는 민족에 대한 사랑 또한, ‘성숙한 사랑의 방향’을 보여준다. 유태림은 중립적인 시선을 통해 좌·우익을 넘어선 민족의 통일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유태림의 생각은 단독정부수립을 주장하는 이승만에 대한 비난, 남북협상에 나선 김구에 대한 지지, 좌우합작을 통한 민족국가건설을 주장했던 여운형에 대한 긍정으로 나타난다. 우익 이선생은 당시 지도자들 중에 현실 감각이 있었던 사람은 이승만 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를 위대한 인물로 치켜세운다. 또한, 이선생에게 있어 김구의 남북협상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관부연락선』은 이처럼 우익의 시점을 전면적으로 내세움으로써 유태림으로 대표되는 중립적인 입장을 더 객관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정치적인 일에서는 양 진영의 장점과 단점을 나열하며 관찰자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유태림이 단독정부수립 의제만큼은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에 선다. 앞서 논의했듯이, 단독정부수립에는 극좌와 극우 양 진영이 책임을 공유한다. 이러한 유태림의 입장은 극좌·극우의 이권다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양 진영으로부터 배제된 유태림들은 양 진영으로부터의 폭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따라서 한국현대사에서 유태림과 같은 입장은 극단적이고 위험한 입장이었다.

유태림이 긍정하는 좌우합작의 가능성, 통일민족국가 수립은 각 진영의 개체성을 인정하고, 각 진영을 통합하여 민족국가를 이룩한다는 생각의 기저에 놓여있다. 따라서 개인의 주체적인 개체성이 인정되는 바탕에서 개인이 소외되지 않는 민족국가라는 집단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유태림의 민족

282) 칼 마르크스, 앞의 책, 71-82면.

에 대한 사랑은 ‘성숙한 사랑의 방향’을 따랐다고 할 수 있다.

유태림의 아버지가 유태림에게 보여주는 사랑도 ‘성숙한 사랑의 방향’을 따르고 있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공서적 애착의 수동적 형태에 빠지기 쉽다.²⁸³⁾ 자식이 부모의 기대대로 평생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태림의 아버지는 유태림을 적극 후원하면서도 유태림의 의사에 개입하지 않는다. 유태림을 하나의 주체적인 개인으로 인정해 준다. 유태림의 부친은 유태림의 후원에 대한 댓가를 바라지 않는다. 아들이 그저 건강하게 살기를 바랄 뿐이다. 그의 아버지는 유태림에게 전통적인 가치를 강요하지 않으며, 말없이 유태림을 도와준다. 이러한 사랑은 부모가 자식에게 보여주는 조건 없는 ‘성숙한 사랑의 방향’을 성실히 따르고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 노소동락(老少同樂)을 해야 하네. 민주주의의 세상이 아닌가. 민주주의란 어떤 뜻으론 노소동락해야 한다는 말이 아닌가」²⁸⁴⁾

인용문은 친구의 부친과 같이 술을 마실 수 없다는 H촌의 풍습을 익히 알고 있는 이선생이 술상을 사양하자, 유태림의 아버지가 이선생에게 유태림을 도와 세상의 풍파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아들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한 말이다. 그의 아버지는 전통적인 가치를 고수하는 인물이 아니다. 그의 아버지는 모든 가치에 우선하여 아들을 위하는 마음을 갖는다. 이는 신경증적 ‘비이기주의’²⁸⁵⁾와는 다르다. 프롬에 따르면, 이러한 비이기주의는 ‘증상’으로 느껴지지 않을 뿐 아니라 흔히 이러한 사람들이 자랑하고 있는 구원적인 성격이며 특색이다. 우리 문화에서는 ‘비이기적’인 어머니가 자녀에

283) 자식이 부모의 곁에서 절대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어린아이일 때와 달리 성장해가면서 아이는 자신만의 주체성을 갖고 부모로부터 분리하려고 한다. 부모는 아이의 분리를 관용할 뿐 아니라 바라고 후원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은 아이의 분리를 허용하지 않고, 계속 자신의 영향하에 두려고 한다. 부모는 아이가 연약할 때에만 사랑할 것이 아니고, 아이의 분리도 적극 허용하고 관용해야 한다.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못한 아이들은 사랑받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행복감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들은 불안해하고 긴장해 있고 부모의 비난을 두려워하고 부모의 기대에 따라 살려고 애를 쓴다.(에리히 프롬, 『사랑의 기술』, 앞의 책)

284) (2회:426면)

285) 에리히 프롬, 『사랑의 기술』, 앞의 책, 87면.

게 미치는 영향에서 가장 자주 나타난다. 이 어머니는 자신의 비이기심을 통해 자녀들이 사랑받는 것이 무엇이며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믿는다.²⁸⁶⁾ 그러나, 이러한 부모 밑에 있는 아이들은 불안해하고 긴장해 있다. 결국 ‘비이기적’인 어머니가 미치는 영향은 이기적인 어머니의 영향과 별로 다르지 않다.²⁸⁷⁾ 이러한 신경증적 ‘비이기주의’는 본인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자녀를 구속하려고 할 때 생겨난다. 유태림의 아버지는 유태림을 적극 보호하면서 유태림에게 조건적인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부모의 성숙한 사랑은 아이로 하여금 삶에 대한 긍정과 타인에 대한 충분한 포용력을 갖게 한다. 따라서 유태림은 주체적인 개체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집단과의 합일을 고민할 수 있는 중립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것이다. 유태림은 ‘성숙한 사랑의 방향’을 따르려는 인물들에게 ‘성실함’이라는 속성을 부여한다.

유태림은 성실함에 대해 지속적으로 말한다. M교사, 서경애, 고다씨 등에 대해 성실하다고 평가한다. ‘성실함’이란 ‘방향’으로서의 사랑을 실현하려는 제반 인물에게 부여되는 속성이다. 유태림에 따르면 의병대장 이인영도 성실한 인물이다. 하지만, 의병대장 이인영에게는 성실함의 속성이 부여되지 않는다. 「柳泰林의 手記」의 유태림은 이인영대장을 훌륭하다고 평가하지만 성실한 인물로 평하지는 않는다. ‘성실함’의 기준이 학병체험까지 마친 유태림의 내면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병대장 이인영에게는 ‘성실함’의 속성을 부여하지 않지만 이인영 또한, ‘방향’으로서의 성숙한 사랑을 실현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성실한 인물이다.

이러한 성실함은 일본인, 좌익, 우익에 상관없이 ‘방향’으로서의 사랑을 실현하려는 제반 인물에게 부여된다. 사랑의 실현에는 신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합리적인 신념을 바탕으로 사랑을 실현하려는 성실한 인물들 사이에는 각기 다른 층위가 존재한다. ‘성실함’의 층위는 (1) 중립의 위치에서

286) ‘비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뿐이고’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자랑한다. 그는 자신의 비이기주의에도 불구하고 불행하며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조차도 원활하지 못한 데 대해 당황스러워한다.(에리히 프롬, 위의 책, 87면)

287) 에리히 프롬, 위의 책, 88면.

관찰하고 평가하는 인물인 유태립 (2) 중립의 위치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는 여운형 (3) 이인영과 같은 행동적인 독립투사 (4) M, 서경애와 같은 투철한 좌익신념을 가진 인물 (5) 이광열, 이선생과 같은 투철한 우익적 신념을 가진 인물로 나눌 수 있다. (2)가 가장 고평되는 성실함이며 (1)은 (2)에 대한 동경심을 가지고 있다. (4),(5)의 인물도 성실하지만 (2)의 인물에는 미치지 못한다. (3)과 (4)는 모두 체제 외적 기질에 기반해있지만, 합리적인 신념이라는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²⁸⁸⁾ 같은 층위의 성실함이 아니다. (1)은 이 모든 ‘성실함’을 유형화해내며, 이를 통해 ‘성실함’의 층위를 분석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유태립의 시선은 문제적이다.

앞서 논의했듯이, 성실한 좌익과 우익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민족을 위한 길을 모색하였다. 합리적인 신념의 측면에서 우익은 미군정의 체제 내에서 좌익은 미군정의 체제 밖에서 해결책을 모색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민족을 위한 길’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성실하다는 속성을 부여받는다. 성실한 좌·우익은 미군 주둔 하의 남한에서 ‘방향’으로서의 사랑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모색했다.

이들은 모두 민족을 위한 길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성실함’의 속성을 부여받는다. 성숙한 사랑의 실현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신념을 갖춰야 하며, 행동의 과정과 결과가 ‘기회주의형 인물’을 제외한 타인의 소외를 수반해서는 안되는 것이어야 한다. 성실한 좌·우익은 각각 계급모순의 해결과 미군정 체제의 바탕 위에서 민족정부의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모색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신념을 갖췄다. 하지만, 그들은 ‘타인의 배제’라는 측면에서 기회주의형 인물만을 배제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회주의형 인물이라도 자신들의 이념적 지형에 부합하는 인사들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들은 각자의 진영에 관용과 포용적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우익은 좌익을 현실성 없는 이상주의자, 소련의 앞잡이로 폄하하였으며 좌익도 우익을 계급모순을 이

288)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선 신념이 필수적이다. 과학자의 새로운 발견이 신념을 통해 시작되듯, 사랑의 실현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병주는 합리적인 신념에 중요한 조건으로 ‘인간 소외 거부’를 들고 있다. 따라서, 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독립운동과 계급의식의 절대화로 인간 소외를 일으키는 좌익사상은 그는 다르게 평가한다. 사상의 절대화는 기회주의자가 아닌 타인의 배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해하지 못하는 반동분자로 폄하하였다. 또한, 성실한 좌·우익은 본인들의 과오를 숨기고 극좌·극우에 편승하여 일신영달을 노리는 기회주의자들을 철저히 배제시키지 못했다. 그들은 진영논리에 잠식되어 ‘방향’으로서의 성숙한 사랑을 실현해내지 못했다.

의병대장 이인영도 성실한 인물이다. 이인영은 제국주의 일본으로부터 조선의 자주성을 찾기 위해 독립운동의 선봉에 섰던 인물이다. 독립운동은 조선인이 일제 하에서 ‘노예의 상태’를 벗어나려고 했던 주체적인 운동이다. 독립운동가들은 일제 하에서는 조선인 개개인의 주체성과 조선 민족 집단의 주체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독립운동은 ‘방향’으로서의 성숙한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유태림은 이러한 이인영대장에게 아나크로니즘, 시대착오적이었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성공하지 못한 혁명, 목적을 관철하지 못한 저항은 모두 아나크로니즘이다.”²⁸⁹⁾ 유태림은 ‘냉철한 현실판단’의 측면에서 결과론적으로 이인영의 독립운동을 평가한다. 하지만, 유태림은 시대착오적이었다는 평가 외에 독립운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유태림은 오히려 이인영대장의 훌륭함을 높이 평가하며, “「독립운동은 성패(成敗)의 문제이기 전에 신념의 문제이니까 쓸데없는 노릇이니 뭐니 할 수는 없지.”²⁹⁰⁾ 라는 고다씨의 발언을 긍정한다. 따라서 유태림이 독립운동을 시대착오적으로 평가한 것은 이인영의 독립운동을 통해 파시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희생되어 간 식민지의 주체적인 움직임의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독립투사 원주신을 찾아 나서는 유태림과 일본인 E의 행적이 「柳泰林의 手記」의 주요한 플롯으로 설정되어있다는 사실과 플롯이 진행됨에 따라 역사는 거대한 흐름에 희생되어가는 개인을 보여주고자 했던 「柳泰林의 手記」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러한 사실을 방증한다.

독립운동은 신념에 의한 식민지의 주체적인 움직임으로, ‘성숙한 사랑’의 방향을 따르는 행동이다. 이러한 독립운동은 해방기 좌익의 행동과 구별된다. 의병대장 이인영과 해방기 성실한 좌익은 모두 체제 외적 기질에 기반

289) (14회:412면)

290) (13회:416면)

해 있는 인물군이다. 그러나, ‘타인에 대한 배제’의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인영은 독립운동을 누구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이인영에게 동조한 인물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독립운동에 참가한 인물들이다. 독립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일제 하에 살고 있던 조선인들에 대한 테러를 행하지 않는다. 독립운동가들에게 배제되는 타인이라 ‘기회주의’형 인물이다. 앞서, 2장에서 송병준을 기회주의형 인물로 규정하고 이완용과 이용구는 그렇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완용과 이용구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송병준과 같이 일제를 위한 행동만을 추구했다면, 독립운동가들의 테러 대상이 되는 것에 하등 이상이 없다.

그러나 해방기 성실한 좌익은 ‘계급모순’을 자각하지 못했거나 동참하지 않는 인물들은 모두 ‘타인’으로 배제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온건 좌파인 여운형도 민족 자본가들과의 연대와 계급모순을 언급하지 않는 우익과의 통합을 추구했기 때문에 반동분자다. 해방기에 이러한 배제된 타인들에 대한 폭력은 정당화되었다. 우익 또한, 배제된 타인들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한 것으로 보았을 때, 해방기 좌·우익은 ‘배제된 타인’의 측면에서 똑같은 과오를 범했다. 이러한 점에서 독립운동가와 해방기 좌익은 같은 체제 외적 기질에 기반해 있지만, ‘성실함’의 층위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인영은 신념을 행함에 있어 ‘타인의 배제’를 수반하지 않는 적극적인 행동적 면모를 보여준다. 여운형을 제외하고, 『관부연락선』의 중립적인 인물형에게 부족한 것은 이러한 적극적인 행동적 면모이다. 유태림은 「柳泰林의 手記」를 포함한 『관부연락선』 전반에서 ‘합리적인 신념’이 개인의 주체성과 집단의 통합성을 함께 유지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랑의 방향’을 따르는 적극적인 행동의 준칙을 모색한다. 이인영의 독립운동은 이러한 행동 준칙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운형의 행동도 마찬가지다. 여운형의 좌우합작이 배제하는 타인이라 ‘기회주의’형 인물군이고, 여운형은 적극적으로 통일민족국가를 설립하기 위해 행동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태림은 여운형과 이인영을 고평한다.

그러나 유태림은 이인영을 시대착오적으로 평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운형의 행동 또한 “정치의 제1선에서 물러서야 했”으며 “좌우가 한창 싸우다

가 여운형의 카리스마가 필요할 정도로 시국이 익기를 기다려야했던 말이다.”²⁹¹⁾라고 하며 성급한 행동이었다고 평가한다. 여운형의 암살을 계기로 결과론적으로 여운형의 행적을 평가한 것이다. 이와 같이 ‘유태림’의 중립적 시선은 중립적 인물인 여운형과, 훌륭하게 평가되는 이인영과는 다르게 모든 행동을 관찰하고 평가한다. 이인영과 여운형의 실패를 안타까운 역사라고만 치부하지 않고, 이인영과 여운형이 보여주었던 역사적 가능성과 결과에 대해 평가를 내린다. 이는, 중립적인 시선이 단지 상황을 관조하는 시선이라기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진보적인 방향에 대한 모색에 적용될 수 있는 매우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태림은 행동하지 못하는 자기에 대해 고민하지만, ‘중립적인 시선’을 통해 평가와 진단을 내리는 유태림의 비참여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하겠다. 유태림은 ‘비참여를 통한 참여’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태림도 ‘단독정부수립’에서 만큼은 결연한 반대의지를 보여준다. 유태림이 적극적으로 참여행동을 보여주는 것은 단독정부수립 반대와 사랑이다. 물론, 단독정부수립에 유태림이 적극적으로 미군정에 항거한다든지, 우익을 비판하며 행동적인 투사로 나서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승만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과 단독정부수립이라는 가치에 대한 절대적인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유태림의 모습은 다른 어떠한 국면에서도 볼 수 없다. 중립적인 시선에서 단독정부수립은 민족의 과오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태림은 ‘단독정부수립 반대’라는 행동의 방향을 제시해준다. 그러나, 유태림은 어떻게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할 것인가는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하지만, 유태림은 단독정부수립의 반대의견이 민족 개개인의 주체성과 조선 민족의 통합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은 명확히 한다.

‘성실함’은 ‘합리적인 신념’을 통해 타인을 위한 길을 모색하는 제반 인물에게 부여된다. 인물군들의 ‘성실함’의 층위는 ‘타인의 배제’라는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성실한 좌·우익은 ‘타인의 배제’라는 측면에서 기회주의형 인물만을 배제하지 않고, 본인들의 이념에 맞지 않는 인물군을 배제하였다.

291) (17회:425면)

또한, 배제된 이들의 폭력도 정당화되었다. 그러나, 여운형과 같은 중립적인 인물이나 이인영과 같은 독립투사는 이념을 강요하지 않았다. 이들이 배제하는 타인은 ‘기회주의형’ 인물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여운형과 이인영도 결국엔 실패했기 때문에, 유태림의 비판을 피하지 못한다. 하지만, 여운형과 이인영은 일제 말기와 해방기 어떠한 인물군보다도 고평받는 인물이다. 이러한 인물군을 유형화하고 평가하는 인물은 유태림이라는 중립적인 인물이다. 유태림을 통한 중립적인 시선은 인물군의 유형화, 기회주의의 재해석과 더불어 인물군들의 특성과 장단점을 분석·제시하여 일제 말기부터 해방기에 이르는 한국현대사를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4. 결론

본고는 ‘회색’으로 평가절하되었던 이병주의 ‘중립’을 재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병주의 ‘중립’은 어느 한 편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부정적(negative) 차원을 넘어, 어떤 입장과 태도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윤리적 출발지점’이라는 매우 긍정적(positive) 차원에 연결되어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롤랑 바르트가 말한 바, 중립이란 기준에 주어진 것들 사이의 선택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는 선택을 뜻한다는 점이 중요하다.²⁹²⁾

『관부연락선』은 이러한 ‘중립’적 입장을 통해 ‘민족’과 ‘좌익·우익’으로 환원되지 않는 인물군을 유형화한다. 바르트의 ‘중립’은 진리의 절대화를 벗어나 이분법을 통해 소외된 개별적이고 환원불가능한 것들에게 진리의 가치를 부여하고 재구성해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 『관부연락선』의 ‘중립’에 대응한다. 바르트는 사례를 나열함으로써 중립을 전달하는 방식을 택한다. 중립의 사태를 개별적으로 제시하는 것만이 중립을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환원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²⁹³⁾

『관부연락선』의 ‘중립’은 단지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292) 롤랑 바르트, 앞의 책, 38-39면.

293) 바르트는 『중립』에서 중립의 속성을 설명함에 있어 호의, 피로, 침묵, 섬세함, 수면, 단언, 색깔, 형용사, 분노 등의 여러 사례들을 통해 중립의 속성을 이끌어내고 있다.

‘추구’의 몸짓을 가능케 하는 역동적인 힘이다. ‘중립적인 입장’이란 이분법을 지양하고 개별적인 것들에 가치를 부여하여 새로운 통합성을 이루려하는 적극적인 몸짓이다.

2장에서 유형화되는 인물의 형상화 방식을 통해 이병주의 ‘중립’은 기실 기회주의적이 아님이 드러나며 기회주의는 자발적으로 노예의 상태를 지향하고, 본인의 일신영달을 위해 주어진 환경을 이용하여 의식적으로 타자의 억압을 마다하지 않는 인물로 재평가된다. 그와 더불어 체제 외적 인물군과의 비교를 통해 ‘중립’은 ‘기회주의’를 제외한 인물에 대한 배제를 지양하는 태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관찰하는 시선으로서 중립을 보여주는 유태림이 중립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여운형을 평가함으로써 ‘중립적 입장’의 행동방향과 필요성이 더욱 침예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중립적인 인물들의 행동방향은 ‘방향’으로서의 성숙한 사랑을 따르고 있다.

‘방향’으로서의 성숙한 사랑은 개인의 주체성과 집단의 통합성을 함께 추구하는 방식이다.²⁹⁴⁾ 『관부연락선』은 사랑의 서사를 다름에 있어서 서경애라는 좌익투사를 고귀하게 형상화함과 동시에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서경애-이선생-유태림의 사랑의 서사는 ‘방향’으로서의 사랑을 잘 보여준다. 유태림에 대한 서경애의 사랑은 실재의 유태림이 아닌 ‘관념적인 유태림’에 대한 사랑을 지향함으로써 ‘방향’으로서의 사랑에 대응한다. 유태림에 대한 서경애의 사랑은 ‘실재의 유태림’에 대한 사랑도 보여줌으로써 중립적인 인물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선생의 서경애에 대한 사랑은 이념을 넘어선 개인 간의 화해가능성을 담지한다는 점에서 성숙한 사랑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병주는 이러한 사랑을 실패로 처리함으로써 격동하는 해방기에서 좌우의 대화불가능성과 중립의 불가능성을 암시한다. 이병주는 『관부연락선』의 전체적인 구도를 지배하고 있는 ‘우익’의 시점과 ‘중립’의 입장에 대비하여 ‘좌익’인물을 고귀하게 형상화함으로써 『관부연락선』 자체가 중립적인 텍스트임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유태림은 ‘방향’으로서의 사랑을 추구하려는 제반인물에게 ‘성실함’이라는 속성을 부여한다. 그러나 ‘타인의 배제’와 ‘신념의 강요’라는 측면에서 『관

294) 에리히 프롬, 『사랑의 기술』, 앞의 책, 35면.

『관부연락선』의 성실한 인물들의 층위가 나누어진다. 여기서 중립적인 인물은 기회주의를 제외한 타인의 배제를 수반하지 않는 ‘방향’으로서의 성숙한 사랑을 추구하는 인물임이 드러난다. 따라서 ‘성실함’의 층위에서 가장 고평받는 인물은 중립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관부연락선』에 나타나는 중립과 성숙한 사랑의 관계는 서로 상보적임을 알 수 있다.

『관부연락선』은 중립의 시각을 ‘남북 간의 관계’를 넘어서 ‘일제 강점기’까지 확대·적용하려고 했던 이병주 기획의 결과물이다. 이러한 중립의 시각은 당대에 있었던 어떠한 ‘중립’의 시각과도 차별화되는 이병주만의 고유한 중립의 관점이다. 이러한 중립과 상보적 관계인 『관부연락선』에 나타나는 성숙한 사랑은 유태립과 그의 제자들이 보여주는 제자-스승 간의 사랑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패한다. 이를 통해, 격동하는 해방기에서의 사랑은 성취하기 어려운 사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유태립의 실종을 통해 『관부연락선』은 한국현대사에서 중립이란 불가능에 가까운 위험한 입장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관부연락선』은 중립이야말로 가장 극단적이고 위험한 입장이며, 사랑이야말로 가장 성취하기 어려운 사상임을 유태립의 실종을 통해 역설적으로 보여준 작품이다.

참 고 문 헌

1. 기본자료

- 이병주, 『관부연락선』, 『월간중앙』, 1968년 4월 - 1970년 3월, 1-24회.
_____, 『관부연락선』, 한길사, 2006.
_____, 『그 테러리스트를 위한 만사』, 한길사, 2006.

2. 국내논저

(1) 단행본

- 강종일, 『한반도 생존전략-중립화-』, 해맞이미디어, 2014.
김윤식, 『이병주와 지리산』, 국학자료원, 2010.
_____, 『이병주 연구』, 국학자료원, 2015.
_____, 『일제말기 한국인 학병세대의 체험적 글쓰기론』, 서울대출판부, 2007.
김윤식·김종희·임현영 편집, 『역사의 그늘, 문학의 길』, 한길사, 2008.
서중석,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 웅진 지식하우스, 2013.
손혜숙, 『이병주 소설과 역사 횡단하기』, 지식과교양, 2012.
이병주, 김윤식·김종희 엮음, 『스페인 내전의 비극』, 바이북스, 2013.

(2) 논문 및 평론

- 강경선, 「이병주의 『관부연락선』 연구」, 경성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김기용, 「이병주 중·단편 소설 연구」, 원광대 석사학위논문, 2010.
김민희, 「『관부연락선』 연구」, 홍익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김성환, 「일본이라는 타자와 1960년대 한국의 주체성」, 『語文論集』

- 61, 중앙어문학회, 2015.
- 김성환, 「식민지를 가로지르는 1960년대 글쓰기의 한 양식」, 『한국현대문학연구』 46, 한국현대문학회, 2015.
- 김외곤, 「격동기 지식인의 초상-『관부연락선』」, 김윤식·김중희·임헌영 편집, 『역사의 그늘, 문학의 길』, 한길사, 2008.
- _____, 「이병주 문학과 학병 세대의 의식구조」, 『지역문학연구』 12, 경남부산지역문학회, 2005.
- 김철, 「日本社會黨의 對韓政策 - 韓·日協定에 반대하는 姿勢는 어디에서 오나」, 『사상계』, 사상계사, 1965년 11월호.
- 노현주, 「이병주 소설의 정치의식과 대중성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2012.
- _____, 「현대문학 : 정치의식의 소설화와 뉴저널리즘 - 이병주의 『관부연락선』 연구」, 『우리어문연구』 42, 우리어문학회, 2012.
- 문경화, 「이병주의 지리산 연구」, 서강대 석사학위 논문, 2010.
- 박병탁, 「이병주 역사소설의 유형과 의미 연구 : 『관부연락선』, 『지리산』, 『산하』를 중심으로」,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14.
- 서영채, 「최인훈 소설의 세대론적 특성과 소설사적 위상 : 죄의식과 주체화」, 『한국현대문학연구』 37, 한국현대문학회, 2012.
- 서중석, 「해방정국의 중도와 정치세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9,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4.
- _____, 「국내 독립운동세력의 해방 후 국가건설방향」, 『大東文化研究』 56,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6.
- 손혜숙, 「이병주 소설의 ‘역사인식’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 논문, 2011.
- 용정훈, 「이병주론-계몽주의적 성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2001.
- 유지아,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일본내 한일회담 반대운동」, 『탐라문화』 48,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5.
- 이정석, 「학병세대 작가 이병주를 통해 본 탈식민의 과제」, 『한중인문학연구』, 한중인문학회, 2011.

- 이병주, 남재희 대담, 「회색군상의 이론」, 『세대』, 1974. 5.
- 장문석, 「특집:상흔과 극복-1970년 김윤식의 도일과 비평」, 『민족문학사 연구』 59, 민족문학사학회, 2014.
- 정호웅, 「해방 전후 지식인의 행로와 그 의미 - 이병주의 『관부연락선』」, 『현대소설연구』 24, 한국현대소설학회, 2004.
- 조갑상, 「이병주의 『관부연락선』 연구」, 『현대소설연구』 11, 한국현대소설학회, 1999.
- 최현주, 「『관부연락선』의 탈식민성 연구」, 『배달말』 48, 배달말학회, 2011.
- _____, 「탈식민주의 문학교육과 이병주의 『관부연락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3,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1.
- _____, 「『관부연락선』의 탈식민성 연구」, 『배달말』 48, 배달말학회, 2011.
- 한규한, 「해방정국의 좌우합작과 민족통일전선」, 『마르크스21』 8, 2010.

3. 국외논저

- Barthes, Roland, 김웅권 옮김, 『중립』, 동문선, 2004.
- Fromm, Erich, 황문수 옮김, 『사랑의 기술』, 문예출판사, 2006.
- _____, 김병익 옮김, 『건전한 사회』, 범우사, 2013.
- Marx, Karl, 고병권 옮김,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 자연철학의 차이』, 그린비, 2001.
- Prince, Gerald, 최상규 옮김, 『서사학이란 무엇인가』, 예림기획, 2015.

Abstract

Research on the Ethics found in Lee Byeng-Ju's *The*

Busan-Shimonoseki Liner

- Focusing on Neutrality and the Meaning of
Love -

Ge-Ryong Jung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object of this paper is to show how ethics are used in Lee Byeng-Ju's *the Busan-Shimonoseki Liner(gwanbuyeollakseon)*. Previous research on the topic has negatively viewed Lee's ideas as 'Grey Thought.' However, Lee was acknowledging reality on a basis of neutrality and love. Lee Byeng-Ju's neutrality appears as the ethical starting point which make a certain attitude and perspective possible, and it is this that ultimately implies an active meaning to points related to the problem of choice. Even though Lee's neutrality was not based on two conditions alone, it is that in its entirety that it gains its

worthwhile active meaning. This direction of a neutral perspective is sharpened by the concept of 'love by direction.' The neutrality and love that appears in *The Busan-Shimonoseki Liner* are aspects brought to light through the sense of ethics found in the narrative. In accordance with this, in this paper I intend to decipher Lee Byeng-Ju's ethics through the neutrality and love that appear in this novel.

Enquiries about love which gives shape to neutrality in Lee Byeng-Ju's novels generally come from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Liberation period. As *The Busan-Shimonoseki Liner* was the first full-length novel published by Lee after his debut short story "Novel Alexandria(oseol alleksandeuria)", it is the only one of Lee's works to show neutrality through the colonial and liberation periods. Research into this finds its significance from finding that research related to *The Busan-Shimonoseki Liner* can provide important clues to understanding neutrality and love that penetrates all Lee's work.

Chapter two discusses meaning of neutrality is expressed in the ways that characters are brought to life through the perspective of the narration and viewpoint of the narrator, and what possibilities they provide. *The Busan-Shimonoseki Liner* is told through a total of three perspectives and each perspective is closely connected through the narrative's neutrality. Also, several characters in the novel are formed through the viewpoint of the narrator, but it is through these narrators' eyes that the perspective can be called neutral. And, as an attempt to readdress opportunism, the way that the narrator, who does not reduce difference to a left-right dichotomy, forms characters becomes a problematic aspect of *The Busan-Shimonoseki Liner*.

The third chapter discusses the active meaning of neutrality which has worth despite not requiring two conditions, and the love which sets the direction of that neutrality. The possibility of characters formed

through a neutral perspective to match up is implied through the way they are characterized in order to show love, and the various forms and aspects of love between people. The main message that is being shown through neutrality and love is the scope of exclusion of others. *The Busan-Shimonoseki Liner* aims to show communication with those who were excluded by opportunists as other through neutrality and love. Characters who are on a level of sincerity are the ones who have independence and 'the ability to converse with others apart from opportunists.' Also, Lee Byeng-Ju seems to stress the fact that *The Busan-Shimonoseki Liner* is a neutral text by depicting the leftist characters as more honorable than the neutral perspective and the rightist viewpoint which dominates the overall composition of *The Busan-Shimonoseki Liner*.

Through the loss of neutral characters, *The Busan-Shimonoseki Liner* shows the dangerous position of neutrality in Korean modern history being nearly impossible. *The Busan-Shimonoseki Liner* is a work that shows that being neutral may be the most extreme and dangerous position, and that through the paradoxical loss of neutral characters that love is the most difficult idea to fulfill. The neutrality of *The Busan-Shimonoseki Liner* does not mean finding the middle ground of two positions, but it is a neutrality which explores what makes such dichotomy possible. Choi In-hun's "The Square" ends with the suicide of Lee Myeong Jun who hoped for a neutral state. Lee Myeong Jun's neutrality can be called a 'neutrality of transcendence.' There is no evidence in reality of the utopian neutrality sought by Lee Myeong Jun. But, Lee Byeng-Ju's neutrality has the position of attempting correct that issue and find evidence of neutrality in reality. It would be difficult to class the inherent neutrality of Lee's literary work as having an 'absence of class consciousness' or showing the 'limits of liberalism.'

Keywords : Lee Byeng-Ju, Lee Byung Ju, *Busan-Shimonoseki*
Liner, Gwanbuyeollakseon, Neutrality, Love with
direction, Ethics, Reappraisal of Opportunism, Sincerity,
Grey Thought

Student Number : 2015-20041